韓國音樂學資料叢書二十二

琴合字譜・時用鄉樂譜

東大琴譜・東大伽倻琴譜・東大律譜

韓國音樂學資料叢書二十二

琴合字譜・時用鄕樂譜
東大琴譜・東大伽倻琴譜・東大律譜

國立國樂院

古樂譜解題

1. 琴 合 字 譜

成 慶 麟 (藝術院 元老會員)

印本 一册 編者:安瑞
年代:宣祖 五年 · 故全瑩弼氏 藏(現,간송미술관 全晟雨氏 所藏 : 성북구 성북동 97-1 762-0442)

《琴合字譜》는 宣祖 五年(一五七二) 安瑞이 지은 거문고 譜이다.

《時用鄕樂譜》가 나오기까지는 《世宗實錄》樂譜·《世祖實錄》樂譜에 버금하는 民撰 樂譜로는 최고의 것으로 알았고 記譜의 精妙, 내용의 贍富 등으로 樂譜로서는 최초로 國寶에 지정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내가 嘉靖 辛酉 明宗 一六年(一五六一)에 掌樂 僉正이 되어 그 樂工을 取才하는 譜冊을 보니 예전 合字譜를 버리고 上下 卦次만 있고 用指 用匙의 法이 없으니 初學에 있어서 可히 알 수 없다』.

著者 安瑞은 이 琴譜 序文 머리에서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에 著者는『樂師 洪善終으로 하여금 當時의 加指曲 若干調를 取해서 다시 合字譜를 修正하고 또 許億鳳으로 하여금 笛譜를 만들고 李無金으로 하여금 觚鼓의 譜를 만들어 아울러 그 歌詞와 肉譜를 記錄하니 대개 善終은 譜法을 通達하고 許·李 두 工人은 笛과 觚로써 세상에 알리었다』이 譜 編纂의 經緯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의 작업에 매우 만족해서『一點 一劃에 音律이 具備해서 優柔하고 和淡하여 發하면 다 節奏에 맞으니 古譜에 比해서도 또 많이 사양할 바는 아니겠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 譜가 있어도 合字의 法을 알지 못하면 또한 담에 낯을 對함 같다. 이에 合字 註解를 써서 卷上에 붙이니 먼곳에 궁벽히 있어 거문고 배우는 데 뜻이 있어도 師友를 얻지 못한 者가 이것을 얻어서 보게 되면 밝은 스승이 곁에 있어』도무지 어려움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附言하고 있다.

《明宗實錄》卷第十二 六年 十月條에『知經筵事 鄭士龍이 가로되, 鍾磬은 遺失함이 많고 있는 것도 刓缺하였으니 이로써 神明께 享하면 어찌 來格하기를 바라겠읍니까. 지금의 鍾磬은 世宗廟 朴堧의 지은 바니 因舊校正하면 하기 쉬울 터이라. 安玹은 智慮가 精明하고 趙晟은 律呂의 學에 밝으니 請컨대 玹으로서 그 일을 主掌케 하고 晟을 불러 더불어 校正케 하사이다. 明宗이 可하다 하고 드디어 校正廳을 設置하고 右參贊 安玹으로 그 일을 主掌케 하고 生員 趙晟으로 付職 釐正케 하였다』고 보이는데 安玹은 安瑋의 아우로서 明宗 때 左相까지 지냈으며 安瑞은 그 安玹의 아우였다.

安瑞은 明宗 一六년 掌樂院 僉正이 되어 樂師 洪善終과 樂工 許億鳳·李無金으로 더불어 그 琴譜를 편찬한 것이었다.

合字譜를 주로 하되 肉譜와 宮上下譜를 兼用하고 笛譜와 肉譜 그 위에 杖鼓譜·鼓譜를 합친 總譜로 되었다.

《琴合字譜》는 末尾에 琵琶譜를 부록하여 비파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古譜는 前 國寶 第四三四號, 現 寶物 第二八三號로 古樂譜로서는 최초요 그리고 유일한 악보이다.

《琴合字譜》는 現在 全晟雨씨 所藏으로 있고 國立國樂院에도 그 模寫本이 있어 전한다.

琴合字譜

琴譜序

余 於嘉靖辛酉 爲掌樂 僉正 觀其試工譜册 棄古之合字譜 而只有上下卦次 無用指用匙之法 在初學 不可曉也 於是使樂師洪善終 取當時加指曲若干調 改修合字譜 又使許億鳳爲笛譜 李無金爲觛鼓之譜 而並錄其歌詞肉譜 盖善終諳達譜法 而許李二工 以笛觛鳴於世者也 一點一劃 音律俱備而優柔和淡發皆中節方之古譜亦未多讓 知此譜 則雖使鼓絃鏗鏘歌管迭作而聞之不亂 其於辨別奪倫 明若觀火矣 然雖有此譜而未知合字之觀則亦若面墻 玆著合字注解 以附卷上僻在遐方 有志學琴而未得師友者 得此而觀之 則有如明師在傍 指示一二無有難處矣 隆慶壬申 竹溪 安瑞書

(내가 가정 신유에 장악 첨정이 되어 그 악공을 취재하는 보책을 보니 예전 합자보는 버리고 다만 상하 괘차만 있고 용지 용시의 법이 없으니 초학에 있어서 가히 알 수가 없다. 이에 악사 홍선종으로 하여금 당시의 가지곡 약간조를 취해서 다시 합자보를 수정하고 또 허억봉으로 하여금 적보를 만들고 이무금으로 하여금 부고의 보를 만들어 아울러 그 가사와 육보를 기록하니 대개 선종은 보법을 통달하고 허·이 두 공인은 적과 부로써 세상에 알리었다. 일점 일획의 음률이 구비해서 우유하고 화담하여 발하면 다 절주에 맞으니 고보에 비해서도 또 많이 사양할 바는 아니겠다. 이 보를 안즉 비록 고현 갱장하고 가관이 질작하더라도 이를 들으매 착란하지 아니하니 그 탈륜함을 변별하매 명약관화한지라. 그러나 비록 이 보가 있어도 합자의 법을 알지 못하면 또한 담에 낯을 대함 같다. 이에 합자 주해를 지어서 써 권상에 부치니 먼곳에 궁벽이 있어 거문고 배우는 데 뜻이 있어도 사우를 얻지 못한 자가 이것을 얻어서 보게 되면 밝은 스승이 곁에 있어 한두 가지를 지시함과 같아서 어려운 곳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次　　例

琴譜序
琴圖
散形
　平調
　羽調
　平調界面調
　羽調界面調
　清風體
　嚆子調
琴圖
　平調各宮分上下圖
　平調常用卦次圖
執匙圖
拍譜
杖鼓譜
鼓譜
笛譜
琴譜合字解

琴平調大絃卦次
琴變卦兼用法
宮商角徵羽出聲圖
調絃
　平調
　界面調平調
　羽調
平調慢大葉
　慢大葉
　鄭石歌
　翰林別曲
　感君恩
平調北殿
羽調北殿
與民樂
步虛子
思母曲　界面調
唐琵琶圖
散形
　平調
　界面調
彈琴手法移用琵琶法
琵琶譜
合子解
用左手指法
用右手指法
彈法
左手按柱法
肉譜
調絃
　慢大葉

彈琴手法移用琵琶法

樂譜 書上下云者 用柱用管通稱之言也 故凡作樂 皆以此取則 是以今於琵琶之彈 詳見散形子絃宮柱以上諸柱皆書上字 及中絃六柱以下 書下一下二下三之處 武絃五柱以下書下四下五處 准用琴之上下法合字之法則只取匙法而彈之指法依本譜 至於琴之下四下五瑟郎處琵琶則於武絃皆以右手母指擧之琴之下五井合字ㅏ如此處 琵琶則以左手食指 於遠山下四絃合而堅執以右手四指 順批之謂也 下五井合字ㅓ如此處琵琶則不按柱而右手母指擧武絃 肉譜則與下五井士郎處 琵琶則以左手食指按子絃四柱右手四指 順批 母指據武食指已下 過子而伸之下五井清字處 琵琶則不按柱 以右手四指順批母指據武 食指據子 長指已下 伸之之謂也 凡於彈法非便處 則隨宜和曲而彈之 夫如是故 能通一曲者 其於諸管絃 皆能通用而無礙

(악보에 상이라, 하이라 쓴 것은 괘를 쓰나 관을 쓰나 통칭하는 이름이다. 무릇 작악에 다 이로써 취하니 이러므로 비파를 타매 자세히 산형 자현 궁주 이상 모든 괘에는 다 상자를 쓰고 중현 六주 이하에 와서는 하일 하이 하삼이라고 쓰는 곳과 무현의 五주 이하 하사 하오라고 쓴 곳은 거문고의 상하법 합자의 법을 준용하되 다만 시법만 취해 타고 지법은 본보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다. 거문고의 하사 하오 슬랭하는 곳에는 비파는 무현에 모두 오른손 엄지를 들고 거문고의 하오정 합자 ㅏ곳에는 비파는 왼손 식지로 타고 원산 하사 줄은 합해서 굳게 잡아 오른손 四지로써 순비하는 것을 이름이다. 하오정 합자 ㅓ곳에는 비파는 괘를 누르지 않고 오른손 엄지로써 무현을 드는 것이다. 육보인즉 홍 하오정 사랭처는 비파는 왼손 식지로써 자현 四주를 누르고 오른손 四지로써 순비한다. 엄지로 무현을 빙거하고 식지 이하는 자현에 지나서 편다. 하오정 청자인 곳은 비파인즉 괘를 누르지 않고 오른손 四지로 순비하고 엄지로 무현을 거하고 식지로 자현을 거하고 장지 이하로 펴는 것을 말한 것이다. 무릇 탄법이 편리하지 않은 곳은 그 편의를 따라 곡조에 화답하여 탈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한 곡만 능통하면 모든 관현에 다 능히 통용해서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2. 時用鄕樂譜

成慶麟 (藝術院 元老會員)

板本 一册 · 編者:未詳
年代:不明 · 李謙魯氏 藏

서울 通文館 書肆 主人 李謙魯씨 所藏의 《時用鄕樂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一九五四년 五월 二〇일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에서 影印本으로 刊行한 데서부터일 것이다 《時用鄕樂譜》가 影印되어 頒布되기까지는 全瑩弼씨 所藏의 《琴合字譜》 一名 《安琥琴譜》가 民撰樂譜로서 최고의 것이라고 일러 왔고 이 《琴合字譜》는 前國寶 第四三四號로 樂譜로서는 최초요 또 유일한 지정 國寶이던 것인데 새로운 지정에서 아깝게 寶物로 격하되고 말았다.

《時用鄕樂譜》의 출현으로 《琴合字譜》는 《世宗實錄》 樂譜 《世祖實錄》 樂譜에 버금하는 자랑스런 자리를 그만 《時用鄕樂譜》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時用鄕樂譜》를 그것도 六·二五동란 뒤에 얻은 기쁨은 影印時用鄕樂譜序로도 잘 표현되었거니와 이 古譜가 주는 國語 國文學 硏究와 그 音樂學 연구에 기여할 바는 실로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할 것이다.

樂譜 表記는 世祖朝 創案의 宮上下譜 그리고 井間譜로 十六井 六大綱을 昭然히 한 뒤 제一행에 宮上下譜, 제二행에는 杖鼓譜, 제三행에는 拍譜, 그리고 제四행에는 歌詞를 기록한 것이다.

《時用鄕樂譜》에 수록된 二六曲 가운데 실로 二〇曲은 《世宗實錄》樂譜·《世祖實錄》樂譜·《琴合字譜》·《梁琴新譜》·《玄琴東文類記》·《玄琴新證假令》·《大樂後譜》·《俗樂源譜》 등 종래의 古譜에는 하나도 전하지 않던 귀중한 것들이다.

즉 《儒林歌》·《雙花曲》·《儺禮歌》·《維鳩曲》·《歸乎曲》·《笙歌寥亮》·《相杵歌》·《風入松》·《夜深詞》·《城皇飯》·《內堂》·《大王飯》·《雜處容》·《三城大王》·《軍馬大王》·《大國一》·《大國二》·《大國三》·《九天》·《別大王》 등이 그것이다.

특히 新出의 樂譜 가운데 또 대부분이 그 巫歌라는 점에도 이 악보의 가치는 無比한 것이다.

雙花曲은 속칭 雙花店인데 原詞는 『雙花店에 雙花 사라가고 신딘 回回아비 내손목을 쥐여이다』로 시작되는 高麗朝의 淫詞이던 것을 여기서는 詩經의 雅頌體를 본떠 말을 바꾸었고 維鳩曲·歸乎曲 등은 또한 유명한 高麗歌謠이었다.

《儺禮歌》·《城皇飯》·《內堂》·《大王飯》·《雜處容》·《三城大王》·《軍馬大王》·《大國一二, 三》·《九天》·《別大王》 등은 거의 이 樂譜를 통하여 처음 선을 보이는 巫歌에 속한다.

그 九天이요 別大王에 이르러는 뜻 있는 사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음악에 어울리는 뜻 없는 餘音으로만 된 것이 무척 이색스럽다.

가람 李秉岐선생은 일찌기 한글 제一一三호에 《時用鄕樂譜의 한 考察》이란 논문을 발표하여 주로 우리 語文學과의 관계에서 소상한 解題가 있었고, 李惠求박사는 최현배선

생 환갑기념 논문집에 《笙歌寥亮鼓吹樂》이란 논문에서 《時用鄕樂譜》에 나오는 笙歌寥亮과 우리나라 鼓吹樂과의 관계를 究明한 바 있다.

《時用鄕樂譜》의 간행 연대에 대하여 明宗朝 무렵, 올라가면 中宗朝에도 거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衆論인 것 같다.

影印時用鄕樂譜序

國風은 內에 蘊하여 한 민족의 底力이 되고 外에 發하여 민족의 기풍과 성격을 反映하는 문화로써 표현된다. 무릇 한 나라의 國風을 형성하는 素因은 곧 그 민족의 歌謠音樂에 依繫한다.

『今之樂이 由古之樂也』라 함은 孟子의 論이어니와 우리나라 音樂은 雅樂과 俗樂으로 나뉘어 있다. 兩者가 모두 與人樂樂과 與衆樂樂을 목적함은 일반이나 특히 後者에 있어 이 與民同樂에 主眼을 둔 것은 의의깊은 것이다.

국악 발달의 槪略을 一考하건대 杳然한 遠古는 고사하고 李朝에 至하여 음악 문화의 權輿가 될 樂譜의 제작에 新境地의 개척이 있었음을 《世宗實錄》 所載의 악보에서 볼 수 있는 바이다. 先人들은 宋元爾來 中土의 樂法一音의 高底만을 표기하는 律譜·工尺譜 그리고 박자부호를 첨가하는 불완전한 板眼譜法等의 襲用에 만족치 않고 上下宮譜와 井間譜法을 創制 사용하였던 것이니 이는 실로 동서의 음악문화사상 新紀元을 劃한 것이라고 칭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처럼 이만한 궁리와 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到底한 樂理 知識을 宮中 雅樂의 唱奏를 기록 보전하는 데 專用하였고 國民音樂의 영역에까지 보급 廣用이 없었기 때문에 遺業을 후세에 전하지 못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한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史乘에 간혹 민요의 채집과 정리 간행 등 사업이 있었던 형적을 窺採할 수는 있는 바이나 珍寶는 湮滅된 지 오랜지라 壬辰 이전의 古籍을 얻기에는 千金을 풀어서도 구득키 어려운 이때이다.

어찌 뜻하였으리요, 共匪의 戰禍를 겪은 오늘에 成化 弘治의 古刊本으로 推定되는 《時用鄕樂譜》 一書를 得할 줄이야! 실로 披雲看天의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 내용을 一瞥하건대 樂譜와 함께 수록된 歌詞 凡 二六首中 一六首는 종전에 그 題名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신발견의 古歌謠에 속하며 나머지 一〇首도 그 歌詞는 후세 續撰에 중출되는 바이나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國語 國文學 硏究에 역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뜻에서 前者와 다름이 없다. 더우기 수록된 歌詞와 樂譜는 모두 민족의 旋律을 中世의 古에 소급 探源할 수 있는 길을 밝히게 되었으니 책은 비록 單卷이나 斯學 발전에 기여는 측량이 어려운 것이었다.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에서는 客年에 美國 하버드大學 哈佛燕京學社로부터 연구비의 원조를 받고 國內 國學硏究家 諸位의 협력을 얻어 〈東方學志〉의 창간을 보았고, 또한 湮滅에 瀕한 古書의 覆印 廣布를 기획하여 《高麗史》 覆印의 役을 手民에 붙였으며, 이제 다시 이 《時用鄕樂譜》를 발행하여 古音의 逸存을 傳하게 되니 감개 자못 깊은 바 있다. 가혹한 戰亂을 치른 우리는 文化財의 수호자로서 不察不敏을 悔悟하는 남아에 微衷을 奉하려 하거니와 어찌 이로써 塞責 贖過할 바 되리요. 이 앞으로는 典寶의 보존과 傳授에 우리가 가지는 遺恨이 다시 없게 된다면 此篇의 刊함에 그 庶幾乎—ㄴ저.

集團安全保障 實施 第四年 夏五月十日 華城 白樂濬은 序한다.

時用鄕樂譜

納氏歌	平調	風入松	平調
儒林歌	平調	夜深詞	平調
橫殺門		城皇飯	界面調
思母曲	俗稱엇노리○界面調	內堂	界面調
西京別曲	平調	大王飯	ᄀᆞᄅᆞ와ᄃᆡ平調內堂ᄀᆞᄅᆞ와ᄃᆡ樂同
雙花曲	俗稱雙花店○平調	雜處容	平調
儭禮歌	平調	三城大王	平調
鄭石歌	平調界面調通用	軍馬大王	平調
靑山別曲	平調	大國一	平調
維鳩曲	俗稱비두로기○平調	大國二	平調
歸乎曲	俗稱가시리○平調	大國三	平調
笙歌寥亮	平調	九天	平調
相杵歌	平調	別大王	平調

3. 東大 琴譜

金 英 云 (江陵大 教授)

編者：未詳	紙質：楮紙
年代：1813年(純祖13年)	所藏：東國大學校 圖書館(780.913 신58ㄱ)
寫本一册(50張) 29.3×20.7cm	內容：거문고 악보

東國大學校 圖書館에는 3種의 古樂譜가 소장되어 있다.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발행한「古書目錄」에서 이 3종의 고악보를 발견한 필자가 1986년 4월 同 도서관을 찾아 관계직원의 후의로 열람해본 고악보들은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으며, 이들 가운데서「琴譜」는 앞부분에서「梁琴新譜」를 轉寫하고, 뒷부분은 靈山會山(＊필자주, 靈山會上)을 싣고 있으며, 모두 井間譜로 기보되었고, 每 長短마다 杖鼓樂譜가 併記되어 있었고, 年代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伽倻琴譜」는 보기 드물게 肉譜로 기보되었으며, 每 長短마다 杖鼓樂譜가 併記되어 伽倻琴 음악의 硏究에 귀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靑色 兩面罫紙에 墨書로 기록된 가야금 육보인「律譜」는 시기적으로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나, 前記한「伽倻琴譜」와 더불어 흔치 않은 가야금 육보로서 가야금 記譜法 및 口音의 연구와 靈山會上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國立國樂院에서 이를 발간하게 되어 학계에 널리 소개됨을 무척 다행한 일로 생각하며, 이들 고악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번 기회에 공개해준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3종의고악보를 간략히 해제코자 한다.

이 고악보의 表紙題名은 「琴譜」이고 거문고 악보이다. 동국대학교 도서관 발행의 「古書目錄」에는 編者를 申晟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琴譜」의 내용 가운데 어디에도 편저자를 申晟으로 밝힌 단서는 없다. 다만 卷頭의 '玄琴鄕部'라는 제목 아래에 桓桑이란 기록이 있어 혹시 편자의 雅號가 아닌지 추측될 뿐이다. 이밖에도 45面의 '七絃琴合絲法' 아래에 "碧巖 鄭周煥 字子玉"이라는 기록이 있고, 劉屛山과 그의 嗣子 玶葆, 劉玶葆의 門人 朱熹敬, 그리고 黃子厚등의 人名이 散見되나 모두 編者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 「琴譜」의 年代는 42·43面에 기록된 '書琴譜卷後'라는 題下의 後序 말미에 "崇禎百八十七年 癸酉 仲春上澣"이란 기록이 있어 그 年代가 朝鮮 純祖13年인 西紀1813年 陰2月임을 알 수 있다.

이 「琴譜」는 다른 琴譜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소장처를 밝혀 「東國大學校 所藏琴譜」라 부르기로 하며, 이를 줄여 「東大琴譜」 또는 「東琴」 등으로 쓰고자 한다.

「東大琴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바, 처음부터 41面까지는 「梁琴新譜」와 內容이 大同小異하며 52面 이후, 즉 靈山會山(*靈山會上)을 수록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琴譜에서 類似한 것을 발견키 어려운 내용이다. 따라서 편의상 前半部와 後半部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前半部 : 「梁琴新譜」의 轉寫 部分〉

'玄琴鄕部'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은 모두 2面에 걸쳐 기록된 全18行의 내용으로 앞의 3行은 「梁新(*梁琴新譜)」 琴雅部의 앞3行과 같다. 다만 제2行끝에 "於當作其"란 註가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제4행부터는 「梁新」제7面註1) 제3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의 調絃法을 轉寫하였다. 그리고 合字法은 「梁新」 제8면 제6행부터 끝행까지를 轉寫하였다. 이어서 「梁新」 제42면 平調界面調 中大葉의 餘音이후 餘白에 적혀있는 "數大葉與民樂步虛子靈山會上等曲用於舞蹈之節非學琴之先務姑闕之"란 기록이 ★표된 '上'字가 '山'으로 바뀌어 옮겨져 있다.

「東大琴譜」 前半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慢大葉(樂時調) : 「梁新」의 註에서 '聲出' 2字가 누락 전사됨.

○北殿

○中大葉(俗稱心方曲) : 부분적으로 「梁新」과 다른 곳이 있으며, 「東琴」 21~22면은 轉寫時에 중복되어 전사된 것이다.

○中大葉(羽調)

○中大葉(羽調界面調) : 2旨2刻~5旨2刻까지 全8刻이 누락됨

(*中大葉 平調界面調는 「東琴」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東琴」이 완성된 이후에 散失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感君恩(平調四篇)

○調音(俗稱다스림)

○書琴譜卷後(*以下는 「梁新」에 없는 부분임)

○五行相生歌

○五音相生圖 및 禮記 引用文

○七絃琴合絲法

○律呂隔八相生圖 및 說明文

○律呂相生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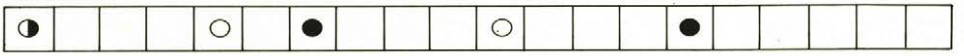
註1) 「梁新」의 面數는 通文館 發行의 「梁琴新譜」 (서울 : 通文館, 1959)에 의함.

○劉屛山復齋蒙齋二琴銘(朱熹敬作)
○黃子厚琴銘
○紫陽琴銘
〈後半部：靈山會山幷錄〉

「東大琴譜」의 후반부는 靈山會山幷錄이라 하여, 慢會山(＊上靈山)에서부터 羽調打鈴(或云 軍樂)에 이르는 현행 靈山會上과 數會山(속칭 잔도드리) 및 慢會山(속칭 하청도더리, ＊尾還入)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악보는 井間譜에 기보되어 있으며, 1行을 3小行으로 나누어 제1소행에는 장구장단을 ◑·○·● 등의 부호로 표기하였으며, 제2소행에는 거문고 합자보가 기보되었고, 제3소행에는 거문고 육보가 한글로 표기되었다. 1행의 井間數는 악곡에 따라 서로 다른바, 各曲의 장단을 정간과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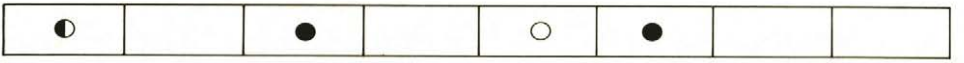
• 慢靈山·中靈山·數靈山一章



• 數靈山二章～五章·가락드리(＊가락더리)

• 가락드리(후반7장단)·三絃會山(삼현도드리)·數會山(속칭 잔도드리)·下弦會山(하현도드리)·念佛會山(속칭 염불도드리)·慢會山(속칭 하청도드리 ＊尾還入)

• 平調打鈴(＊打令)·羽調打鈴(軍樂)



위의 장단은 대부분 현행 국립국악원 악보의 장단과 井間數가 같으나, 타령 장단은 서로 다르다. 이 점을 현행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東琴」
8#1장단

〈현행〉
12#1장단

「東大琴譜」의 靈山會山幷錄에 수록된 곡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慢靈山(＊上靈山) 全5장19장단
1장：3장단　2장：4장단　3장：4장단　4장：6장단　5장：2장단
○中靈山：全5장14장단
1장：2장단　2장：4장단　3장：3장단　4장：3장단　5장：2장단

○數靈山(＊細靈山) 全5장18장단
1장 : 2장단　2장 : 4장단　3장 : 4장단　4장 : 6장단　5장 : 2장단
○가락드리(＊가락더리) 全2장17장단
1장 : 9장단　2장 : 8장단
○三絃會山(＊삼현도드리) 全3장26장단
1장 : 12장단　2장 : 6장단　3장 : 8장단
○數會山(속칭 잔도드리) 全6장72장단
1장 : 10장단　2장 : 6장단　3장 : 12장단　4장 : 11장단　5장 : 6장단
6장 : 27장단　돌장 : 13장단
＊서두에 7장이라 하였으나 실제는 6장까지와 돌장아 실려 있다.
○下弦會山(하현도드리) 全26장단
＊章別 구분이 없음
○念佛會山(속칭 염불도드리) 全3장51장단
1장 : 9장단　2장 : 15장단　3장 : 27장단
○平調打鈴(＊打令) 全5장32장단
1장 : 6장단　2장 : 6장단　3장 : 8장단　4장 : 6장단　5장 : 6장단
○羽調打鈴(或云 軍樂) 全5장48장단
1장 : 9장단　2장 : 9장단　3장 : 10장단　4장 : 10장단　5장 : 10장단
○慢會山(속칭 하청도드리) 全7장72장단
1장 : 10장단　2장 : 6장단　3장 : 12장단　4장 : 11장단　5장 : 6장단
6장 : 12장단　7장 : 15장단
○作琴法(＊거문고 제작방법)
作琴法이란 題下에 그 제작법이 설명된 악기는 琴(七絃琴)이 아니라 거문고이다. 이 점은 내용중의 龍頭·鳳尾·16개의 棵 등으로 알 수 있다.
○作良琴法(＊洋琴제작법)
洋琴의 絃에 관한 언급은 없고, 桶의 제작에 관한 설명만 있다. 그러나 보기의 그림에 칫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라비아숫자가 적혀 있는 점이 특이하다.
○笛竹新造法(＊大笒제작법)
笛竹이라고 표현된 악기는 그 내용에 吹穴·封臗穴(＊清孔)·6개의 指孔·下空穴(＊七星孔)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大笒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奚琴桶(＊奚琴桶 제작법)

이상의 내용 중에서 笛竹新造法과 奚琴桶에 관한 것은 筆体가 달라서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東大琴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靈山會山幷錄이란 후반부가「梁琴新譜」를 轉寫한 전반부와 同時代에 쓰여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琴譜」의 연대를 밝혀주는 '崇禎187年'이라는 기록이 전반부의 끝에 적혀 있으며, 그 이후는 年代와 관련된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다. 또한 大綱譜인 전반부에 비하여 후반부는 井間譜로 되어 있고, 合字表記에 있어서 몇가지가 다르다. 즉 위와 같다는 뜻의 '上同'이 후반부에서는 '上仝'으로 표기되며, 食指를 나타내는 'ㅣ'표가 후반부에서는 '人'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두 부분의 성립연대를 다르게 보기에는 筆体에 있어서 유사점이 너무 많다. 또한 지금까지 연대가 분명히 밝혀진 고악보로서 靈山會上을 싣고

있는것 가운데 「東琴」과 時期的으로 가까운 것을 살펴보면, 「東琴」보다 앞선 것으로는 「遊藝志(正祖代)」·「歐羅鐵絲琴字譜(遊藝志와 內容이 같음)」·「漁隱譜(1779)」 등이 있으며, 「東琴」보다 후기의 것으로는「栽琴古譜(1884)」·「響徹律譜(1884)」·「七絃琴譜(1885)」·「玄琴五音統論(1886)」 등이 있다. 이들 악보에 수록된 靈山會上을 「東大琴譜」와 비교하면 「東大琴譜」의 후반부에 수록된 靈山會山幷錄의 내용이 「漁隱譜」와 「栽琴古譜」의 중간에 속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東琴」의 후반부도 그 전반부와 같은 연대인 1813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로서 「東國大學校 所藏 琴譜」의 史料的 가치는 「梁琴新譜」를 轉寫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의 靈山會山幷錄에 있다고 하겠으며, 1813년 무렵의 靈山會上을 音高·時價·長短면에서 매우 소상히 전해주는 「東大琴譜」는 19세기 초반의 영산회상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악보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4. 東大 伽倻琴譜

金 英 云 (江陵大 教授)

編者·年代 : 未詳(19C초로 추정됨)　　所藏 : 東國大學校 圖書館(D780.913—가62)
寫本一冊(20張) 28.7×18.7cm　　內容 : 가야금악보(靈山會山幷錄)
紙質 : 楮紙

이 악보의 표지제명은 「伽倻琴譜」이며, 우측에 '靈山會山幷錄'이란 기록이 있다. 그리고 내용의 첫 부분인 2面의 慢靈山(＊筆者註, 上靈山)의 註에 '掌樂院舞蹈之節用此調俗云風流'라 하였다.

현행 上靈山에 해당하는 慢靈山에서부터 數會山(＊細還入)을 포함하여 羽調打領(＊軍樂)에 이르는 靈山會上 한바탕을 한글式 가야금육보로 기록하고 있는 이 「伽倻琴譜」를 다른 고악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장처를 밝혀 「東國大學校 所藏 伽倻琴譜」로 부르고자 하며, 「東大 伽倻琴譜」 또는 「東伽」 등으로 略稱코자 한다.

「東大 伽倻琴譜」는 井間이나 大綱과 같은 時價表記 手段은 갖고 있지 않으나 每 長短마다 杖鼓의 奏法을 ◑·○·● 등의 부호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단을 기준으로 肉譜의 각 口音을 배치하여, 그 간격에 의하여 時價 解釋이 가능하도록 기보되었다.

「東大 伽倻琴譜」에서 사용하고 있는 音高記譜法은 한글式 肉譜인바, '伽倻琴絃名' 條에 설명된 구음은 다음과 같다.

絃의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絃名(口音)	쑹	칭	찡	지	띵	징	동	당	둥	흥	셜	괘
力按時의 口音							소		등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제1현을 '至淸'이라 하고 제12현을 '至濁'이라 하여 가장 높은 음을 제1현으로, 가장 낮은 음을 제12현으로 표기한 점이 現行과 다르다는 점이다. 위의 구음을 현행의 正樂伽倻琴 調絃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참고로 洋琴의 구음도 함께 비교하였다).

	絃의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행	평 조	율명	黃	汰	仲	林	黃	汰	仲	林	南	黃	太	仲
		구음	흥	동	덩	둥	당	동	징	징	지	당	동	덩
	계면조	율명	黃	汰	仲	林	黃	黃	仲	林	無	黃	太	仲
		구음	흥	동	덩	둥	당	당	징	징	지	당	동	덩
「東伽」의 구음 ( )안은 力按時			괘	셜	흥	둥(등)	당	동(또)	징	ᄭ당	지	ᄭ징	칭	ᄭ쭝
洋琴구음		한글	청	청	흥	둥	당	동	징	당	동(지)	징	칭	쭝
		한자	淸	聽	興	농	唐	東	澄	堂	同(至)	徵	稱	鍾

이로써 「東大 伽倻琴譜」의 구음은 현행 정악 가야금의 구음과는 다르고 오히려 洋琴의 구음과 類似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散調가야금의 구음과도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니 각 구음이 나타내는 음높이는 서로 다르나, 구음의 순서에서 아래와 같이 일치하고 있다.

「東伽」	絃의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 음	괘	셜	흥	둥	당	동	징	ᄭ당	지	ᄭ징	칭	ᄭ쭝	
現 行	구 음		청	흥	둥	당	동	징	땅	지	찡	칭	쭝	찡
散 調	絃의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가야금의 고악보 가운데서 가야금만을 위한 고악보는 「拙压漫錄」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芳山韓氏琴譜」와 「俗樂源譜 信篇」·「樂章要覽」 등에 가야금악보가 다른 악기의 악보와 함께 전하고 있다. 이들 가야금악보 외에도 「琴隱琴譜」·「靈山會相 寓意山水」등이 가야금악보일 것이라는 점이 필자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다.[註1] 이 가야금 고악보들의 내용과 기보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樂譜名 ＼ 區分	내 용	기 보 법
拙 压 漫 錄	삭 대 엽	합자보. 육보
芳 山 韓 氏 琴 譜	영 산 회 상	육보. 정간보
琴 隱 琴 譜	영 산 회 상	육보
靈山會相寓意山水	영 산 회 상	율자보 · 정간보
俗 樂 源 譜 信 篇	종묘제례악	율자보 · 정간보
樂 章 要 覽	종묘제례악	율자보

註1) 金英云, "한국의 고악보 현황", 「문화예술」(서울, 문예진흥원, 1987), 통권110호, pp.92-120

이 가운데서 肉譜를 사용하는 가야금 고악보는 모두 3종이나 「拙庵漫錄」에는 肉譜가 비록 合字譜와 併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교가 곤란하여 생략키로 하고, 「芳山韓氏琴譜」·「琴隱琴譜」의 구음을 「東大 伽倻琴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樂譜名 \ 絃의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東大伽倻琴譜	괘	셜	홍	둥	당	동	징	ᄭ당	지	ᄭ징	칭	ᄭᆞᆼ
琴 隱 琴 譜	긔	살	홍	등	당	동	징	ᄭ당	지	ᄭ징	칭	ᄭᆞᆼ
芳山韓氏琴譜	·	·	興	등	唐	同	澄	倘	至	徵	稱	從

「東大 伽倻琴譜」와 「琴隱琴譜」에서 제1현을 '괘·긔' 제2현을 '셜·살'로 구음하는 것은 '슬기둥' 奏法과 관련되어 붙여진 구음으로 여겨지며, 「東伽」에서는 실제 기보된 음악에서 '셜괘둥' 등의 용례가 자주 발견된다. 또한 絃名條에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東伽」의 기보된 음악중에는 '징·ᄭ괘·ᄭ당·ᄭᆞᆼ·두·도·조·충·ᄭᆞᆼ·즤·ᄭ칭·잉'등의 구음이 사용되기도 하는바, 이들 구음으로 표기된 실제 음높이와 주법은 실제 악곡을 분석하고, 다른 고악보 및 현행 음악과의 비교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東伽」에서는 가야금의 조현에 있어서도 洞簫와 관련되어 정확한 음높이를 제시하고 있다. 즉, '調絃法'條에 의하면 '先以洞簫吹당穴以당絃音同餘皆倣此洞簫당穴即前行第一穴(一上也)'라 하였다. 여기서 洞簫는 短簫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穴'은 黃鍾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配音清당相合, 셜동相合, 홍징相合, 둥ᄭᆞᆼ相合, 당ᄭᆞᆼ相合, 동칭相合, 징ᄭᆞᆼ相合, 惟지絃則彈ᄭᆞᆼ징지징之曲定則可知耳'라 하였으니, 여기서 '相合'이란 옥타브 관계를 가리키고, 오직 '지'絃만 '相合'의 관계가 없이 조현됨을 알 수 있다.

「東伽」에 수록된 악곡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慢靈山(＊上靈山) 全5장17장단
　1장 : 3장단　2장 : 4장단　3장 : 4장단　4장 : 3장단　5장 : 3장단
○中靈山 全7장18장단(助音2장 4장단 포함)
　1장 : 2장단　2장 : 2장단　3장 : 4장단　4장 : 3장단　5장 : 3장단
　助音1장 : 2장단　助音2장 : 2장단
○数靈山(＊細靈山) 全5장16장단
　1장 : 4장단　2장 : 3장단　3장 : 3장단　4장 : 4장단　5장 : 2장단
○가락도드리(＊가락더리) 全3장 17장단
　1장 : 4장단　2장 : 3장단　3장 : 10장단
○三絃會山(＊삼현도드리) 全3장26장단
　1장 : 11장단　2장 : 4장단　3장 : 11장단
○數會山(＊細還入) 全7장76장단
　1장 : 10장단　2장 : 9장단　3장 : 9장단　4장 : 17장단　5장 : 12장단
　6장 : 7장단　7장 : 12장단
○下絃會山(＊하현도드리) 全3장35장단
　1장 : 9장단　2장 : 14장단　3장 : 12장단
○念佛會山(＊염불도드리) 全5장51장단

1장 : 9장단　2장 : 11장단　3장 : 16장단　4장 : 6장단　5장 : 7장단

○打鈴(平調)　全5장32장단

1장 : 6장단　2장 : 6장단　3장 : 8장단　4장 : 6장단　5장 : 6장단

○羽調打鈴(＊軍樂)　全5장47장단

1장 : 9장단　2장 : 9장단　3장 : 9장단　4장 : 10장단　5장 : 10장단

○國居里 全3장變成5장(장단 표기가 없고, 다만 傍點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불분명하다.)

○解彈(至 下絃 3장으로 相換也).

○風流治音(＊다스름)

○興打鈴(二章問答)

가야금육보로 기보된 이 곡에는 장단 표기는 없으나, 구음의 좌측에 아래와 같은 노랫말이 적혀있다.

"텬안산거리 수양버들은
머세게와 휘느러저구나
아이고 디고 흥으흥으
성화가 낫네 흥으"

이는 현행 경기민요 흥타령(천안삼거리)과 사설이 같다.

○伽倻琴絃名 : 줄의 순서에 따른 구음이 설명되었다.

○調絃法 : 洞簫에 맞추어 줄 고르는 법이 설명되었다.

「東大 伽倻琴譜」는 「東大琴譜」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① 靈山會山幷錄이란 題名 아래에 '掌樂院舞蹈之節…'의 註가 있다.

② 慢靈山·數靈山·三絃會山·數會山·下絃會山·念佛會山·羽調打鈴등 다른 고악보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曲名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장구 주법을 표기한 부호가 같으며, 비록 「東伽」에는 井間이 없으나 장단치는 법이 같다.

④ 두 악보의 筆体가 같다.

⑤ 같은 도서관에 의하여 수집·보관되고 있다.

이상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東琴」과 「東伽」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는데, 우선 時期的으로 두 악보를 同時代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編者를 同一人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東伽」의 年代도 「東琴(1813年)」과 같은 19세기 초반으로 추정되어, 이 무렵의 가야금 음악과 영산회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東大 律譜

金 英 云 (江陵大 教授)

編者 : 未詳	紙質 : 和紙
年代 : 1921年(大正10年) 陰7月	所藏 : 東國大學校 圖書館 (780.913—율45)
寫本一册(34張) 21.7×19.5cm	內容 : 가야금악보(영산회상)

동국대학교 도서관에는 「東大琴譜」·「東大 伽倻琴譜」와 함께 表紙題名이 「律譜」로만 표기된 고악보가 소장되어 있다. 表紙의 중앙에 '大正拾年陰七月 日'이란 기록에 의하여 그 年代가 1921년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이 고악보를 다른 고악보와 쉽게 구별하기 위하여 그 소장처를 밝혀 「東國大學校 所藏 律譜」라 부르기로 하고, 이를 「東大律譜」 또는 「東律」 등으로 略稱코자 한다.

한글로 표기된 絃樂器의 口音으로 記譜된 이 악보가 어떤 악기를 위한 것인지의 구체적인 표시는 없다. 그러나 '뜰·쌀갱·싸랭' 등의 구음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 거문고의 악보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설과등'의 구음이 자주 발견되고 있어 洋琴의 악보로 볼 수도 없다. 필자는 이를 가야금의 악보로 보고자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東律」에 사용된 구음을 다른 가야금육보와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東大 伽倻琴譜」의 해제에서 언급되었듯이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가야금의 고악보 가운데서 肉譜로 기보된 것은 「琴隱琴譜」·「東大 伽倻琴譜」·「芳山韓氏琴譜」의 3종이다. 이들 3종의 가야금육보 중에서 絃名(줄의 순서)과 口音이 분명히 밝혀진 것은 「東伽」와 「芳山」 뿐이나, 「琴隱」은 앞의 두가지 악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絃名에 따른 口音을 알 수 있었다. 「東大律譜」의 경우도 絃名에 따른 口音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나, 앞의 악보와의 對照를 통하여 絃名과 口音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다음과 같다.

樂譜名 \ 絃의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東大 伽倻琴譜	괘	셜	흥	등	당	동	징	ᄉ당	지	ᄉ징	칭	ᄉ궁
琴 隱 琴 譜	귀	살	흥	등	당	동	징	ᄉ당	지	ᄉ징	칭	ᄉ궁
芳山韓氏琴譜	·	·	興	斗	唐	同	澄	倘	至	徵	稱	從
東 大 律 譜	과	설	흥	등	당	동	징	ᄉ당	지	ᄉ징	칭	ᄉ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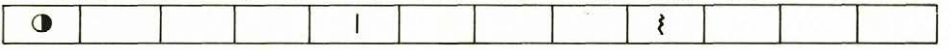
「東律」에서는 위의 口音 외에도 軍樂에서 '등'과 '쳥'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모두 '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9현의 '지'는 잔도드리와 군악에서 倘을 가리키고, 다른 곡에서는 倏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령산(*上靈山)에서 현행 軍樂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권마성일장에 이르는 靈山會上 한 바탕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東大律譜」는 井間譜를 사용하여 각 음의 時價를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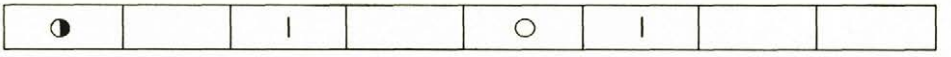
체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악보의 每面 첫行에 장구장단을 표기하였다.「東律」의 장단은 ◑·|·○·≀의 네가지 부호로 표기되는바 악곡에 따른 장단은 아래와 같다.

• 본령산·중령산·잔령산(＊細靈山)·졸님(＊가락더리)

• 상현(＊삼현도드리)·잔도드리·히탄(＊하현도드리)·념불(＊염불도드리)



• 타령·군악·권마성(＊군악 후반부)



「東大律譜」에 수록된 악곡은 다음과 같다.

○본령산 全5장17장단
1장 : 3장단　2장 : 4장단　3장 : 4장단　4장 : 3장단　5장 : 3장단

○중령산 全5장18장단
1장 : 4장단　2장 : 4장단　3장 : 3장단　4장 : 3장단　5장 : 4장단

○잔령산 全 5장18장단
1장 : 4장단　2장 : 3장단　3장 : 3장단　4장 : 4장단　5장 : 4장단
＊잔령산 5장은 현행 가락더리 1장에 해당함.

○졸님(＊가락더리 2·3장에 해당) 全 2장6장단 및 회두(돌장) 1장단
1장 : 3장단　2장 : 3장단　회두 : 1장단

○상현(＊삼현도드리) 全 3장34장단
1장 : 8장단　2장 : 11장단　3장 : 15장단

○잔도드리 全 7장71장단
1장 : 10장단　2장 : 9장단　3장 : 9장단　4장 : 16장단　5장 : 13장단
6장 : 6장단　7장 : 8장단

○히탄(＊하현도드리) 全 3장40장단
1장 : 14장단　2장 : 14장단　3장 : 12장단
＊히탄 2장은 현행 하현도드리 1·2장에 해당하고, 히탄 3장은 현행 하현도드리 3·4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히탄 1장은 현행 영산회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념불(＊염불도드리) 全 3장38장단
1장 : 22장단　2장 : 8장단　3장 : 8장단
＊념불은 현행 염불도드리 1·2장에 해당

○하현(＊하현도드리) 全 13장단
1장 : 13장단
＊하현은 현행 염불도드리 3·4장에 해당

○타령 全 3장32장단
1장 : 8장단　2장 : 13장단　3장 : 11장단
＊타령 3장은 현행 타령 3·4장에 해당

○군악 全 3장29장단

1장 : 10장단　　2장 : 9장단　　3장 : 10장단

＊군악 3장은 현행 군악 3장의 제10장단까지에 해당함.

○권마성 全 19장단

1장 : 1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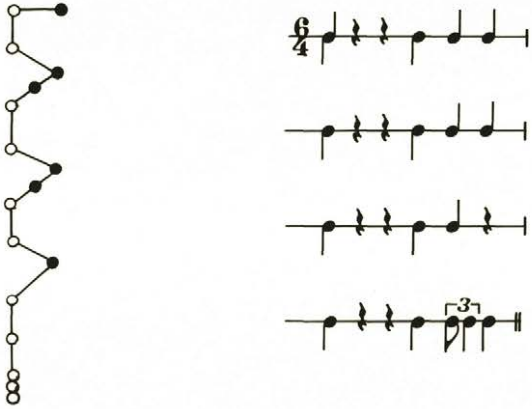
＊권마성은 현행 군악 3장의 제11장단부터 4장 끝까지에 해당.

「東大律譜」에 수록된 영산회상은 권마성 제19장단 즉, 현행 군악 끝에서 마치고, 24a에는 8井2行에 걸쳐서 '시조념(時調餘音？)' 가락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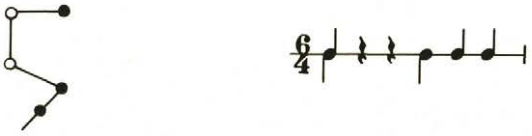
이 악보의 뒤에는 '장단약도'가 실려 있는바, 진양죠·중모리·타령(단모리) 등의 장단과 시조의 장단이 梅花點長短式의 表記法으로 적혀 있다. 여기서는 ○表가 북편을, ●表가 채편을 가리키는바, 이는「東律」의 내용 가운데서 장단의 표기에 합장단을 ◑, 채편을 |, 북편을 ○로 표기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장단약도〉에 실린 각 장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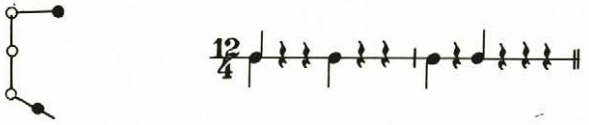
○ '진양죠'는 24박 한장단이 모두 적혀 있는바, 이를 서양식의 리듬 악보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장단은 6박 단위가 네개(4각, ＊「東律」에서는 '절'이란 용어를 사용함)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단위(각 또는 절)는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다소 변주되면서 짜여지고 있으며, 이를 '밀고·달고·맺고·푼다'로 설명되는 진양조 장단의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양조장단의 구조는 초학자에게 쉽게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학자속성'이라 하여 6박으로 이루어지는 '진양조 일절'만을 따로 소개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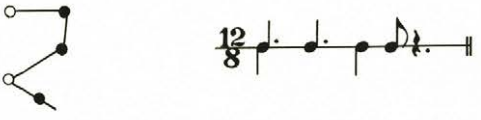


○'중모리'는 12박을 단위로 삼는 한장단이 표기되었다.



중모리장단의 註에는 '늣기치면 느진중모리 조금 쥴나치면 중중모리 자죠치면 자진중모리니 히석ᄒᆞ야 칠지어다' 라고하여 느진중모리·중모리·중중모리·자진중모리의 장단 구조가 동일하고, 다만 한배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타령·단모리



여기서는 正樂의 타령장단과 민속악의 단모리장단이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시조장단

시조의 장단은 초장·중장과 말장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으며 '염(*餘音)장단'이 따로 적혀 있다. '시조염장단'의 註에 '시죠 초장 부루고 염치고 중장 부루고 염치고 말장 부루고 염치고 다른 시죠 부를지어다'라고 하여 각 장의 끝에 염(여음)이 붙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염장단을 포함하는 각 장별 장단 點數와 拍數는 현행 京制 平時調와 다르다. 특히 초장과 중장은 현행 경제 평시조에서 5·8·8·5·8의 박자수를 갖는데 비하여 「東律」의 시조 초장장단은 5·8·8·8과 염8로 되어 있다. 따라서 「東律」의 시조장단에 관하여는 다른 악보와의 비교 연구와 京制 및 鄕制 時調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자세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東大律譜」는 드물게 발견되는 가야금육보로서 한글식 가야금육보와 정간보를 사용하여 20세기 초의 영산회상 한바탕을 수록하고 있으며, 현행의 가야금 선율과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 시기의 가야금음악의 연구와 영산회상의 변천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악보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目　　次

翰林別曲 …… 37
感君恩 …… 39
平調北殿 …… 41
羽調北殿 …… 42
與民樂 …… 43
步虛子 …… 57
思母曲 界面調 …… 60
唐琵琶圖 …… 63
散形
平調
界面調 …… 64
彈琴手法移用琵琶法
琵琶譜 …… 65
合子解
用左手指法
用右手指法
彈法
左手按柱法
肉譜 …… 66
調絃
慢大葉

2. 時用鄕樂譜
納氏歌(平調) …… 71
儒林歌(平調)
橫殺門 …… 73
思母曲(俗稱엇노리○界面調) … 75
西京別曲(平調) …… 77
雙花曲(俗稱雙花店○平調)

1. 琴合字譜
琴譜序 …… 25
琴圖
散形
平調 …… 26
羽調
平調界面調
羽調界面調
清風體 …… 27
嚆子調
琴圖
平調各宮分上下圖
平調常用卦次圖
執匙圖 …… 28
拍譜
杖鼓譜
鼓譜
笛譜
琴譜合字解 …… 30
琴平調大絃卦次
琴變卦兼用法 …… 31
宮商角徵羽出聲圖
調絃 …… 32
平調
界面調平調
羽調
平調慢大葉 …… 34
慢大葉 …… 35
鄭石歌 …… 36

五音相生圖
律呂隔八相生圖 …… 126
律呂相生歌
劉屛山復齋蒙齋二琴銘 …… 127
黃子厚琴銘
紫陽琴銘
靈山會山拜錄
慢靈山(上靈山)
中靈山 …… 128
數靈山(細靈山)… …… 129
가락드리(가락더리) …… 130
三絃會山(삼현도드리)
數會山(속칭 잔도드리)…… 131
下弦會山(하현도드리)…… 133
念佛會山(속칭 염불도드리)… 134
平調打鈴(打令) …… 135
羽調打鈴(或云軍樂)…… 136
慢會山(속칭 하청도드리)…… 138
作琴法 …… 140
作良琴法
笛竹新造法
奚琴桶

4. 東大伽倻琴譜

靈山會山幷錄 …… 143
慢靈山(上靈山)
中靈山
數靈山(細靈山)…… 144
가락도드리(가락더리)… …… 145
三絃會山(삼현도드리)
數會山(細還入) …… 146
下絃會山(하현도드리)…… 147
儺禮歌(平調) …… 80
鄭石歌(平調界面調通用) …… 81
靑山別曲(平調) …… 82
維鳩曲(俗稱비두로기○平調)
歸乎曲(俗稱가시리○平調) …… 83
笙歌寥亮(平調) …… 84
相杵歌(平調) …… 86
風入松(平調) …… 87
夜深詞(平調) …… 92
城皇飯(界面調)
內堂(界面調)…… 97
大王飯(ᄀᆞᄅᆞ와ᄃᆡ平調內堂
ᄀᆞᄅᆞ와ᄃᆡ樂同)…… 100
雜處容(平調) …… 101
三城大王(平調) …… 104
軍馬大王(平調) …… 105
大國一(平調) …… 106
大國二(平調) …… 107
大國三(平調) …… 108
九天(平調)… …… 109
別大王(平調) …… 111

3. 東大琴譜

慢大葉(樂時調)… …… 115
北殿 …… 117
中大葉(俗稱 心方曲)…… 118
中大葉(羽調)…… 121
中大葉(羽調界面調) …… 122
感君恩(平調四篇)
調音(俗稱다스림) …… 124
書琴譜卷後 …… 125
五行相生歌

念佛會山(염불도드리)……148
打鈴(平調) ……149
羽調打鈴(軍樂) ……150
國居里 ……151
解彈
風流治音
興打鈴 ……152
伽倻琴絃名
調絃法

5. 東大律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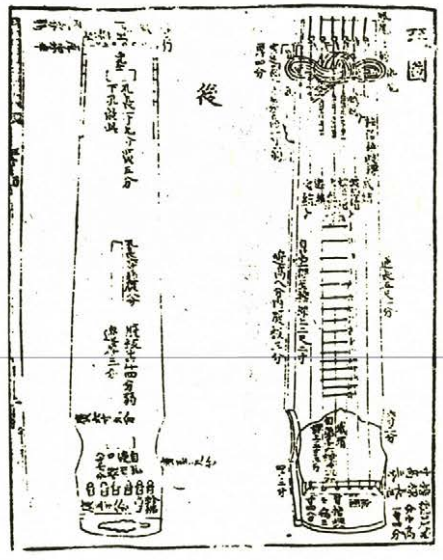
본령산 ……155
중령산
잔령산 ……156
졸님
상현(삼현도드리) ……157
잔도드리 ……158
히탄(하현도드리) ……160
념불(염불도드리) ……161
하현(하현도드리) ……162
타령 ……163
군악 ……164
권마성 ……165
시조염
장단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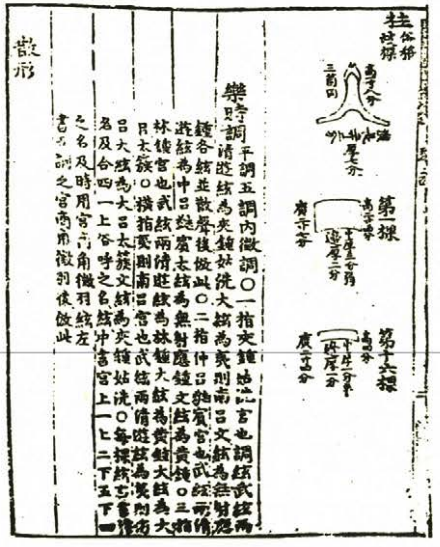
琴合字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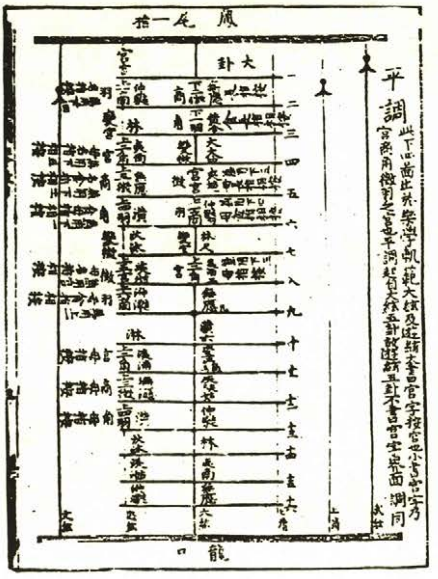
琴譜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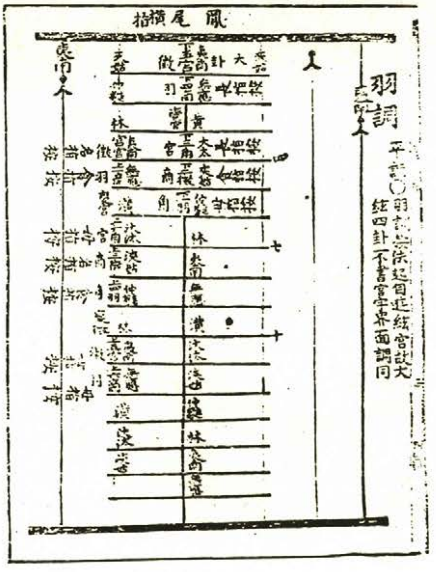
余於嘉靖辛酉爲掌樂金正觀其試工譜册棄古之合字譜而只有上下卦次無用指用匙之法在初學不可曉也於是使樂師洪善終取當時加指曲若干調改修合字譜又使許億鳳爲笛譜李無金爲鋌鼓之譜而並錄其歌詞肉譜盖善終譜遠譜法而許序二工以笛鋌鳴於世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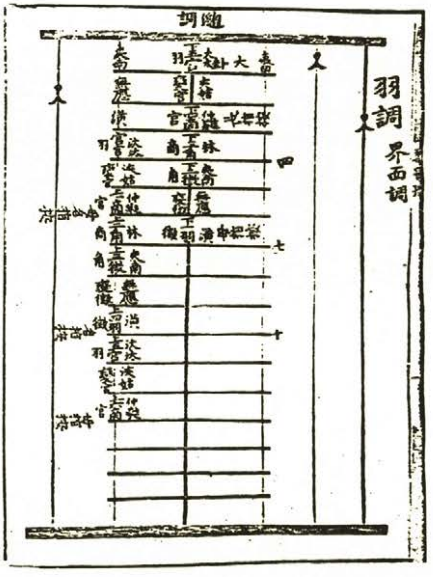
一點一畫音律俱備而優柔和淡發皆中節方之古譜亦未多讓知此譜則雖使鼓絃鏗鏘歌管迭作而聞之不亂其於辨別棄倫明若觀火矣然雖有此譜而未知合字之規則亦若面墻茲著合字注解以附卷上僻在遐方有志學琴而未得師友者得此而觀之則有如明師在傍指示一二無有難處矣隆慶壬申竹溪安瑞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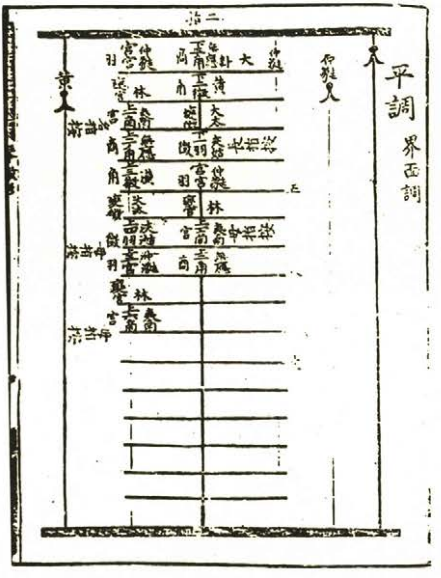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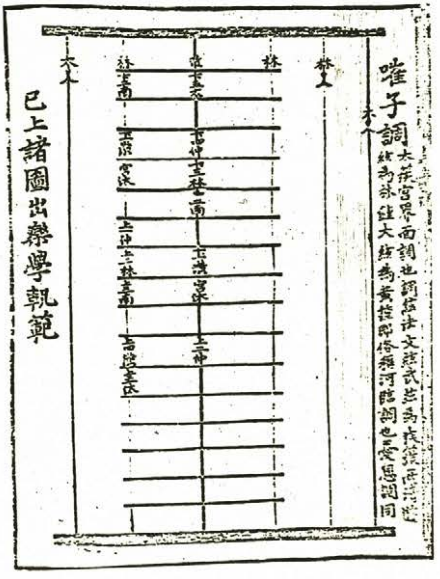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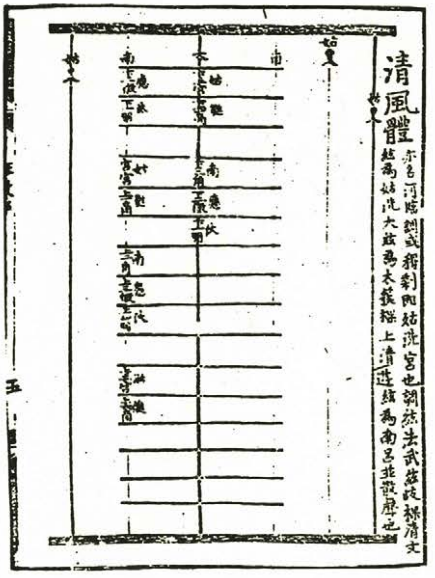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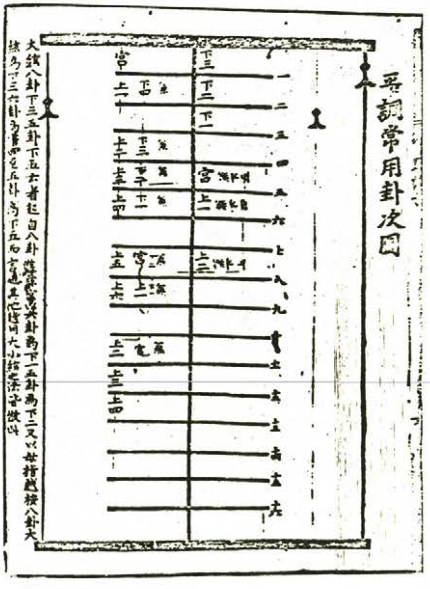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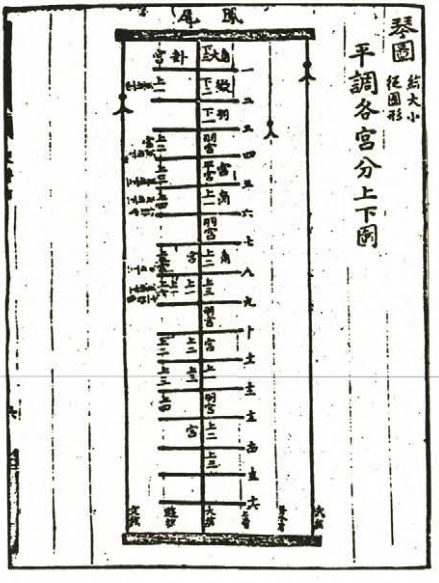





已上諸圖出樂學軌範
嗟子調


清風體


吾調常用卦次圖


琴圖
平調各宮分上下圖

執匙圖 右手

細竹大如鍮箸末端長亦如鍮箸之長者存末節節頭鍊而無稜挾于食指長指間使食指曲而執之以母指按竹而堅執無稜節頭弄絃

長指常按以助母指勢圖 卦次考本文遊絃同

母指按大絃時長指力按當卦推弄以助母指之勢或有獨按推弄之時按他卦倣此○無名指常付遊絃小指常付文絃者使兩絃碍而不得出聲以亂所按之絃聲也若用文絃則舉小指取聲

母指力引長指力推圖 文以每趣三卦之法按而推引

此乃他應聲之法兩三卦之聲俱出於一按中若於暫為推引時用按指弄捷則上卦之聲與按卦之聲況若並出於母指頭長指力推名指之於遊絃同他卦倣此 譜法用上三合字於如此字之顏他倣此

母名兩指共按遊絃推用圖 食指長指并拘於大絃上

母名兩指共按遊絃力推衆至大絃而無名指甚力推推弄以助母指之勢或有獨按推弄之時他倣此

食指按卦如曲尺圖

食指按大絃長指例按次卦按遊絃無名指亦按次卦 食指凡按用絃常近卦底則其聲甚精

拍譜

初擊一度以起樂每樂節亦擊之數擊三度以止樂凡樂之舒疾作止并從拍聲

杖鼓譜

左邊有圓者謂之平吾以左手擊官聲也

左邊有圓右邊有鞭者謂之乍子吾手鞭並擊之聲也手法先鞭後手

右邊有互曲畫者謂之乍乍乍以鞭輕擊而仍附之使出三聲也

右邊有鞭者謂之乍右手執鞭單擊之聲也

鼓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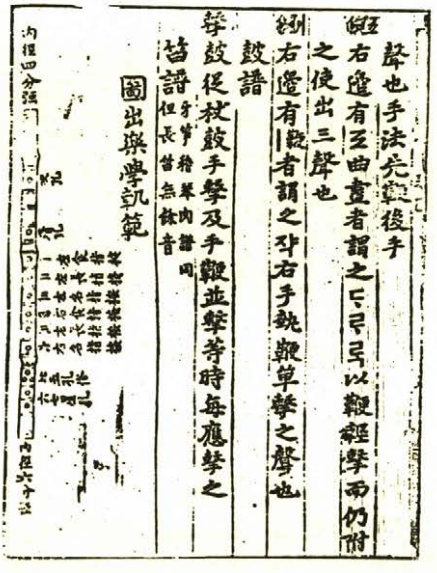
擊鼓從杖鼓手擊及手鞭並擊等時每應擊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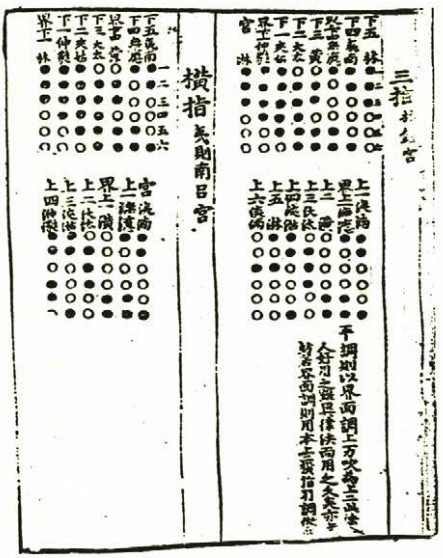
笛譜 牙箏稽琴內譜同但長笛無餘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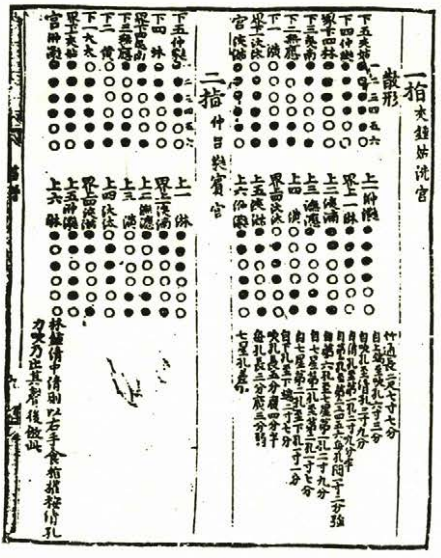
圖出樂學軌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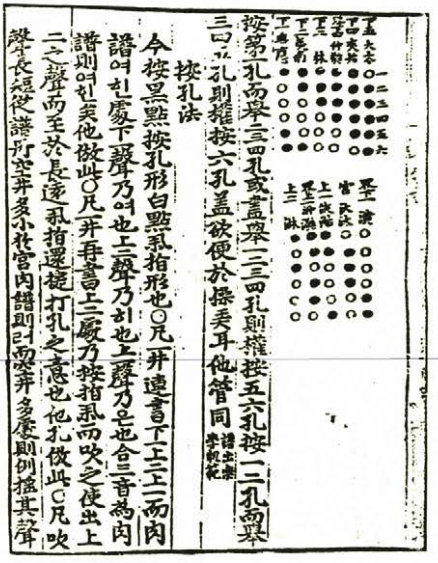
內徑四分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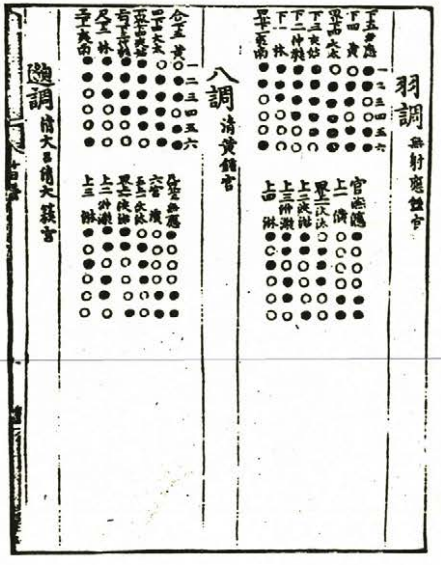
內徑六分強




三指
横指


一指
二指


按孔法


八調

琴譜合字解

右邊上書絃名下書卦次左邊書用指法左右外面書用匙法合四法爲丁字故謂之合字

大字大絃也

方字遊絃也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卦次也 已上右邊

㐅ㄱ者母字用母指也

㐅人者食字用食指也

㐅夕者名字用無名指也

㐅丨者長字用長指也 已上左邊

此皆用指法取其字之半者爲其合字之簡易也

㐅丶右點者信以匙急舉絃

㐅左點者㐅以匙急打絃

㐅丨者ㄥ랭自文絃順畫至大絃而言也指到八卦已上則高其聲曰仁랭

㐅乚者个ㄱ랭自文絃畫至武絃小停而力畫之也

㐅丁者ㄷㄱ랭自武絃迸畫至大絃也

㐅丨者重按而徐舉指使絃聲有餘韻也

㐅丶者重按再三所謂弄也

㐅搖字按卦而搖吏之搖其聲也

清上清去者以匙動卦上清也舉手向他卦時恐其韻之絕也

文文字有點者打內文絃之謂也肉譜則興

宮㐅如是者指到宮而即畫之謂也[illegible]之亦宜

凡宮乚如是者暫舉手而虛爲順畫之也

凡合字有二點者按一卦用匙二度也

凡一井雙書兩卦而合字只一字處皆推引之法

凡一井雙書兩卦合字只一字而下有點丨如此者初爲力按而還即輕按使出兩卦之聲此乃徐舉指法

凡一井二合字手法專用母指處次用母指甚捷

凡一井二字手法母指長指處捷用母指也

凡一井二字手法無名指母指處捷用母指也

凡一井二字先用無名指次用長指處捷用長指

凡一井二字先用食指次用母指處母指捷用也

凡一井二字手法食指長指處食指捷用也

凡二井遠書四字處用指疾用甚捷也

凡前字有指法次字無指法處前指仍用之法也

凡前字有匙法次字無匙法處尋用匙之便宜也

士ㄅ랭冬ㄷㄹ澄ㄅ池ㄲㄅ同ㄷㄹ多ㄅ地ㄲ琴ㄷㄹ堂ㄷㄹ豆ㄷㄹ興ㄷㄹ加ㄅ月ㄷㄹ等字肉譜也加邪琴琵琶肉譜同

琴平調大絃卦次

凡琴十六卦自大卦上至第五卦謂之宮遊絃宮同

自宮至小卦謂之上○自宮至大卦謂之下

自大卦至八卦亦曰宮又至十一卦十四卦亦謂之宮遊絃宮亦同

第五卦為宮則上一者自宮而上至第二卦為上一商聲自大卦至第六卦是也

上二者自宮而上至第四卦為上二角聲自大卦至第八卦是也

下一者自宮而下至第二卦為下一羽聲自大卦至第三卦是也

下二者自宮而下至第三卦為下二徵聲自大卦至第二卦是也

凡宮用上一上二下一下二卦次倣此

琴變卦兼用法初學雖有卦次及至惜熟則隨聲越用無妨

二卦徵聲與五卦宮聲同遊絃聲亦相應宮變為徵兼用

下二

三卦羽聲與六卦商聲同遊絃聲亦相應商變為羽兼用

下一

五卦宮聲與八卦角聲同遊絃聲亦相應角變為宮兼用

宮

自宮而上至第二卦為上一商聲自大卦至第九卦是也

自宮而上至第四卦為上二角聲自大卦至第十一卦是也

此以八卦為宮而言也

五卦變徵聲與八卦宮聲同遊絃聲亦相應宮聲二變為吳徵兼用吳調下二

六卦變羽聲與九卦商聲同遊絃聲亦相應商聲二變

為吳羽兼用吳調下一

八卦變宮聲與十一卦角聲同遊絃聲亦相應角聲一變為吳宮兼用吳調宮

自宮而上至第二卦為上一商聲自大卦至第十二卦是也

自宮而上至第四卦為上二角聲自大卦至第十四卦是也

此以十一卦為吳調宮而言之

八卦變徵聲與十一卦宮聲同遊絃聲亦相應宮聲三變為吳吳徵兼用吳吳調下二

九卦變羽聲與十二卦商聲同遊絃聲亦相應商聲三變為吳吳羽兼用吳吳調下一

十一卦變宮聲與十四卦角聲同遊絃聲亦相應

角聲三變為吳吳宮兼用吳吳調之宮

此以十四卦為吳吳調宮而言之

十一卦以上但用遊絃只按毋指

宮商角徵羽出聲圖

(聲)宮聲圓厚而音上故其聲形上至而聲體俱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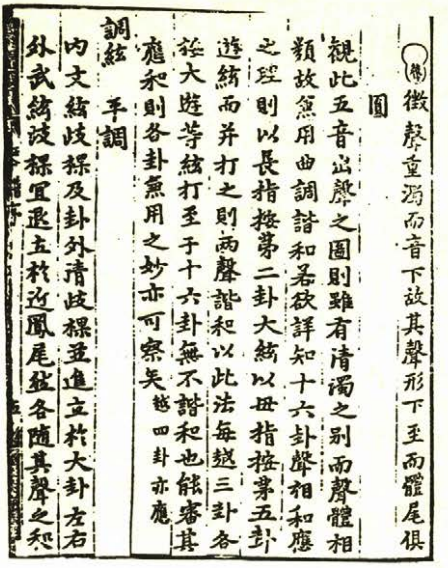
(聲)商聲輕清而音上故其聲形上至而聲體俱方

(聲)角聲極高而音上故其聲形上至而聲體俱

又

(聲)羽聲輕濁而音下故其聲形下至而體尾俱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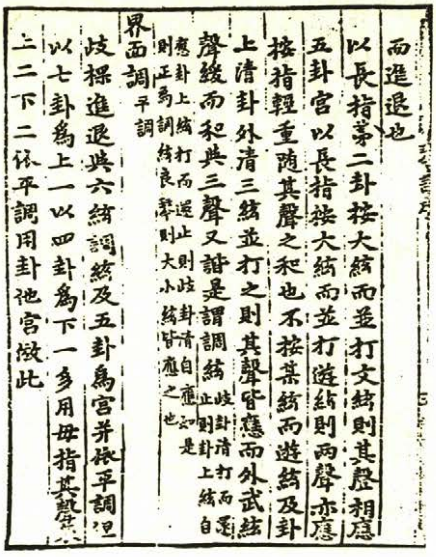
(徵)徵聲重濁而音下故其聲形下至而體尾俱圓



觀此五音出聲之圖則雖有清濁之別而聲體相類故無用曲調諧和若欲詳知十六卦聲相和應之理則以長指按第二卦大絃以母指按第五卦遊絃而并打之則兩聲諧和以此法每越三卦各按大遊等絃打至于十六卦無不諧和也能審其應和則各卦無用之妙亦可察矣越四卦亦應

調絃　平調

內文絃歧棵及卦外清歧棵並進立於大卦左右外武絃歧棵宜退立於近鳳尾然各隨其聲之和而進退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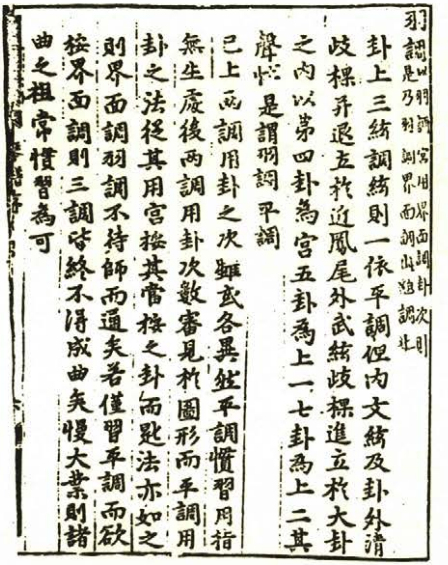


以長指第二卦按大絃而並打文絃則其聲相應五卦宮以長指按大絃而並打遊絃則兩聲亦應按指輕重隨其聲之和也不按某絃而遊絃及卦上清卦外清三絃並打之則其聲皆應而外武絃聲緩而和與三聲又諧是謂調絃歧卦清打而還止則卦上絃自應卦上絃打而還止則歧卦清自應如是則正為調絃良聲則大小絃皆應之也

界面調　平調

歧棵進退與六絃調絃及五卦為宮并依平調但以七卦為上一以四卦為下一多用母指其聲[illegible]上二下二依平調用卦他宮倣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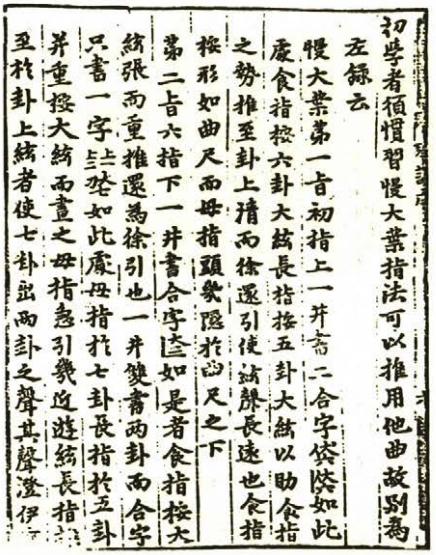
羽調以羽調宮用界面調卦次則是乃羽調界面調出絃調北



卦上三絃調絃則一依平調但內文絃及卦外清歧棵并退立於近鳳尾外武絃歧棵進立於大卦之內以第四卦為宮五卦為上一七卦為上二其聲恰是謂羽調　平調

已上兩調用卦之次雖或各異然平調慣習用指無生處後兩調用卦次數審見於圖形而平調用卦之法從其用宮按其當按之卦而匙法亦如之則界面調羽調不待師而通矣若僅習平調而欲按界面調則三調皆終不得成曲矣慢大葉則諸曲之祖常慣習為可

初學者須慣習慢大葉指法可以推用他曲故別為左錄云



慢大葉第一旨初指上一并書二合字[illegible]如此處食指按六卦大絃長指按五卦大絃以助食指之勢推至卦上清而徐還引使絃聲長遠也食指按形如曲尺而母指頭幾隱於曲尺之下

第二旨六指下一并書合字[illegible]如是者食指按大絃張而重推還為徐引也一并雙書兩卦而合字只書一字[illegible]如此處母指於七卦長指於五卦并重按大絃而畫之母指急引幾近遊絃長指[illegible]至於卦上絃者使七卦出兩卦之聲其聲澄伊[illegible]

也他倣此
第三旨十三指卦則下二合字則㤅如此而肉譜
加字處以長指第三卦大絃輕按直引向宮而打
之使下二聲出於三卦即以母指按宮時長指還為重按使出宮之正聲也
一并雙書兩卦而合字只書一字下宮㤅如此處食
指第三卦按大絃重引長指第二卦按大絃畫之
而重推之則初聲下一引聲宮聲也詳知推引之
法則於他曲類如是處可以解用矣第四旨按遊絃食指疾用
第五旨按法一依三旨法但只書清字處下三遊
絃聲短而歌聲猶長故以匙用左右點法微動卦
上歧探兩清以續餘韻也凡單書清字處或用此

法亦有打清處
卦則下五合字則乚如此者虛為力畫之匙至外
武絃小停而力彈之常法也凡虛畫亦用此法
餘音卦則上一合字則㤅如此而匙法有二者先
為瑟郎後舉絃而言也
凡母指按大絃弄曲長指亦按大絃以助母指之
勢時食指如鉤形拘諸大絃之上若母指按第五
卦則長指常按第三卦母指按第八卦則長指常
按第五卦之類是也他宮倣此
凡母指按遊絃弄曲無名指亦按遊絃以助母指
之勢兩指所按卦次與大絃卦次同其時食指長

指如前形并拘於大絃之上
學琴手法為重若不審叙文用指之法以母指按
大絃時舉長指食指按遊絃亦舉無名指母指按
上二上三之時亦舉長指只移母指而按則各音
并無助勢之音故聞來非徒心不實厚其音亦單
而不和終不能連音須審常按助勢推引搖弄之
法不舉長指名指只伸母指而按則調法自然諧
和數月之間可以連音矣
凡曲調長指獨按大絃或與母指共按大絃之時
微動手掌則絃不搖而聲自弄若不動手掌則母
指按而屈伸使弄其聲常法也或長指獨按則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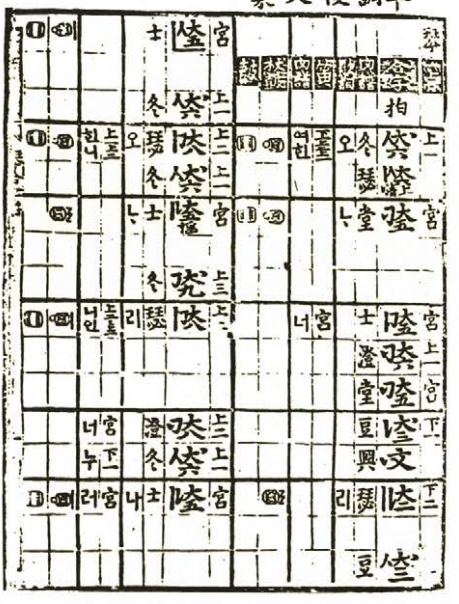
指尋常空為屈伸間或暗打長指所按之絃以助
其音此指第二節雖曲時而言也
凡推絃之法大絃則推至卦上清遊絃則推至大
絃者欲出正音而然也
凡曲調舒疾從本曲而和之然大業則調法甚緩
用手吾重弄音將盡時時以匙微動卦上及歧探
清續音良久更用他指故名曰慢大業
假如母指於第五卦長指於第三卦並按大絃暫
引舉絃將舒打絃則兩卦之聲並出於一按中若
重引舉絃七卦之聲暫舒打絃六卦之聲暫引則
六卦之聲幾舒則本卦之聲也能審是音則學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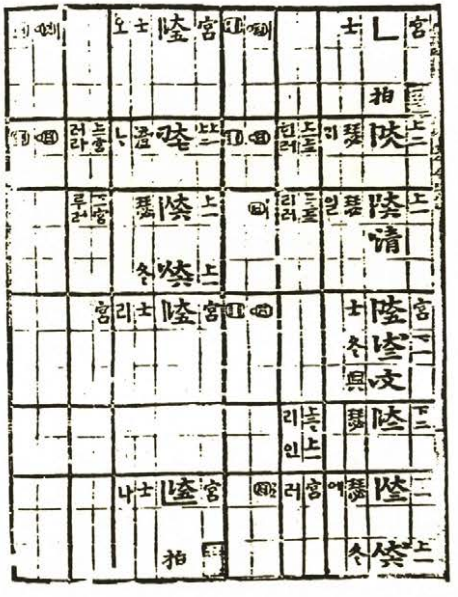
幾矣然用匙當疾則如電光而和曲（非徒五卦宮用之他卦亦如是）大抵樂音伸而和平當如春三月氣象可也如或隱而急促則非樂也五音迭用而清濁互變平邈交諧而不相棄倫者比如地氣上昇天氣下降而陰陽調和萬物生育之象也是以淡而不傷和而不淫入其耳感其心莫不淡且和焉而俗師不知自作新聲樂之失倫於斯極矣學琴者不可不知也千人品不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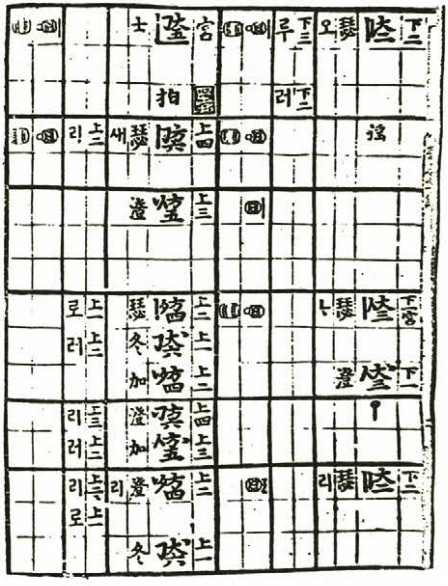
十二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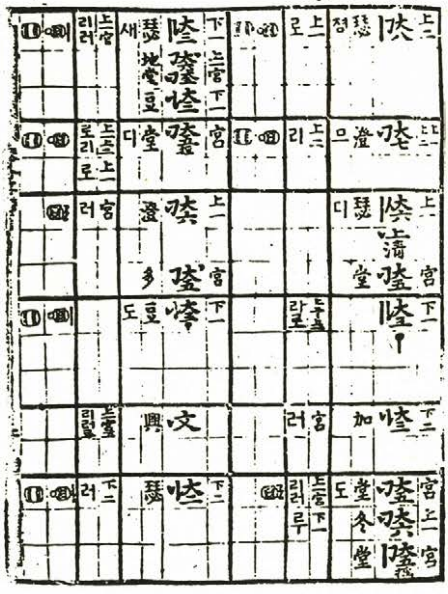
記曰凡音之記曰人心生也經曰稍爲易俗至善於樂蓋樂者音之所生亦天地之和也感發人心爲游邪穢故君子之音得氣居中以養生育之氣樂可以經鼓之手哉是以彈琴以和暢爲主以清雅爲本而五切十善必根於五九氣七病自施於體修乃理性能使聽者三昧能使方可謂盡聖之理也如或分是而必求則難爲何善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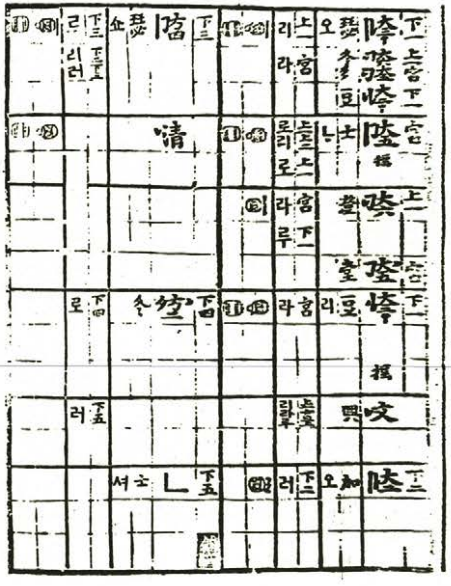
平調慢大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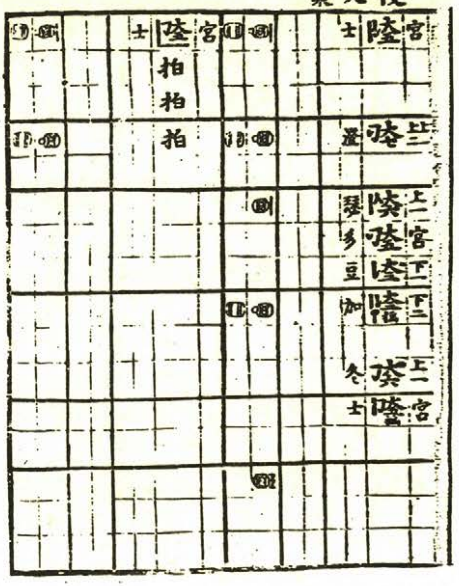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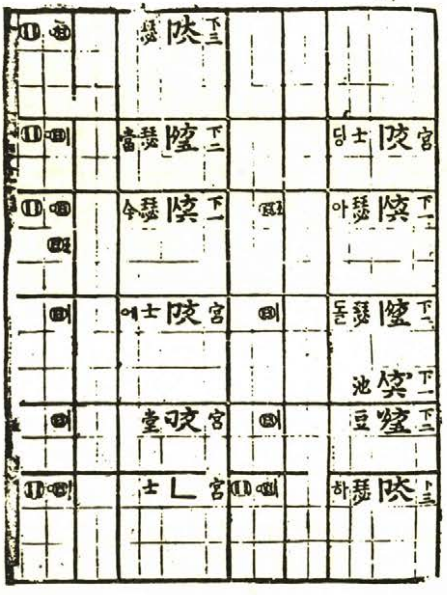


慢大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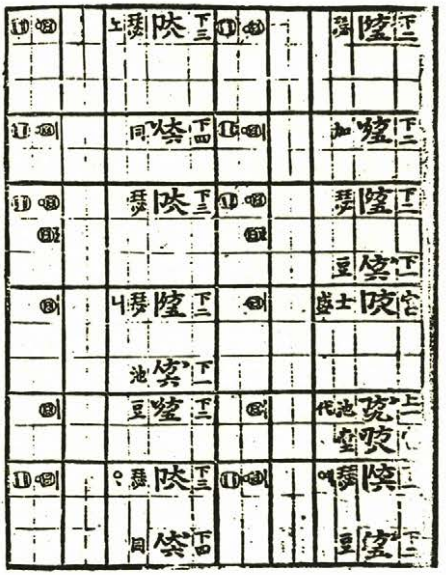
慢大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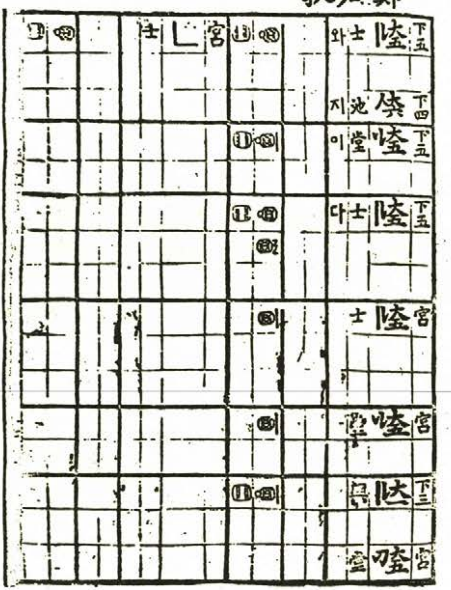
鄭石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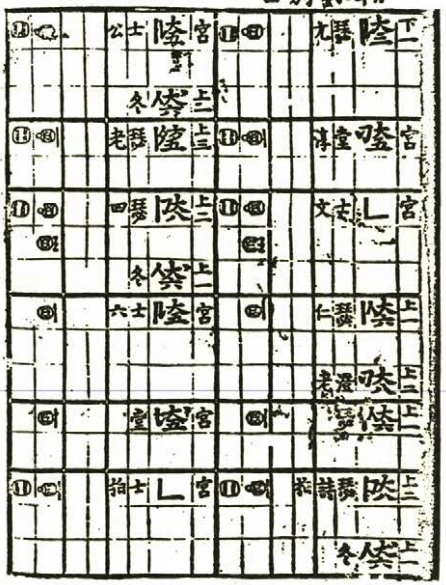
鄭石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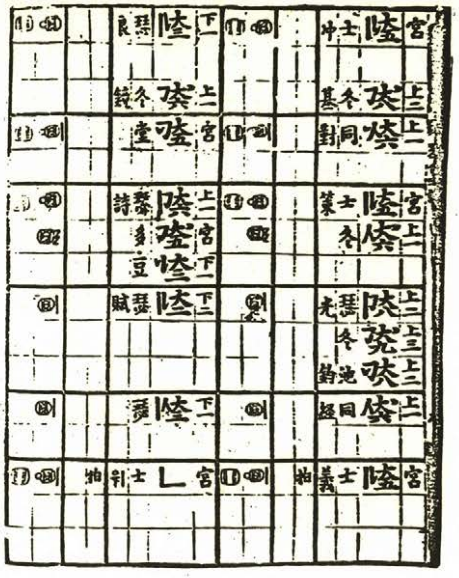
鄭石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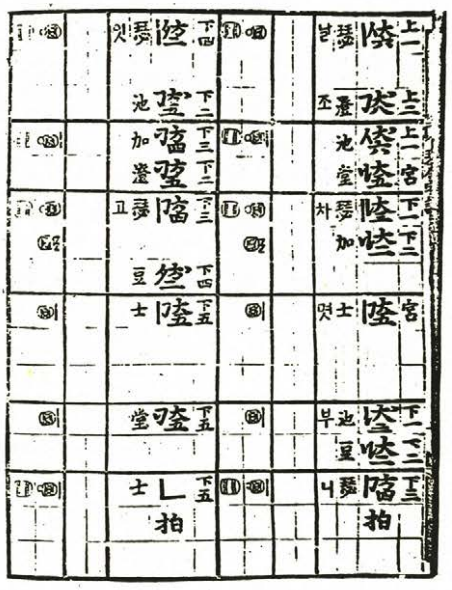
林翁別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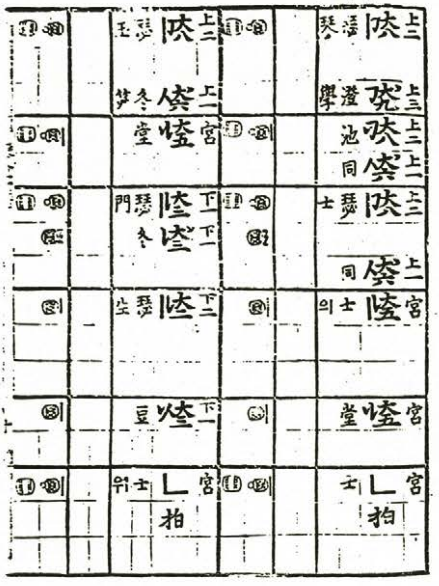


翰林別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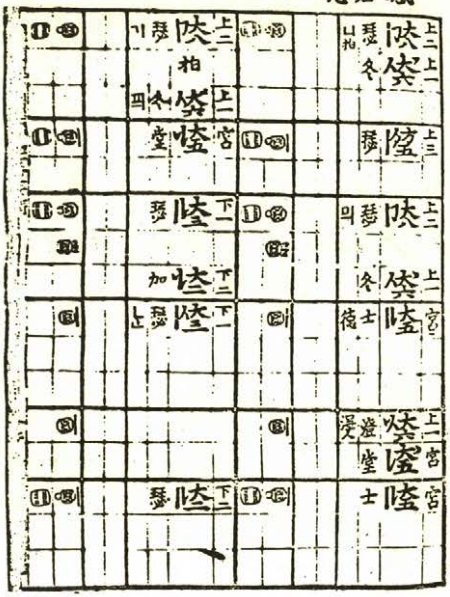


翰林別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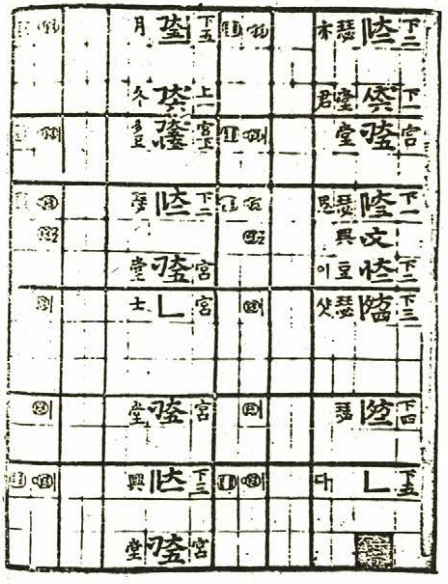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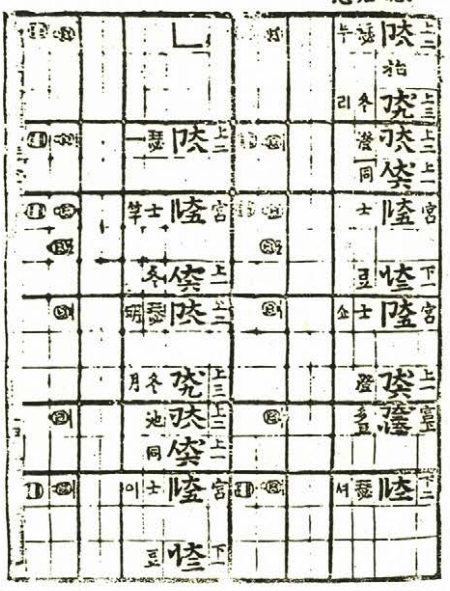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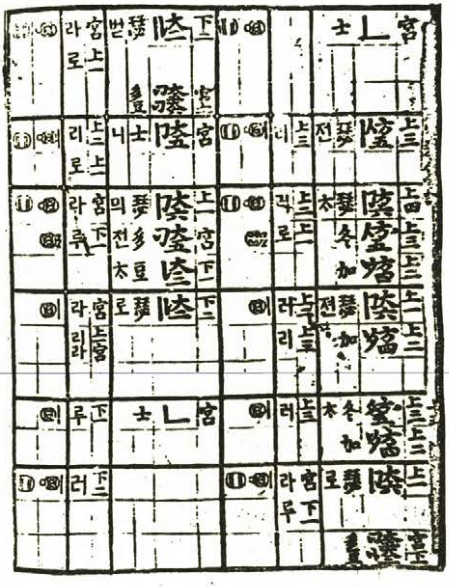
感君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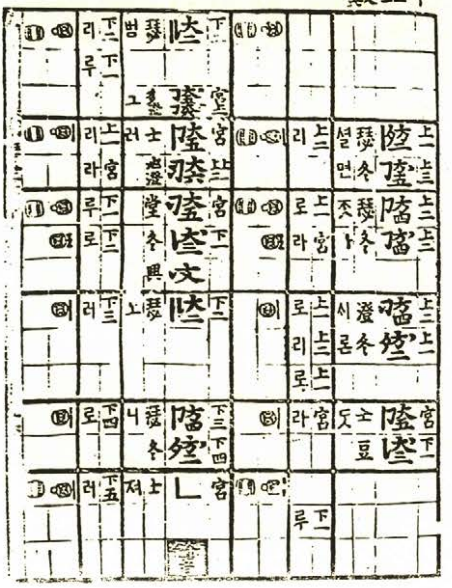
感君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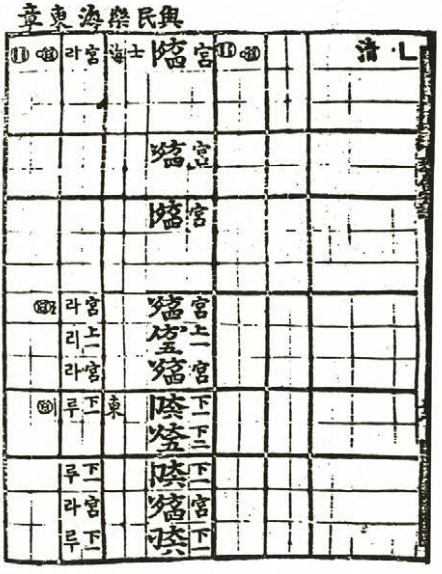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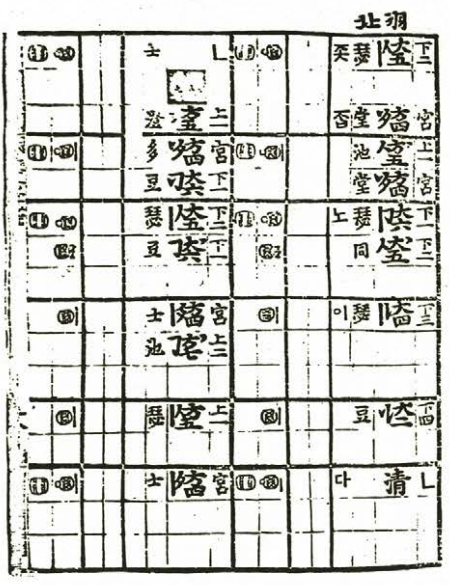
平北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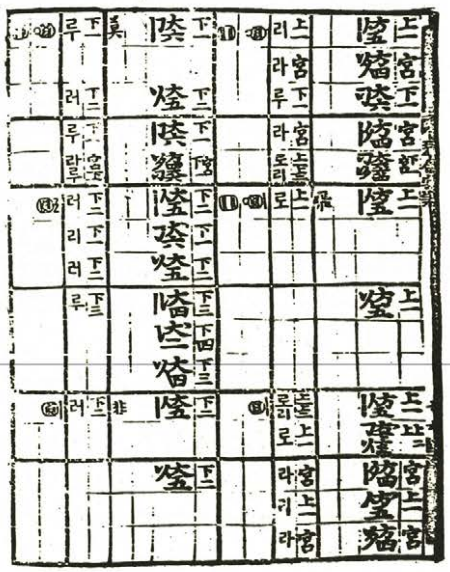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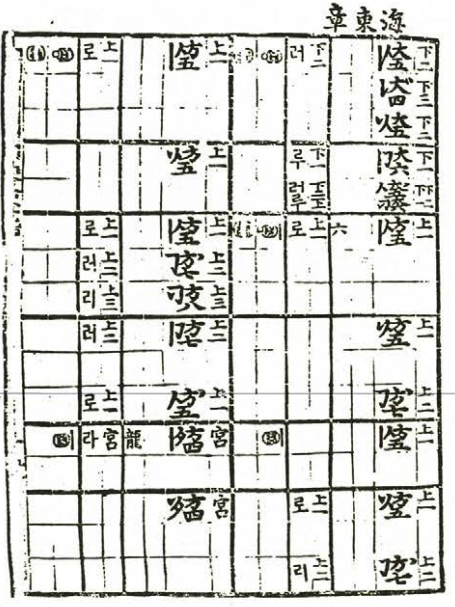
羽調北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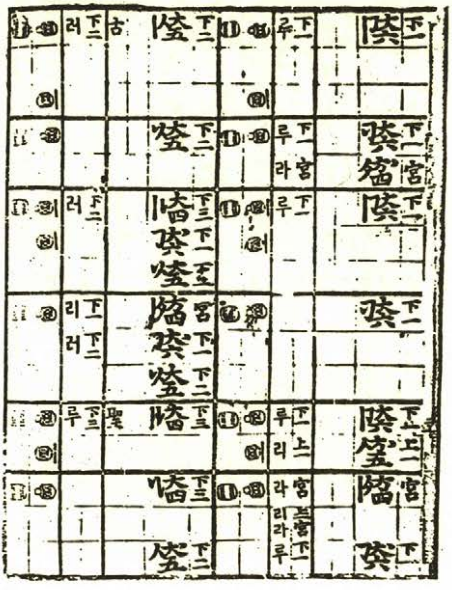
羽北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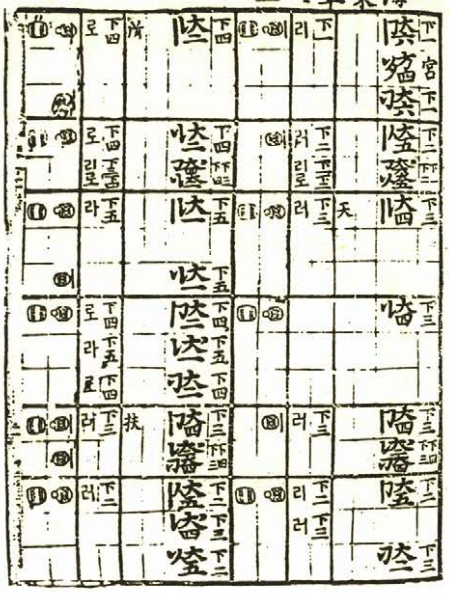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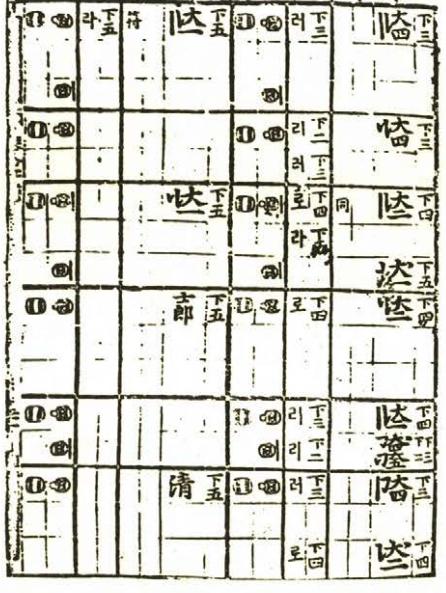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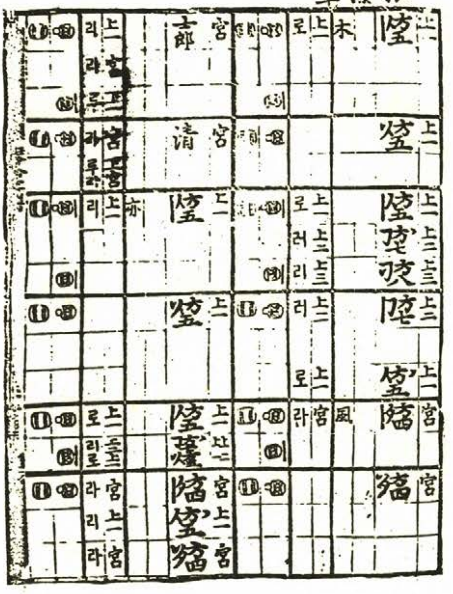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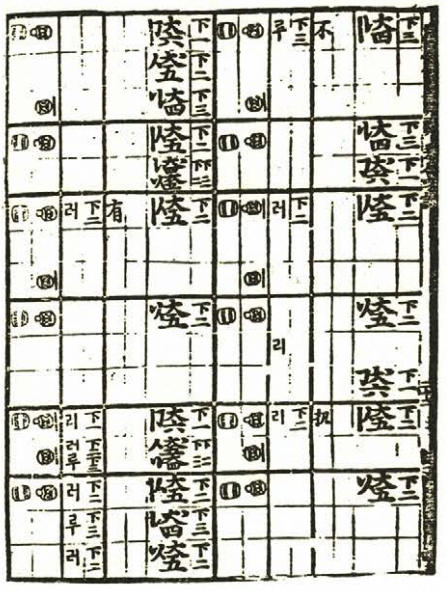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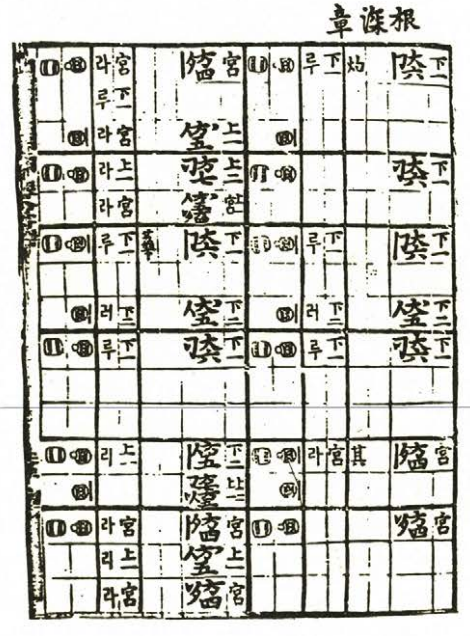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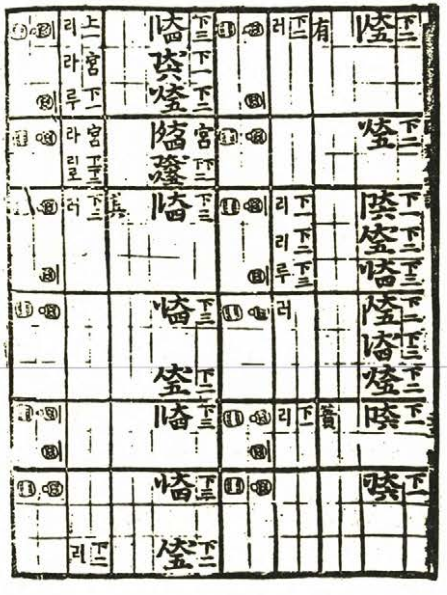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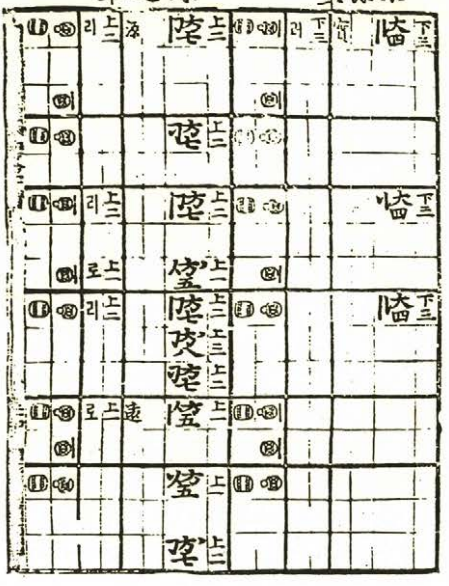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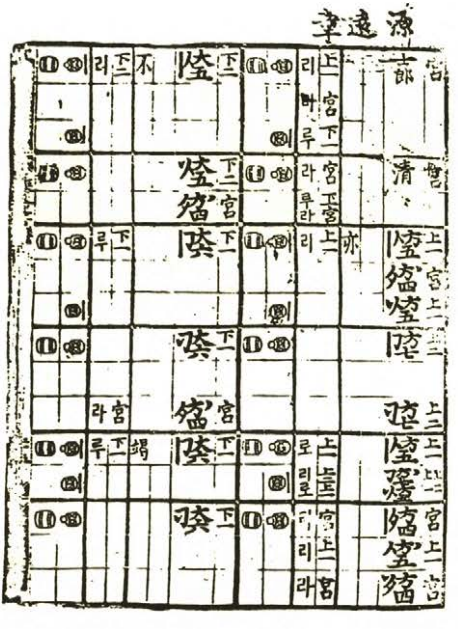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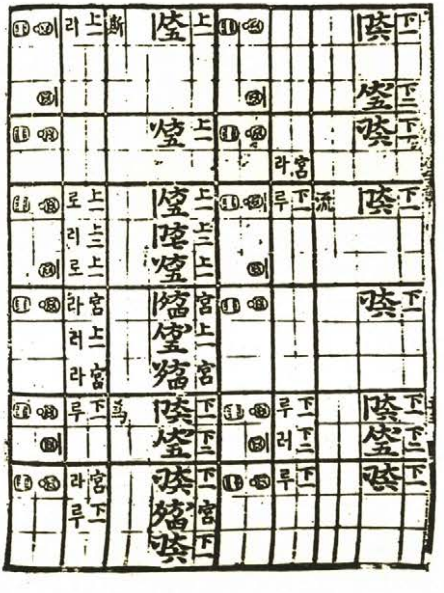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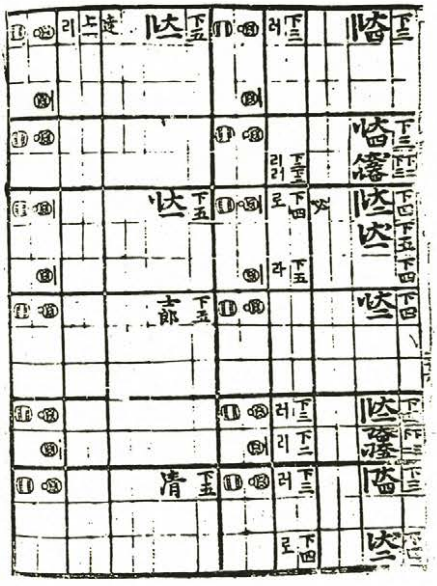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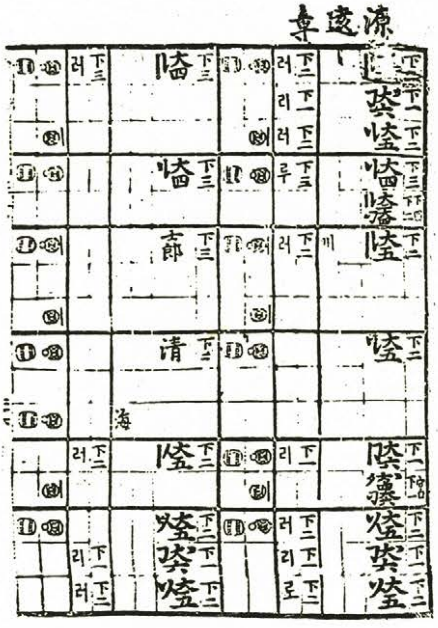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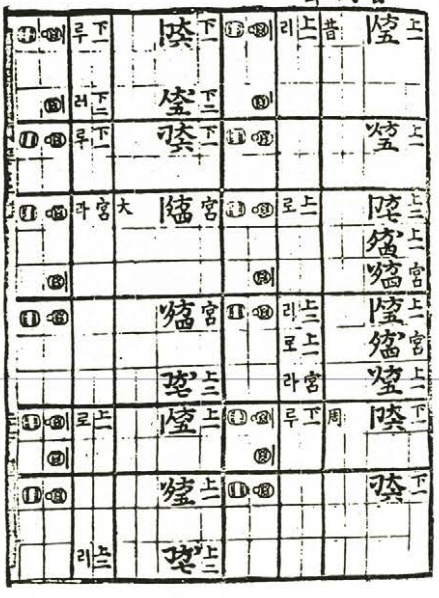

源遠章
振滌章


源遠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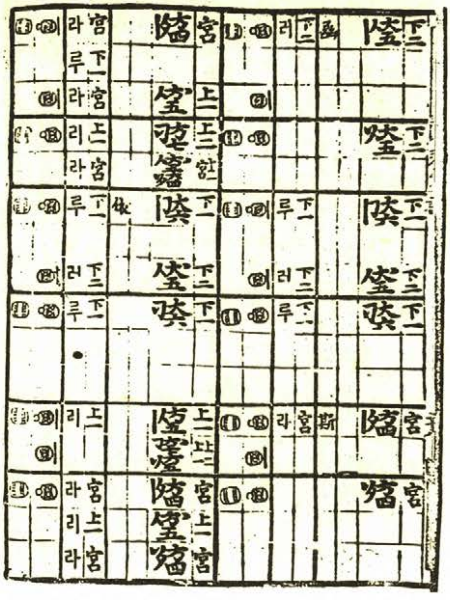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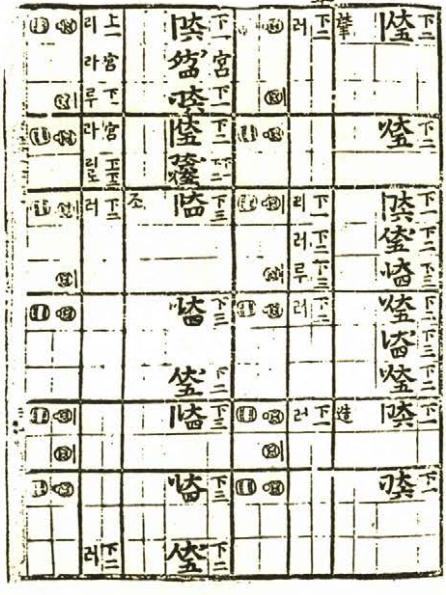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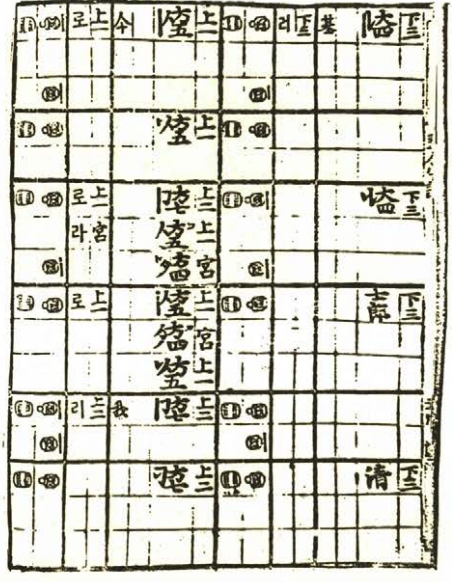
普周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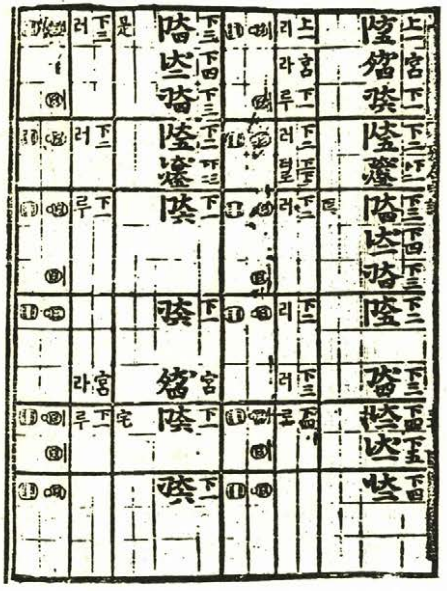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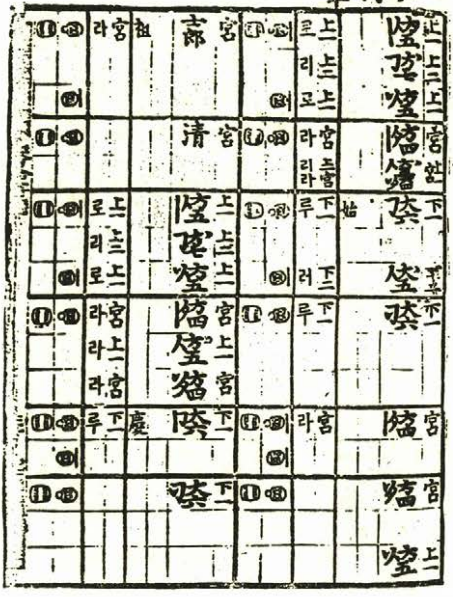
普周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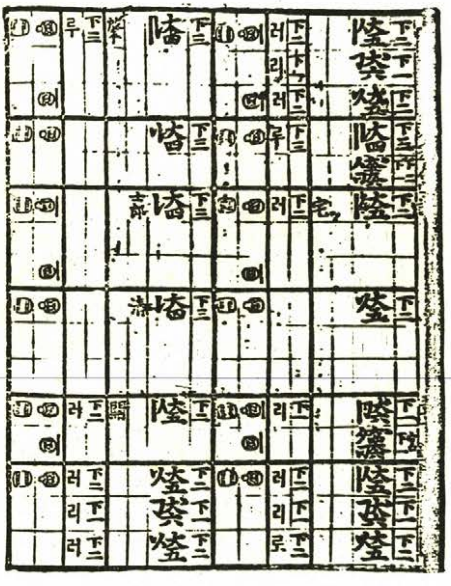


令我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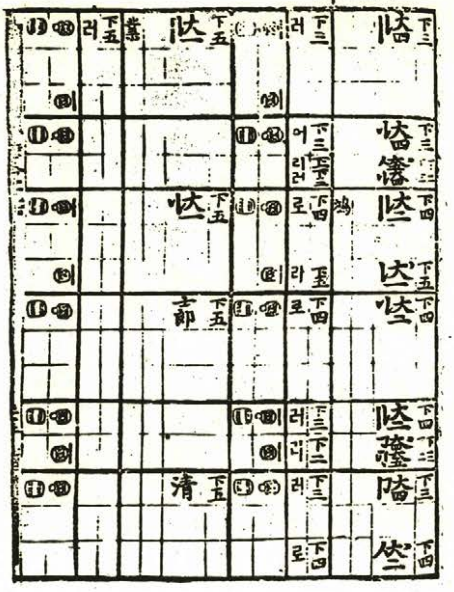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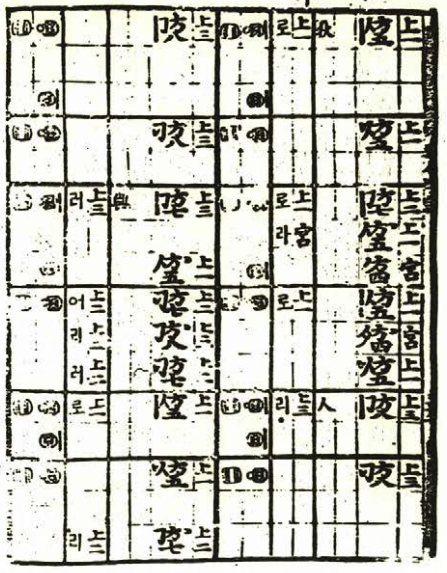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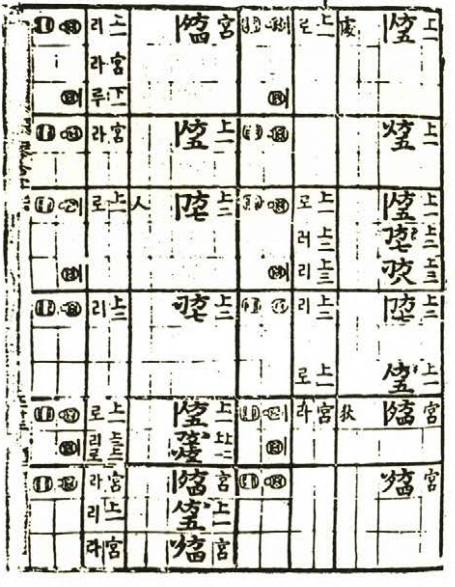
今我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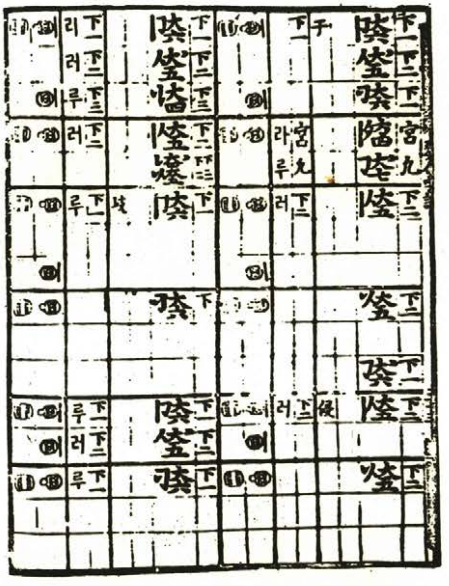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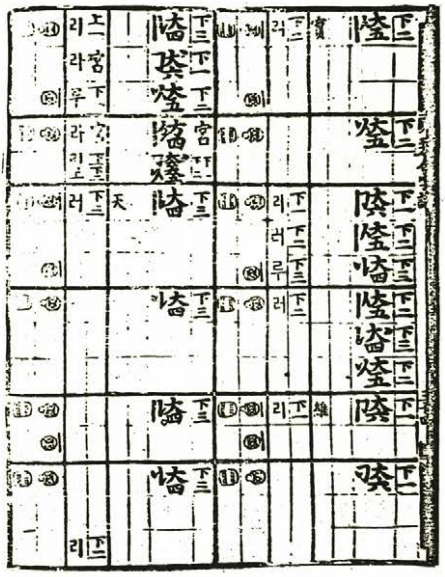
秋人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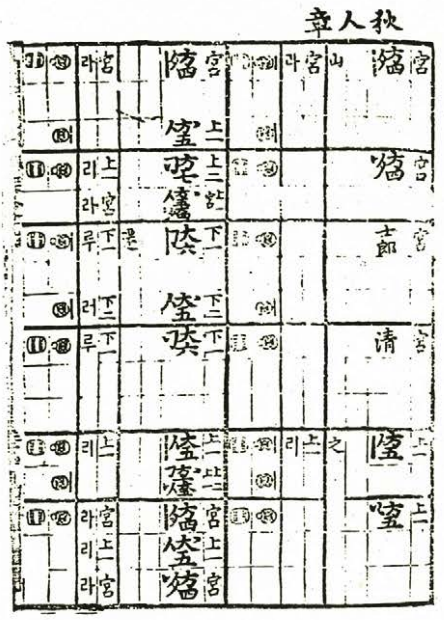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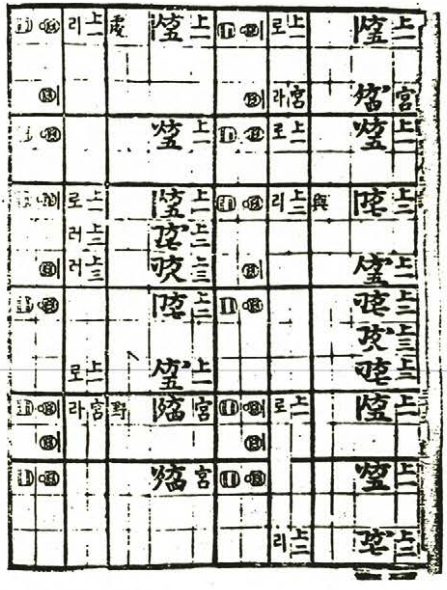
狄人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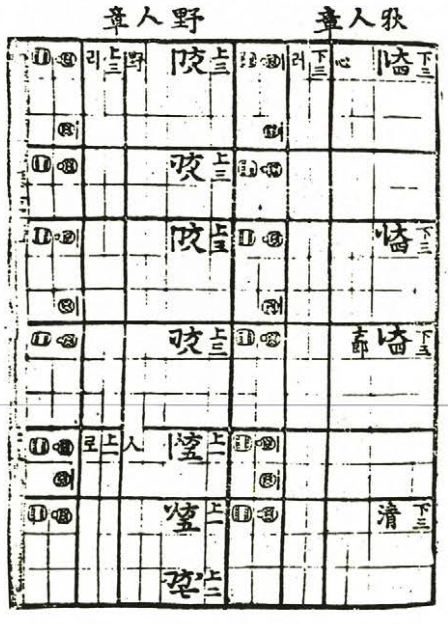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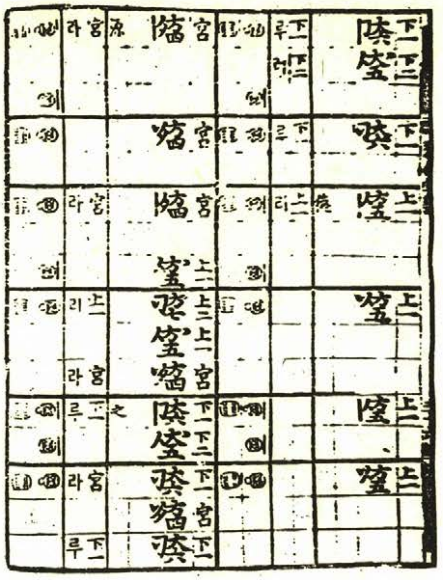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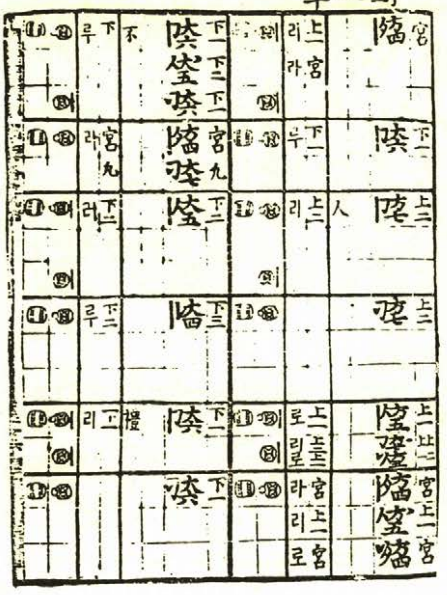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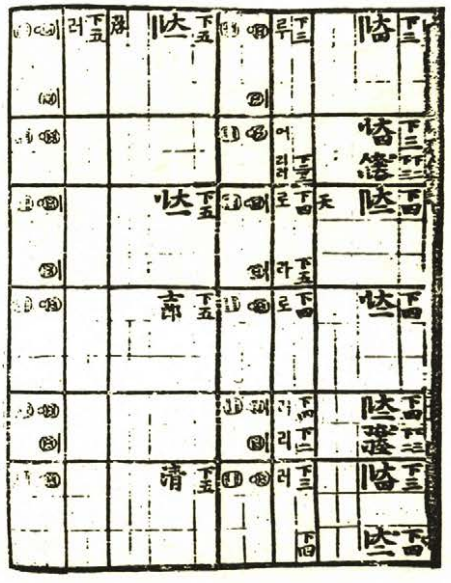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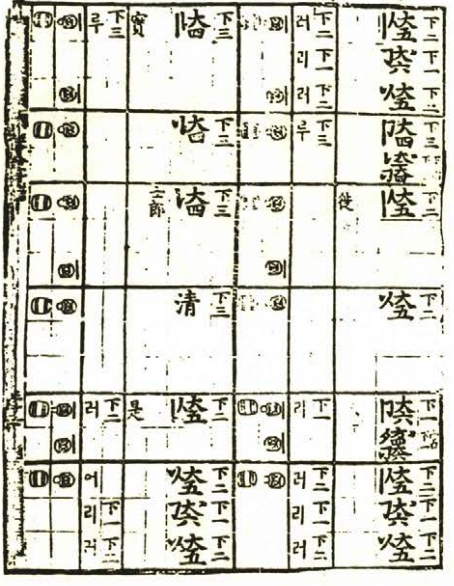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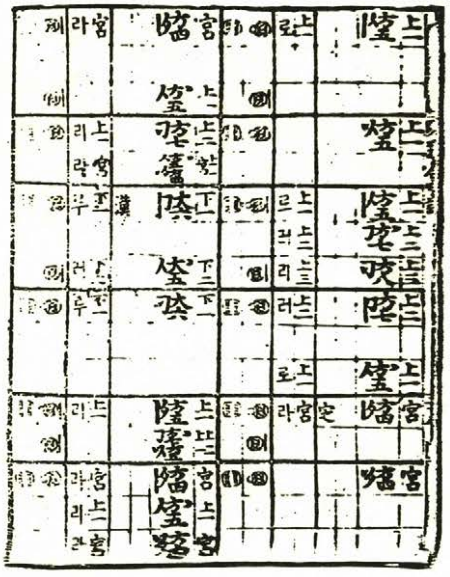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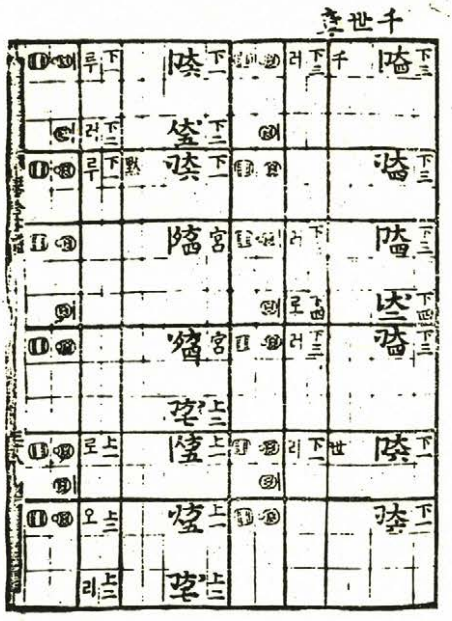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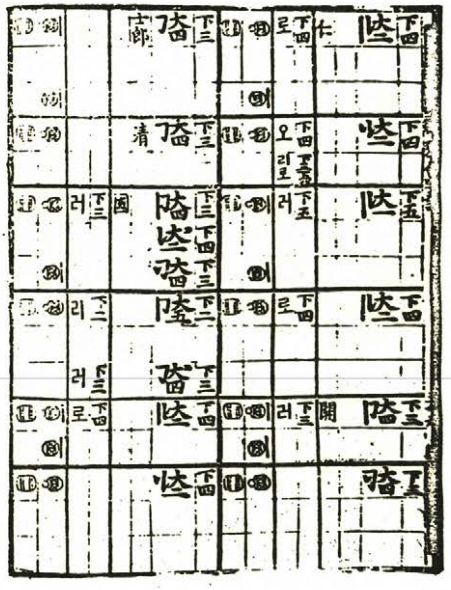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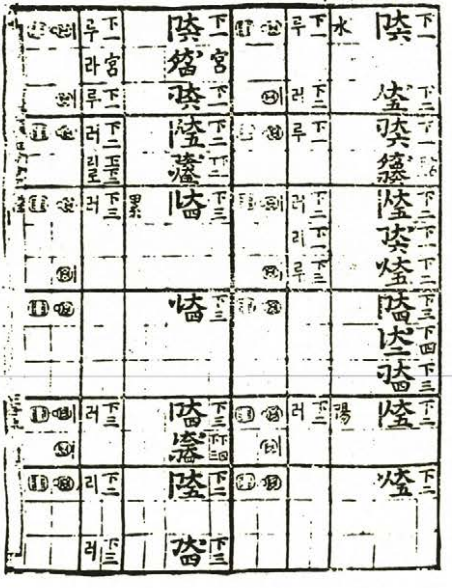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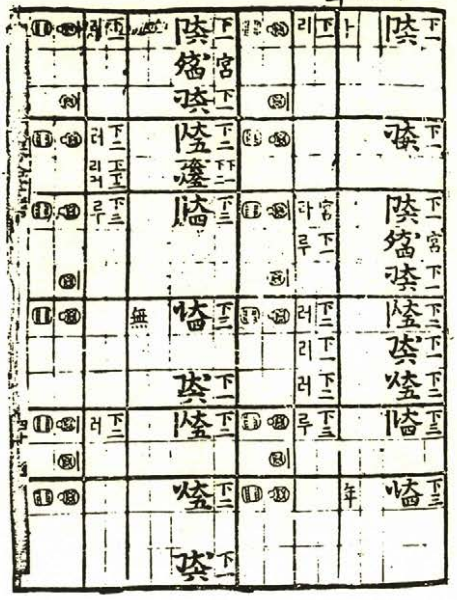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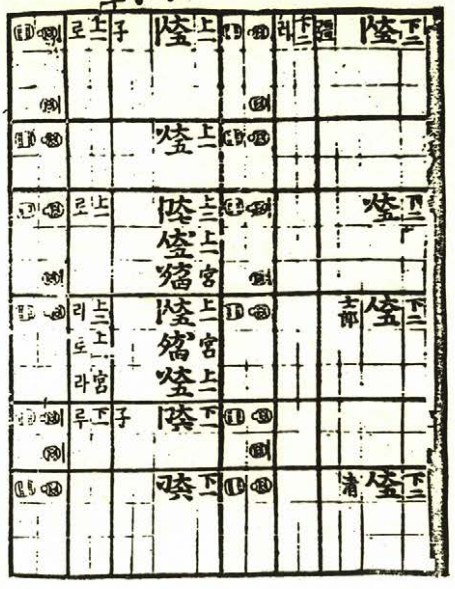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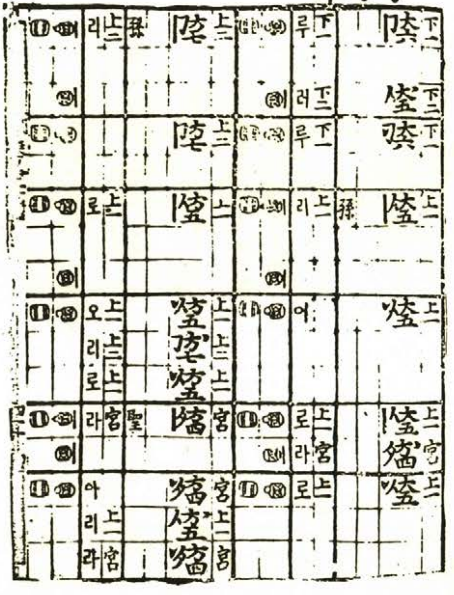
千世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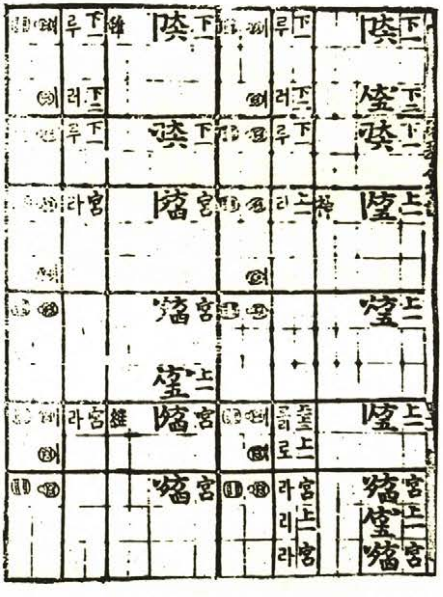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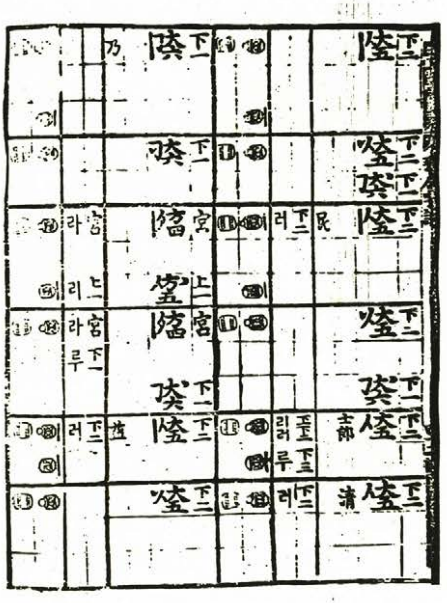
子子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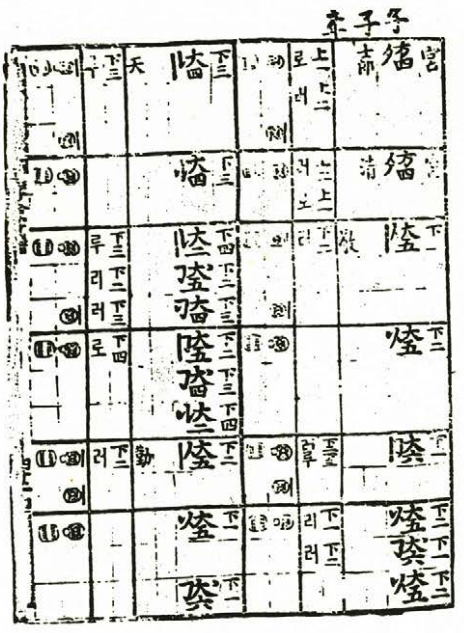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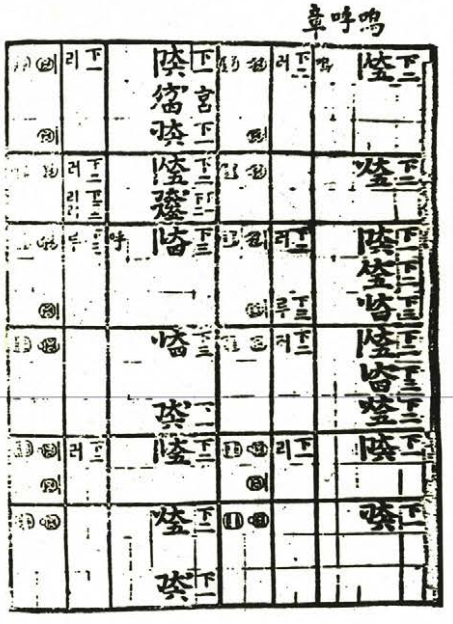
子子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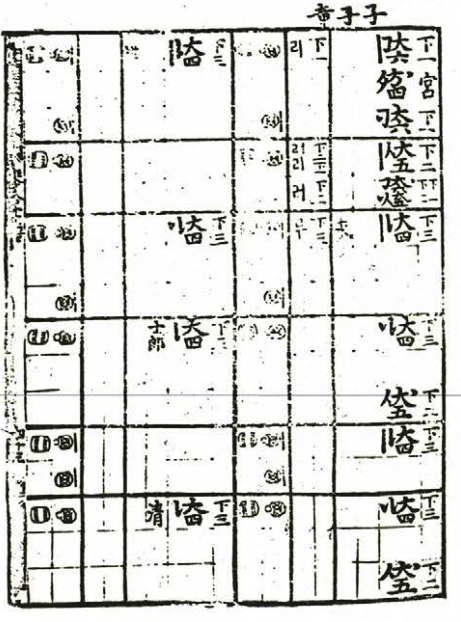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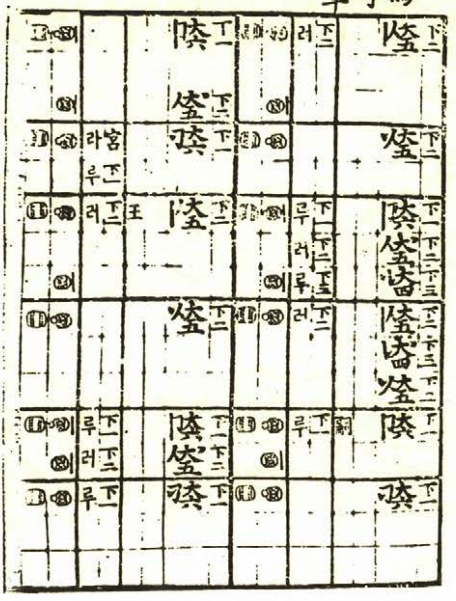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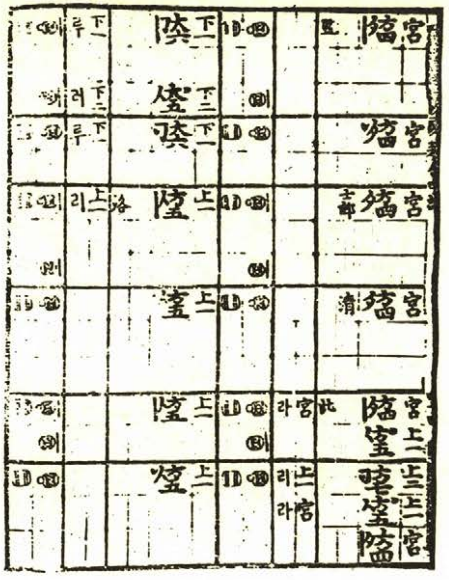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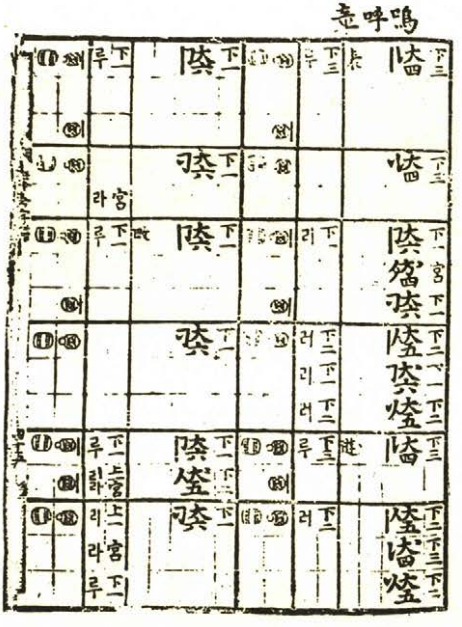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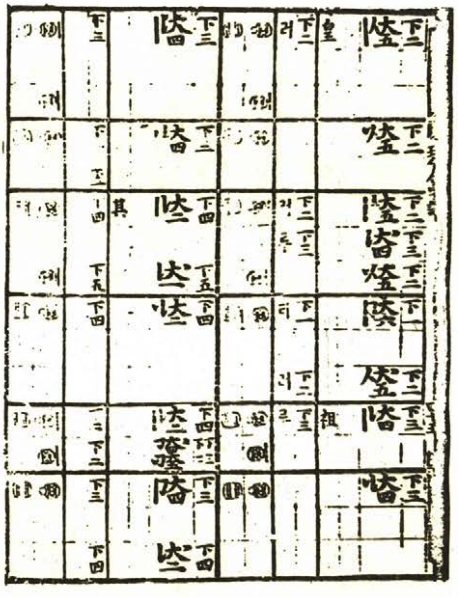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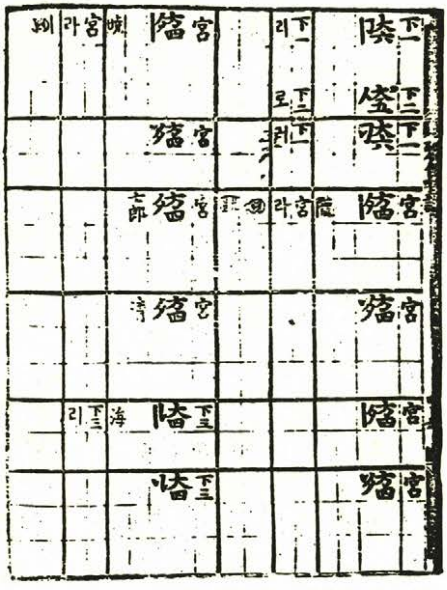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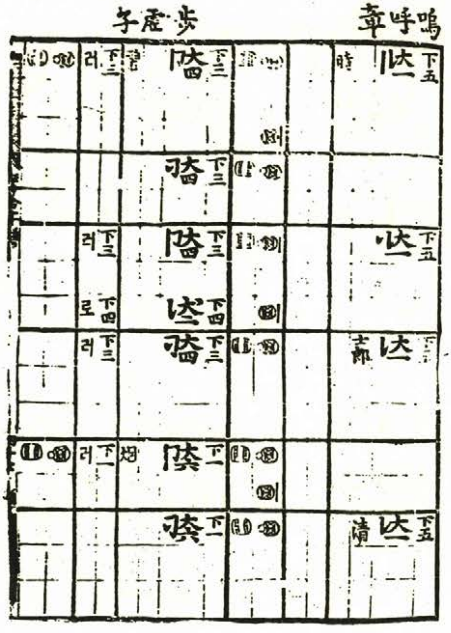

鳴呼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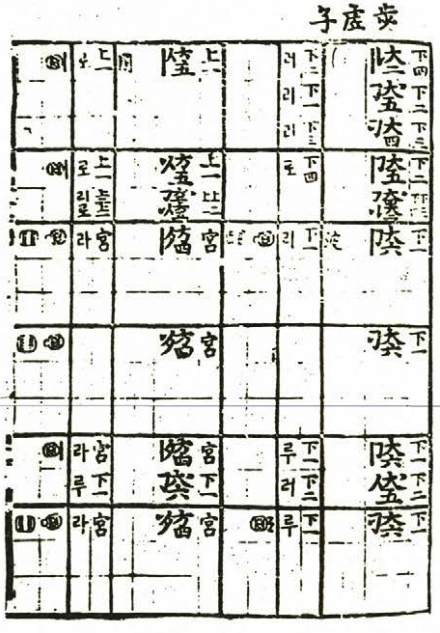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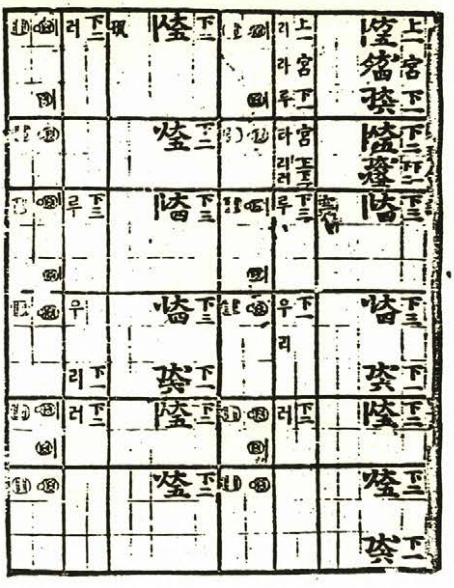

鳴呼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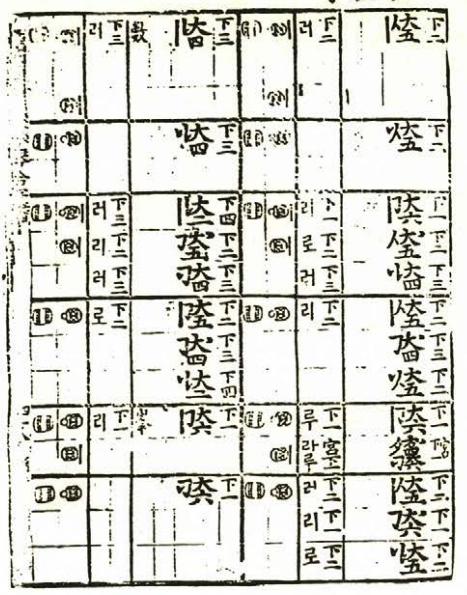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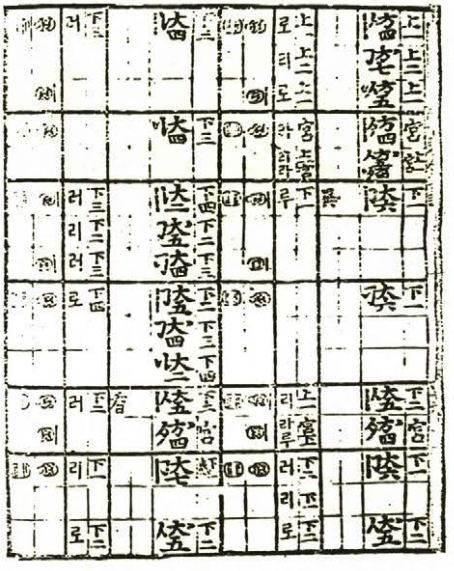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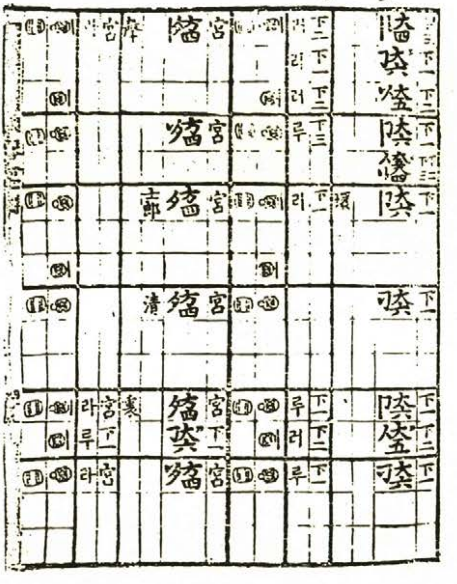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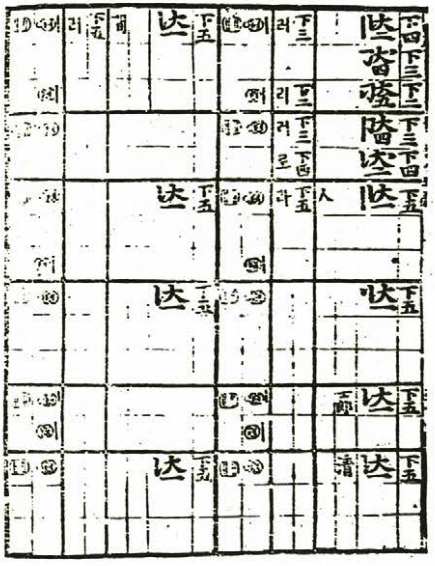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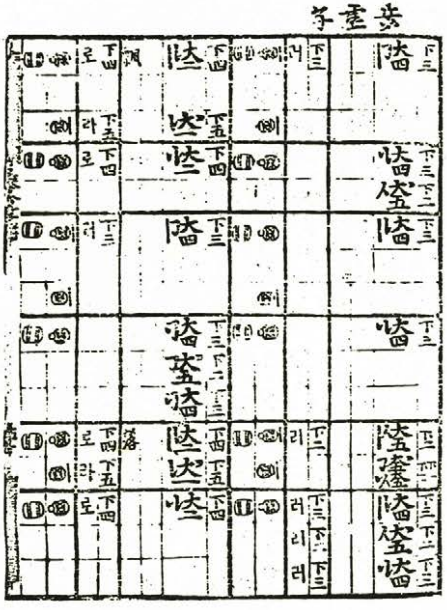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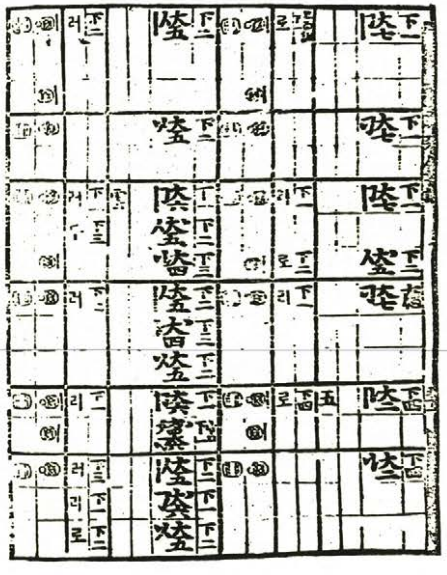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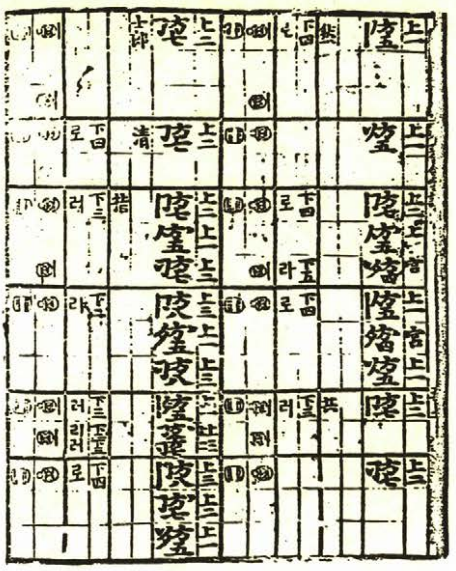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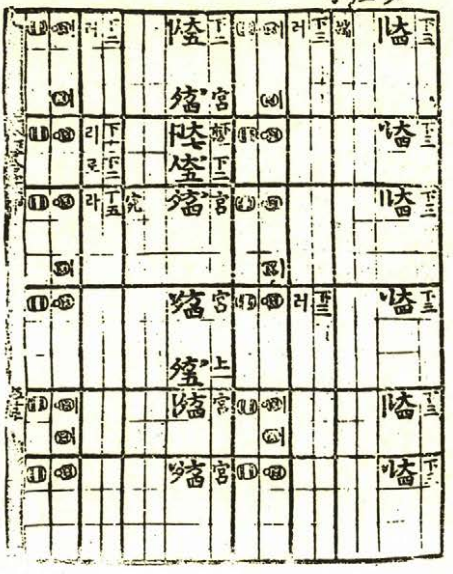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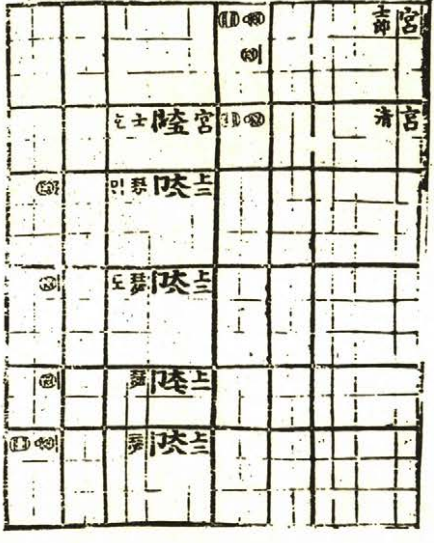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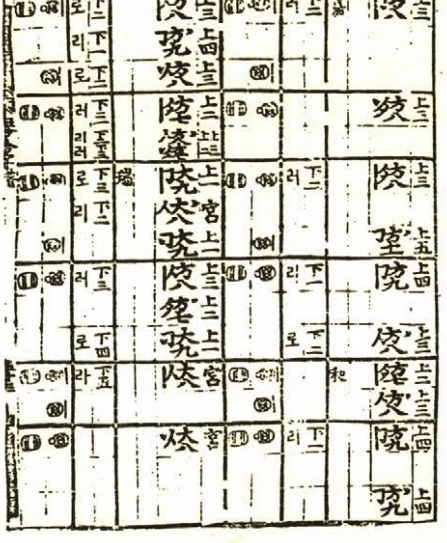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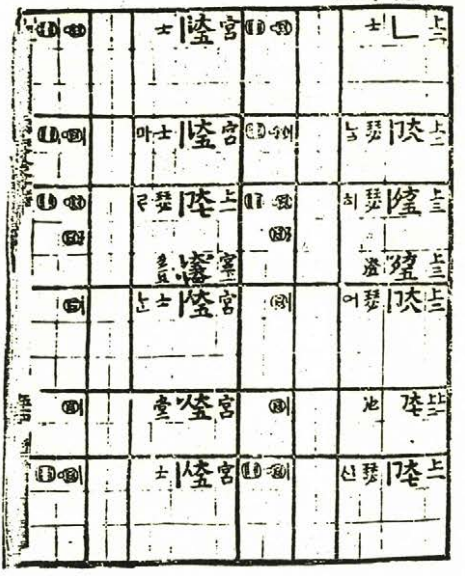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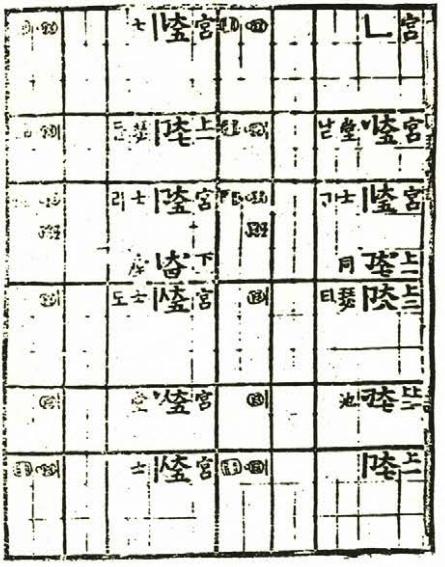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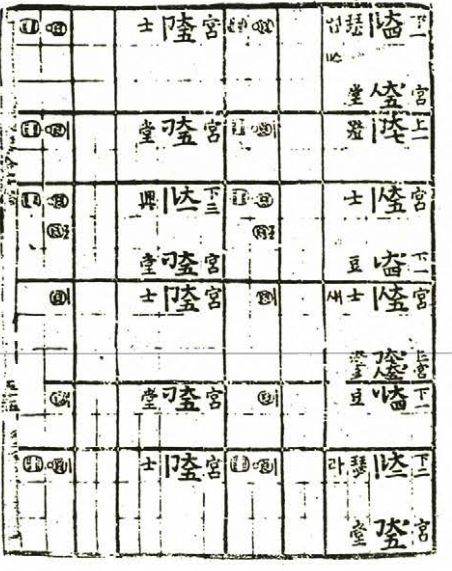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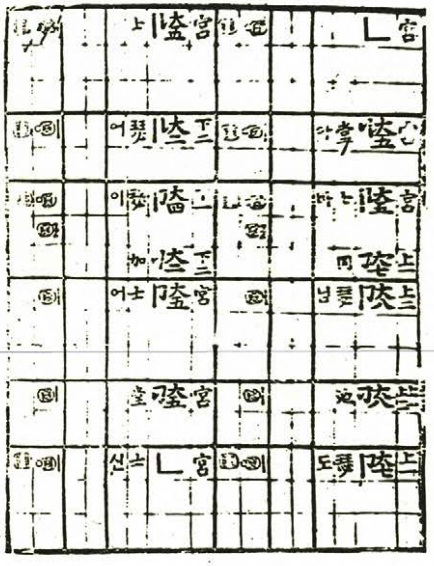
思母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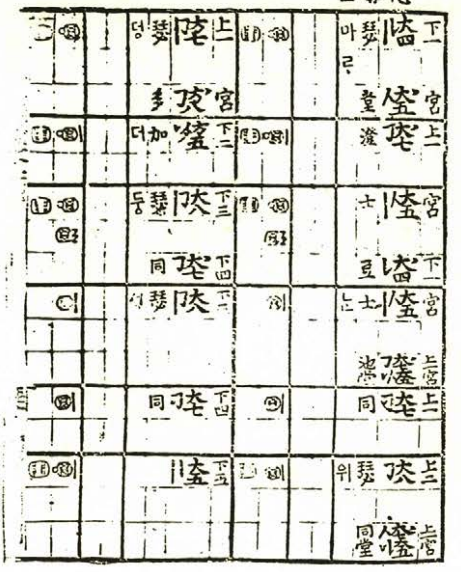


思悔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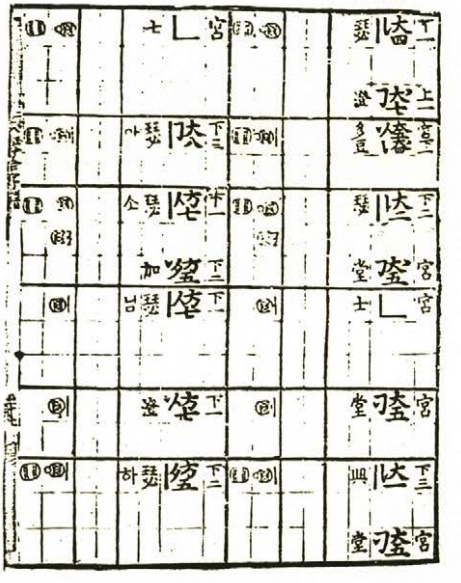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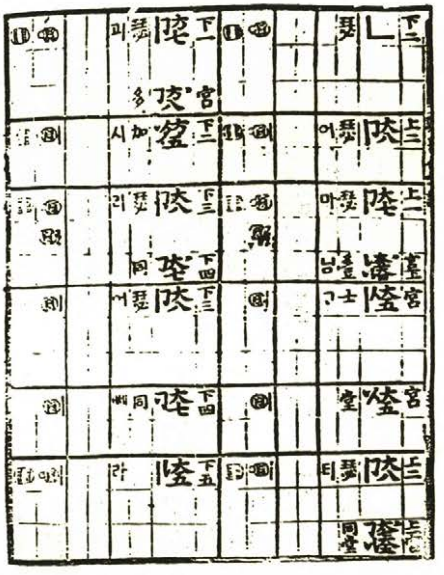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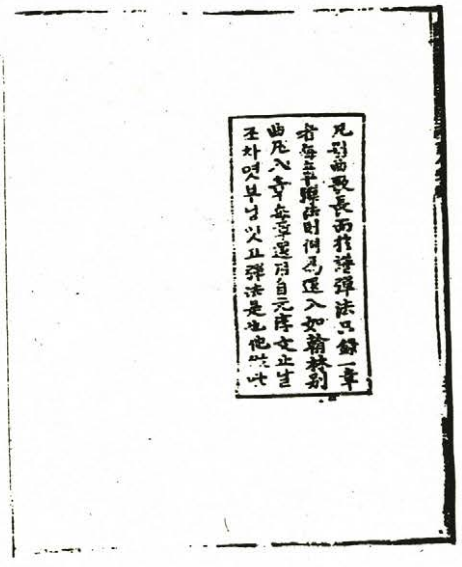
曲毋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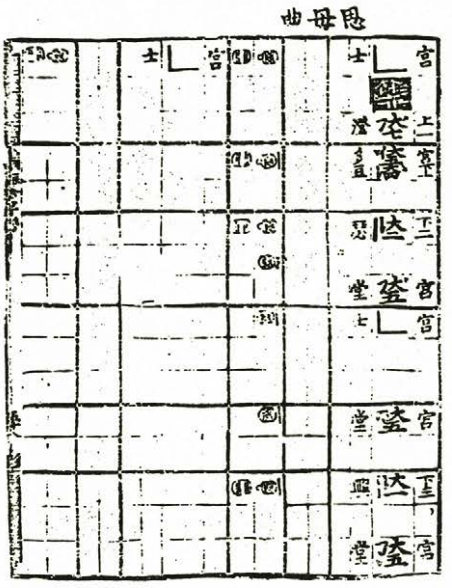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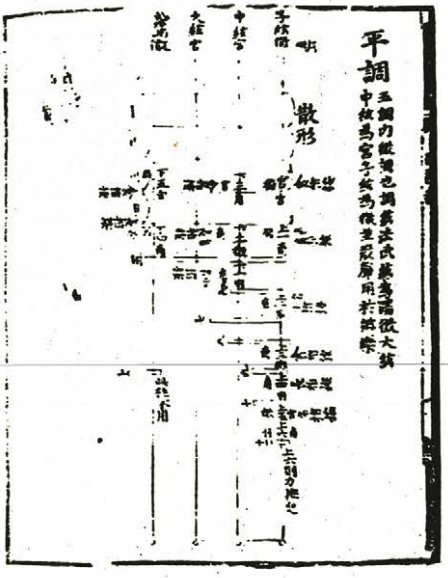
思毋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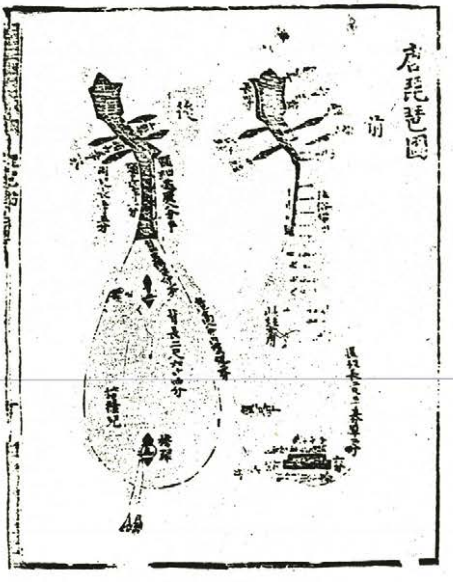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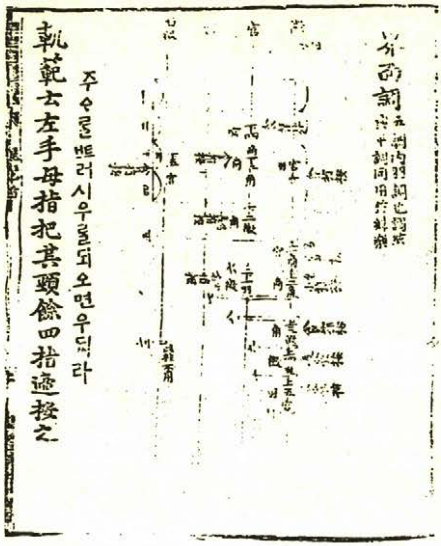

凡別曲數長而於譜彈法只錄一章者每章彈法則何為選入如翰林別曲凡八章每章選用自元序文止生丕朴吳早生以丑彈法是也他此此




平調

散形


唐琵琶圖



執範云左手母指把其頸餘四指遞按之

彈琴手法移用琵琶法

樂譜書上下云者用柱用管通稱之言也故凡作樂皆以此取則是以今於琵琶之彈詳見散形子絃宮柱以上諸柱皆書上字及中絃六柱以下書下一下二下三之處武絃五柱以下書下四下五處准用琴之上下法合字之法則只取起法而彈之指法依本譜至於琴之下四下五瑟郎處琵琶則於武絃皆以右手母指舉之琴之下五井合字然如此處琵琶則以左手食指於遠山下四絃合而堅執以右手四指順批之謂也下五井合字然如此處琵琶則不按柱

而右手母指舉武絃肉譜則與下五井士郎處琵琶則以左手食指按子絃四柱右手四指順批母指據武食指已下過子而伸之下五井清字處琵琶則不按柱以右手四指順批母指據武食指據子長指已下伸之之謂也凡於彈法非便處則隨宜和曲而彈之夫如是故能通一曲者其於諸管絃皆能通用而無礙

琵琶譜

琵琶譜

凡琵琶柱十二第四柱為平宮

絃四細絃遊絃也其次中絃其次大絃其次武絃

遊絃俗稱子絃

合字解

子字遊絃也最細

中字中絃也次大

大字大絃也次大

止字武絃也最大

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柱次也

用左手指法

人字用食指也

小字用小指也

夕字用無名指也

乚字用長指也

一字連書小夕乚二字處以三指並按一絃而小指最為力按

一字連書夕乚二字處以二指并按一絃而無名指最為力按

單書人字只以食指按也

單書乚字只以長指按也

單書夕字只以無名指按也

用右手指法

凡絃舉打皆用食指自長指以下伸之或并用長指

丁字用母指也

左點者用食指打絃也

右點者用食指舉絃也

丨者并以食指長指無名指小指自武順批母指據武而止食指過中絃據子絃而止長指以下伸之

乚者以四指自武順批母指則據武而止食指以下過子而伸之

柱則下五合字則伸如此者不按柱以右手四指虛為順批母指按武而止食指按子而止長指以下伸之

柱則下五合字則扯如此者右邊止字武絃也左邊丁字右手母指也有點者以母指舉武絃也

彈法

凡彈絃手法如洒水形

左手按柱法

母指常在琵琶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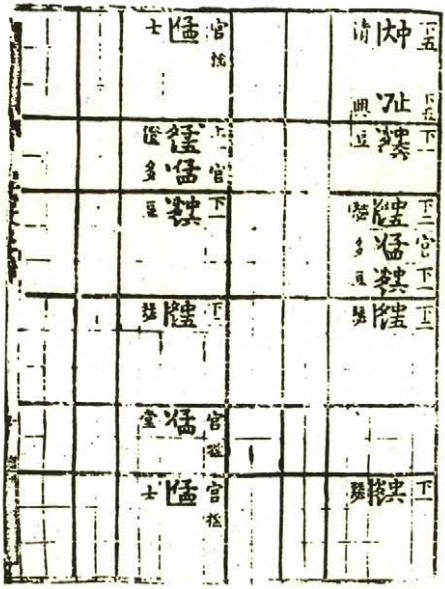
食指張而向上三指並曲而斜向小指如三指於第六柱共按中絃食指於第四柱只按子絃之類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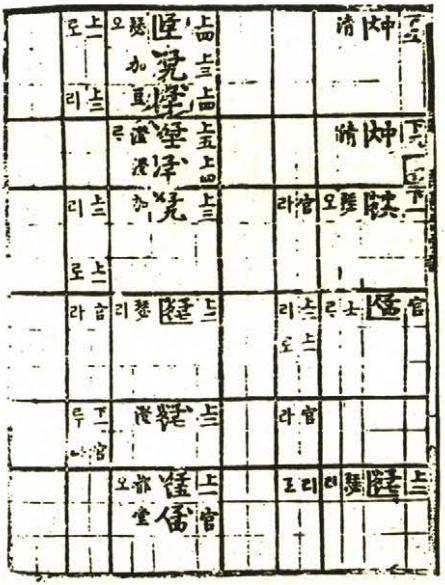
肉譜與琴譜同但琴則澄冬堂處琵琶則澄郝堂
搖字例於四柱及九柱按子絃搖其聲也
合字此如此者用指有二右邊亡字空字之意也
上有點者子絃按指空為意舉使子絃自出聲也
左邊點者以右手母指舉武絃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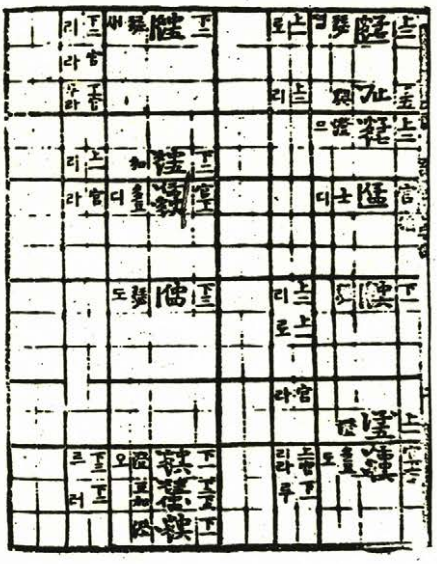
調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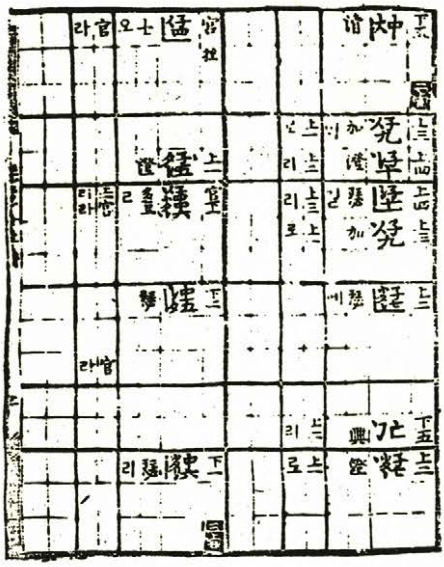
先以食指打子絃間取以實後次打中大絃漸漸
緩而和之又以食指自子絃并逆批四絃子中大
絃聲皆和平武絃如琴之武絃甚緩而和之則是
謂正調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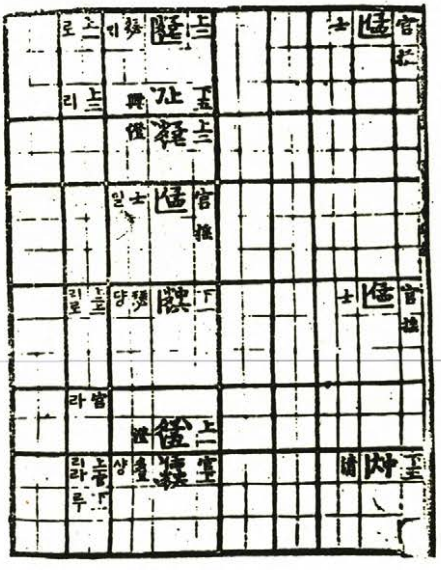
琵琶慢大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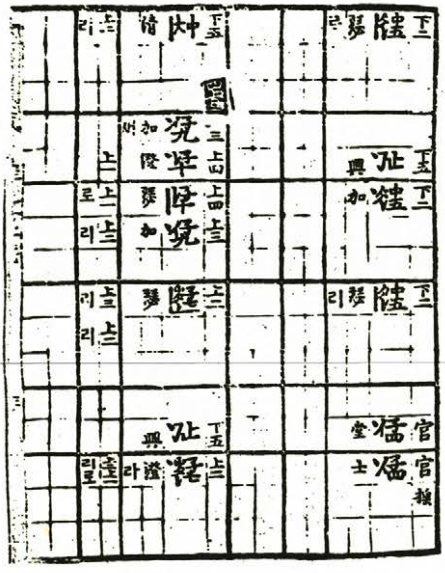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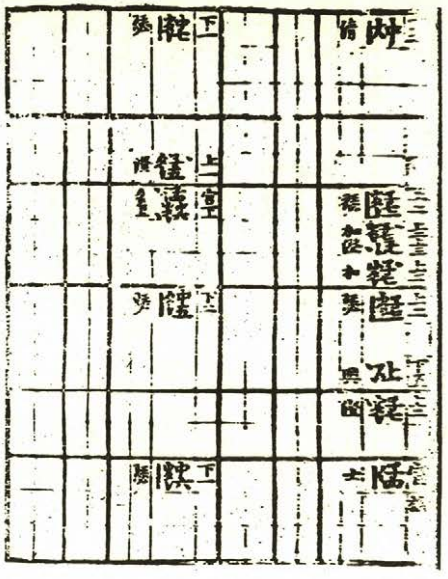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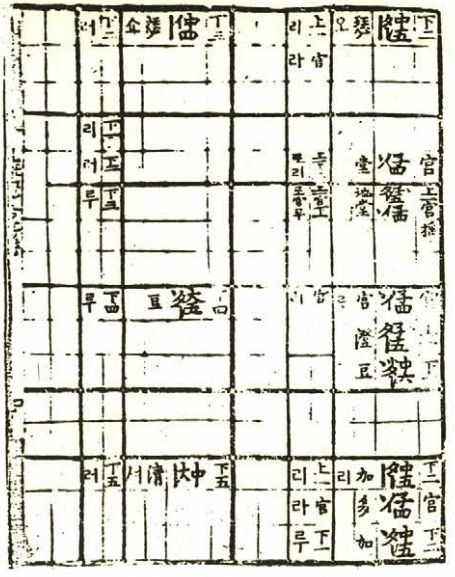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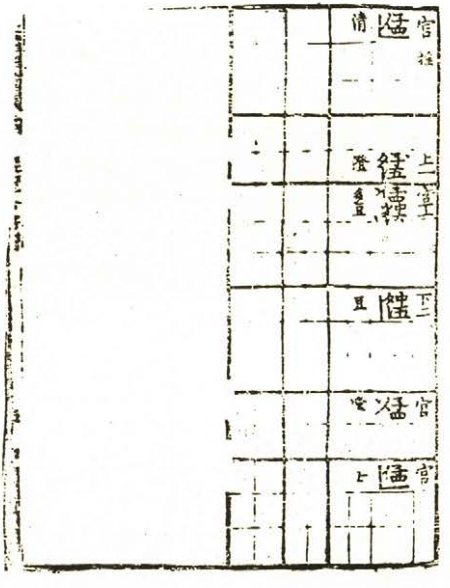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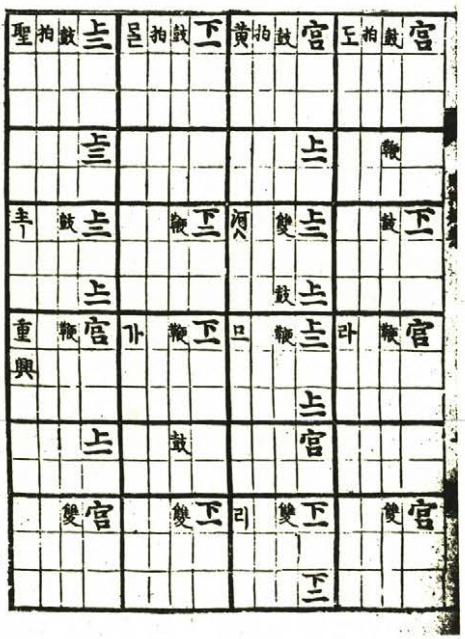
時用鄉樂譜

音樂

時用鄕樂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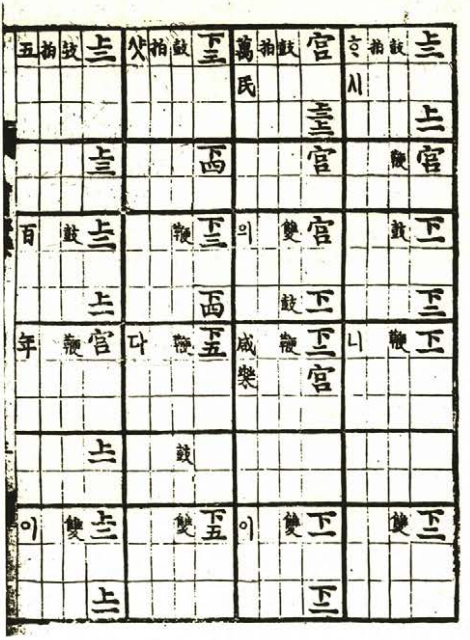
納氏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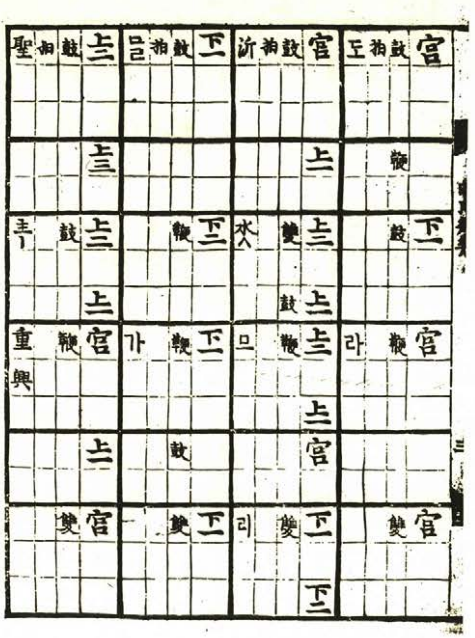
平調○歌詞只錄第一章其餘見歌詞冊他樂倣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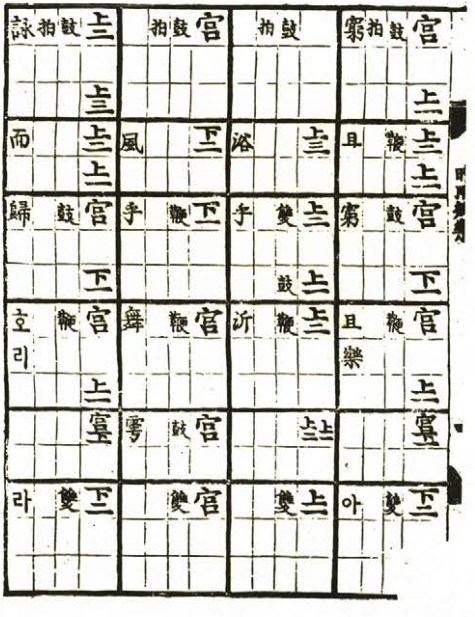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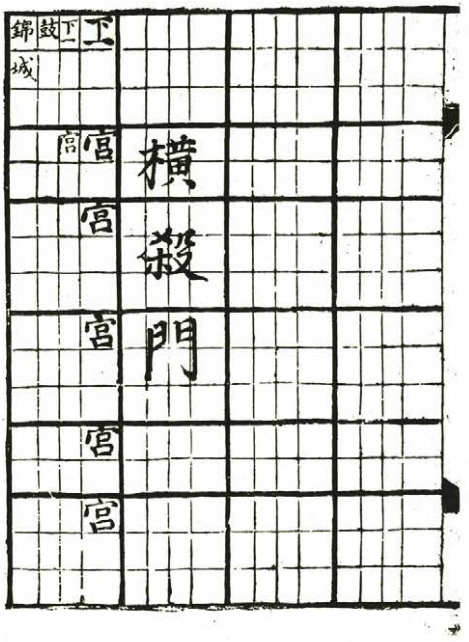
儒林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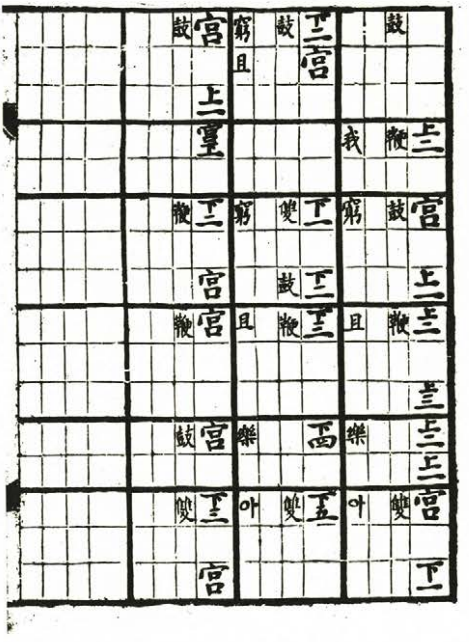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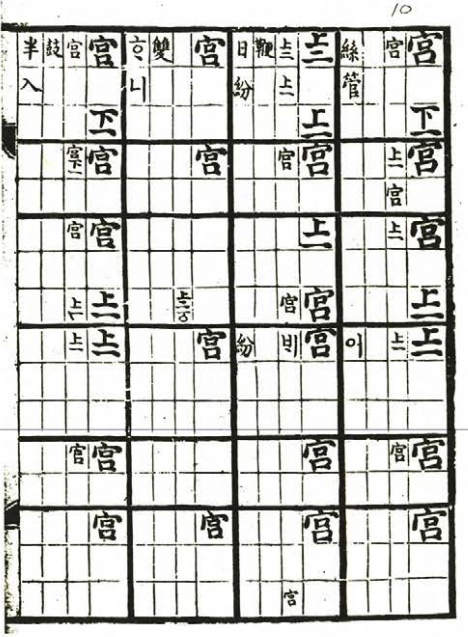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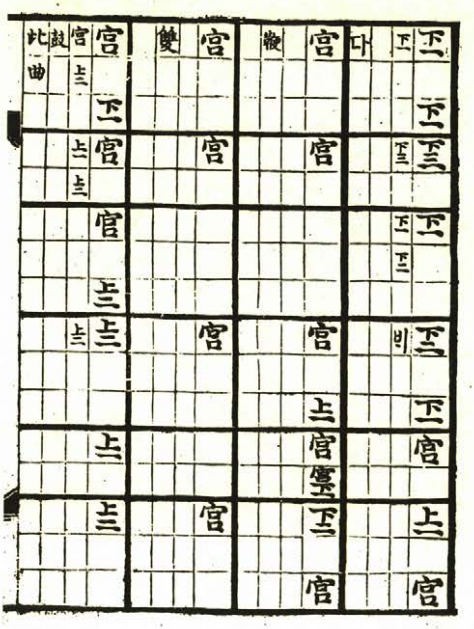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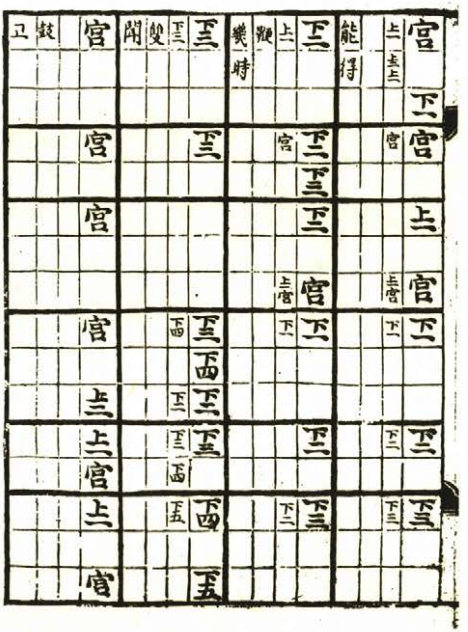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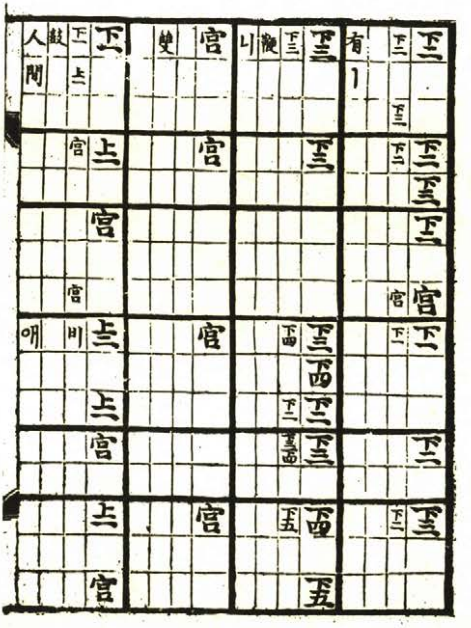

橫殺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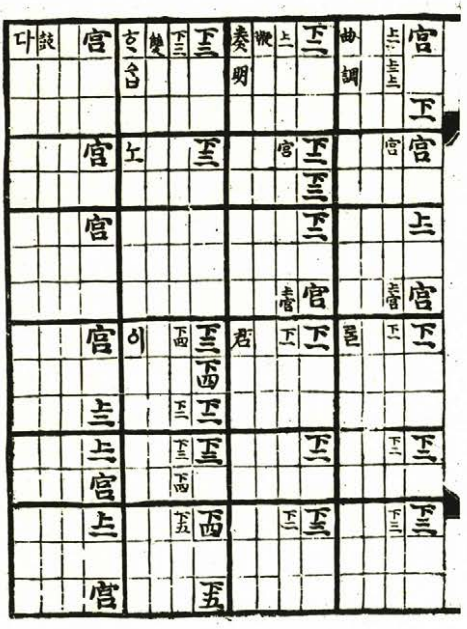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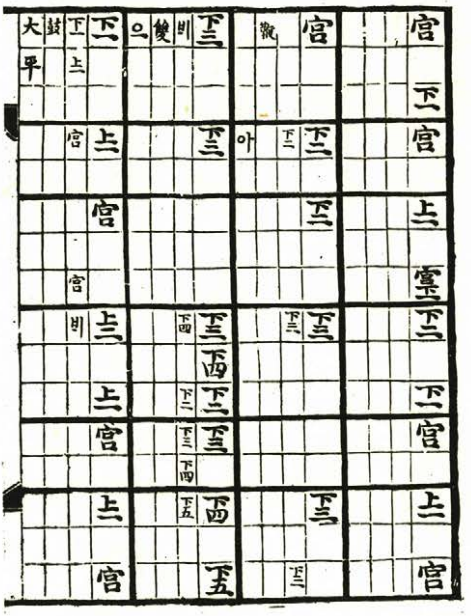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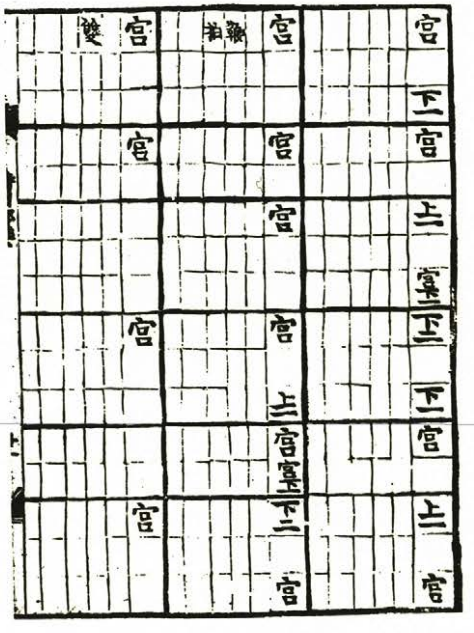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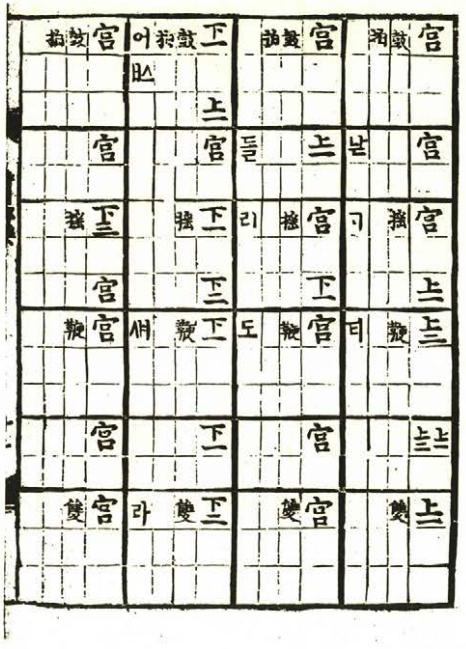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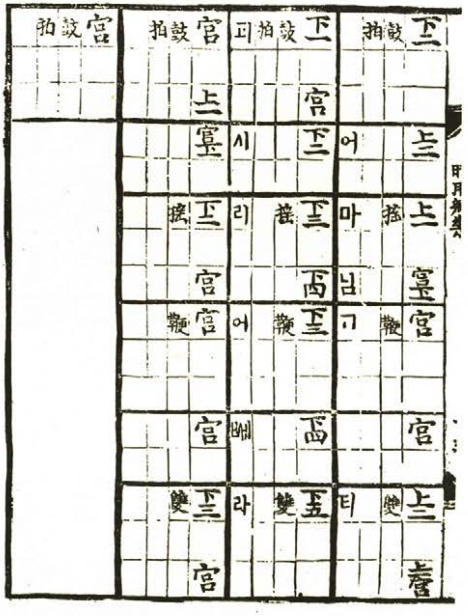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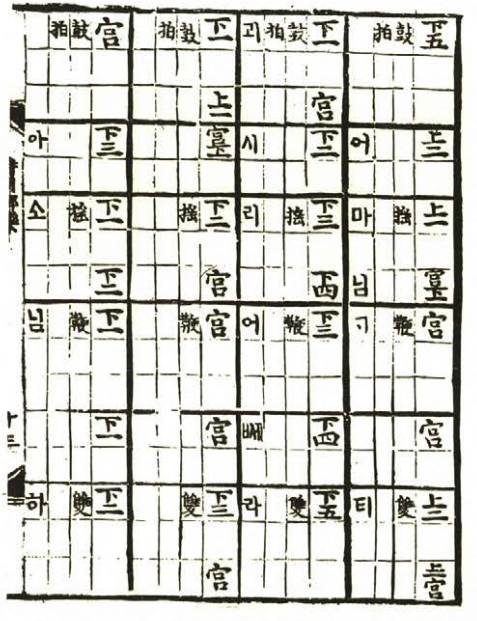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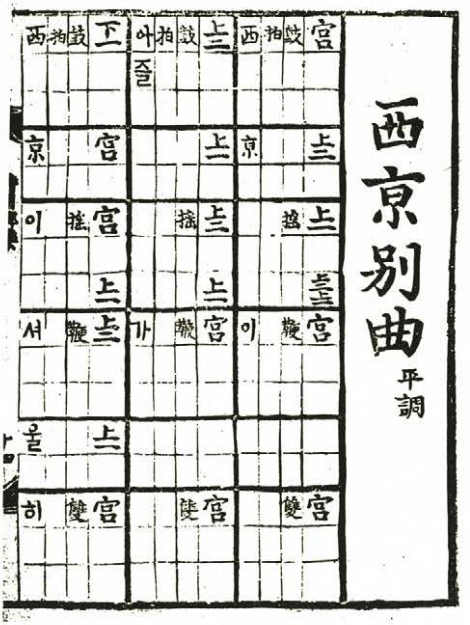
思母曲
俗撰엇노리○界面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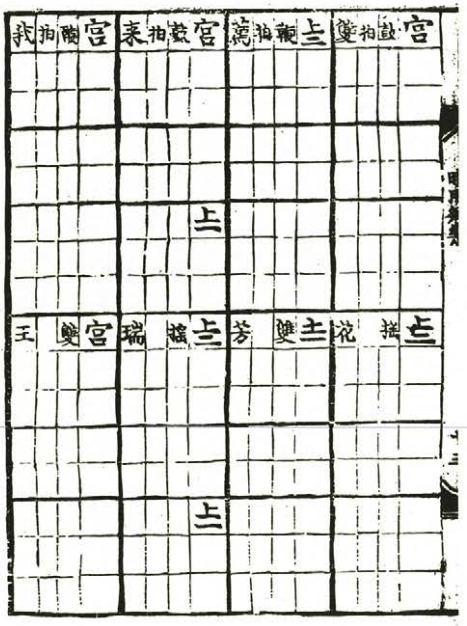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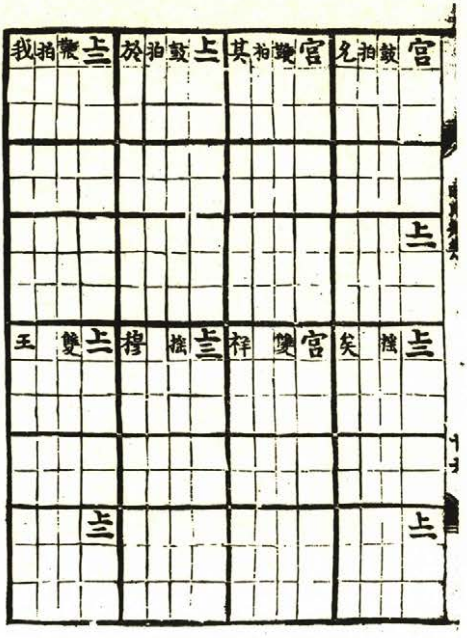
西京別曲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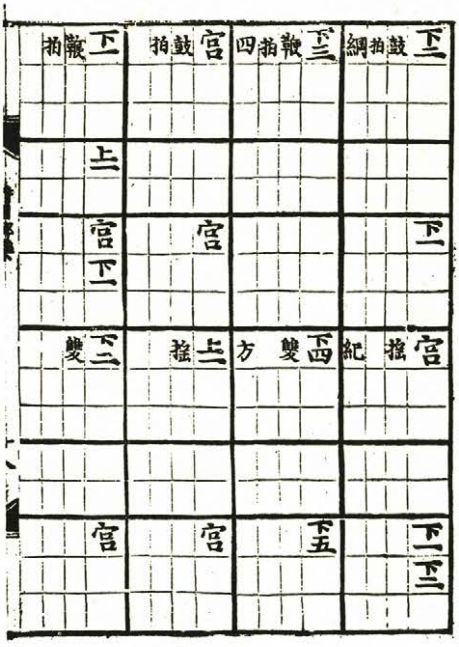
雙花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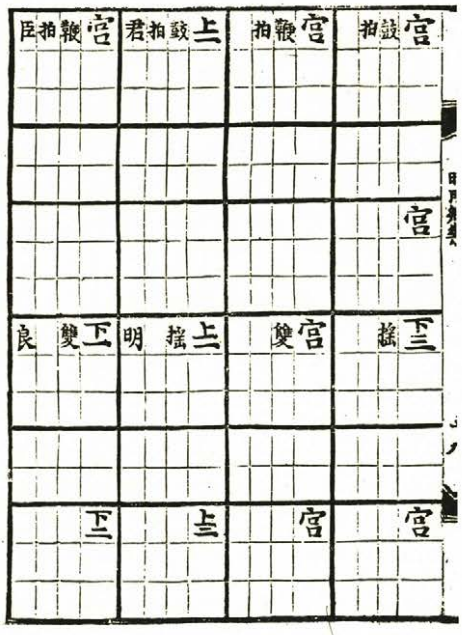
俗稱雙花店○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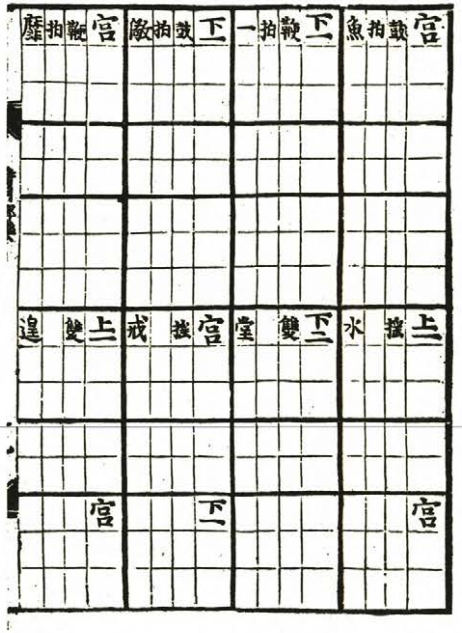

宮 鼓 拍 乞
上一 鞭 拍 我
上 鼓 拍 於
宮 鞭 拍 其
上一 鼓 拍 其
上一 鞭 拍 其
宮 鼓 拍 其
上一 鞭 拍 其
上一 鼓 拍 其
上一 鞭 拍 其
上一 鼓 拍 其
上一 鞭 拍 其
上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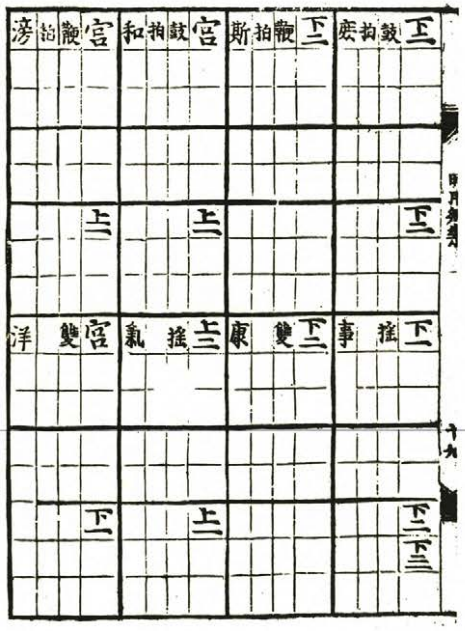
下二	鼓	拍	綱	下三	鞭	拍	四	宮	鼓	拍	下一	鞭	拍		
											上				
下一								宮			宮				
											下一				
宮	搖		紀	下四	雙		方	上二	搖		下二	雙			
下一				下五				宮			宮				
下二															

宮	鼓	拍		宮	鞭	拍		上	鼓	拍	君	宮	鞭	拍	臣
宮															
下三	搖			宮	雙			上二	搖		明	下一	雙		良
宮				宮				上三				下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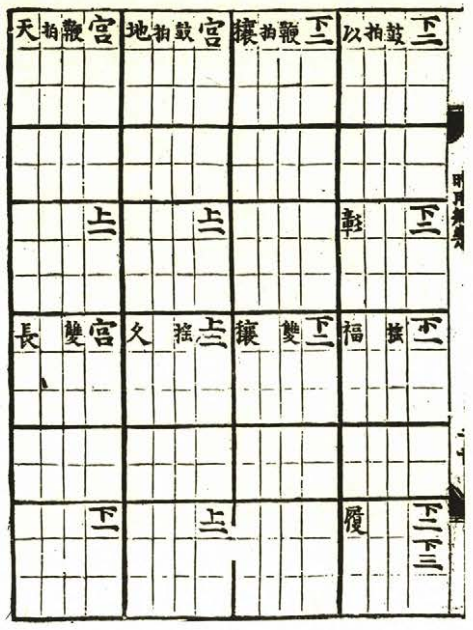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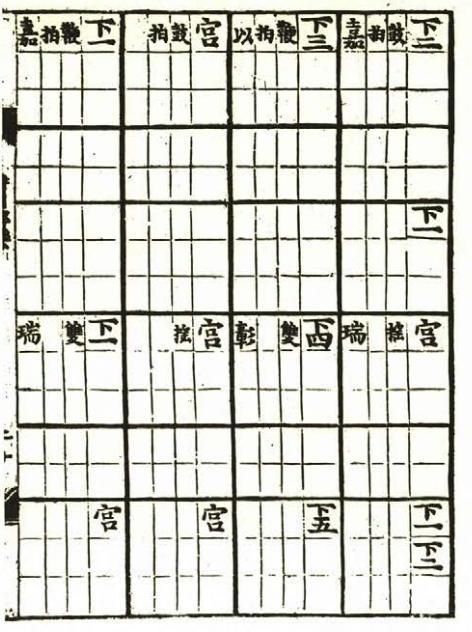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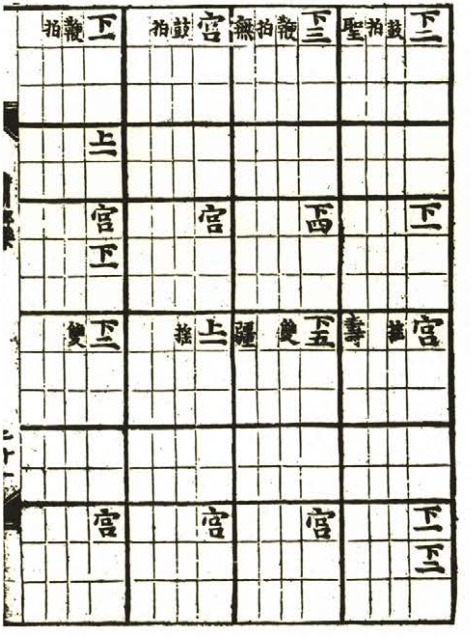
宮	鼓	拍	魚	下一	鞭	拍	一	下一	鼓	拍	敵	宮	鞭	拍	靡
上二	搖		水	下二	雙		堂	宮	搖		戒	上二	雙		遑
宮								下一				宮			

下二	鼓	拍	庶	下二	鞭	拍	斯	宮	鼓	拍	和	宮	鞭	拍	滂
下二								上二				上二			
下一	搖		事	下二	雙		康	上三	搖		氣	宮	雙		洋
下二								上二				下一			
下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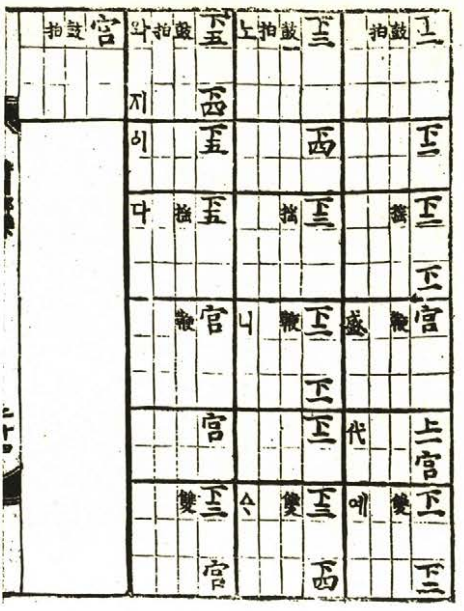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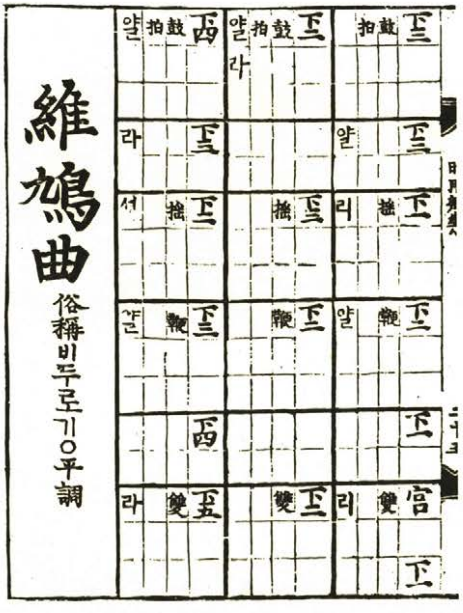
儺禮歌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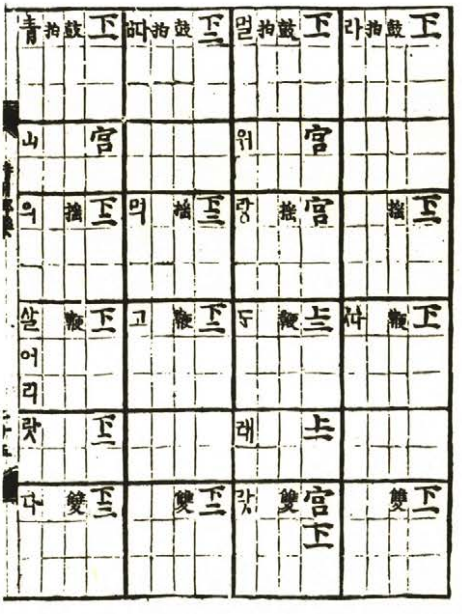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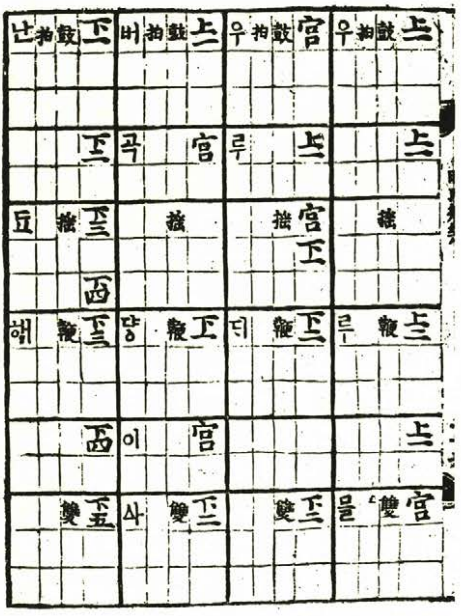
鄭石歌
平調界面調通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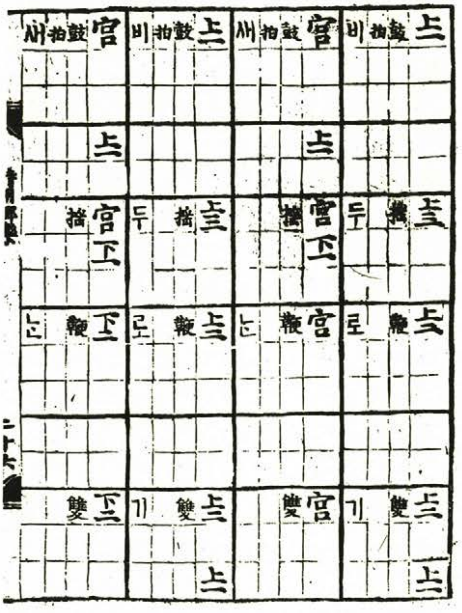
青山別曲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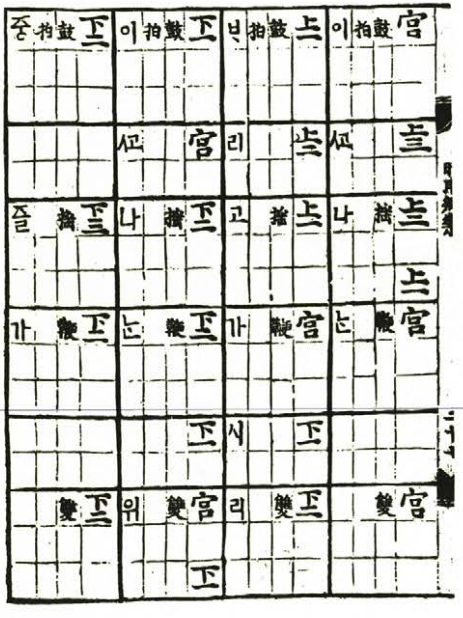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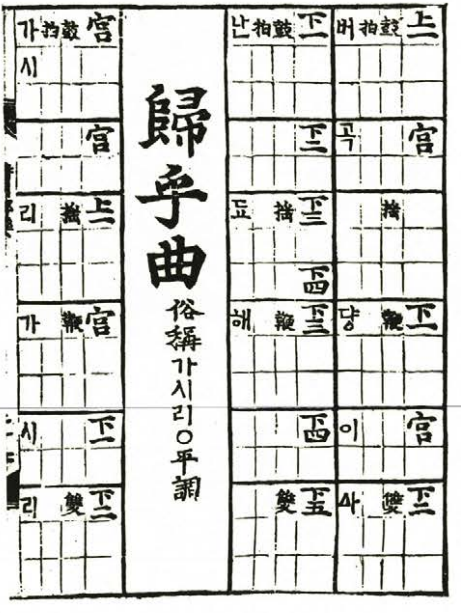

維鳩曲
俗稱비두로기○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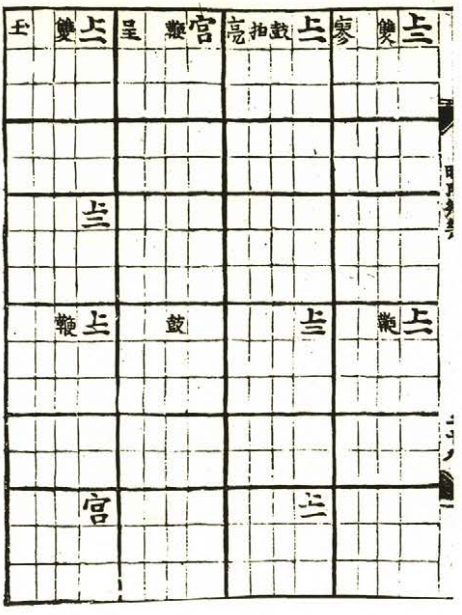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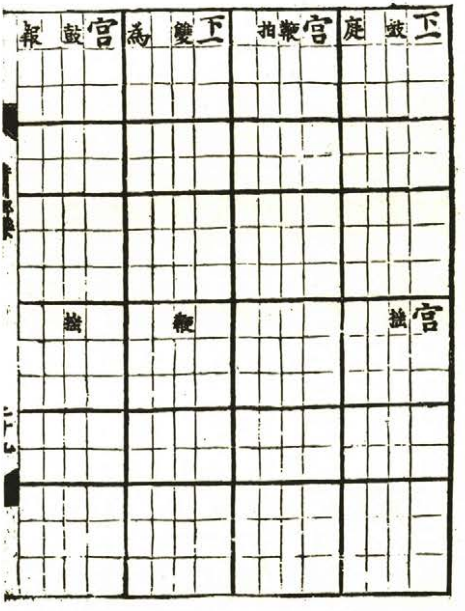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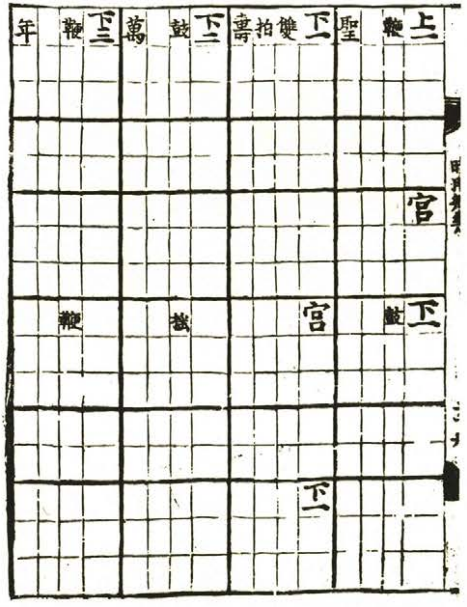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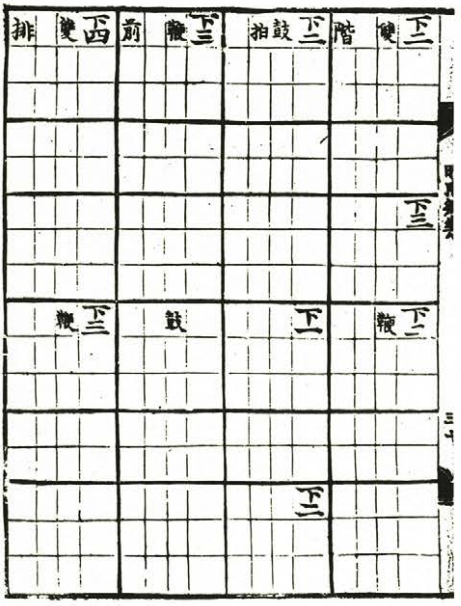

歸乎曲
俗稱가시리○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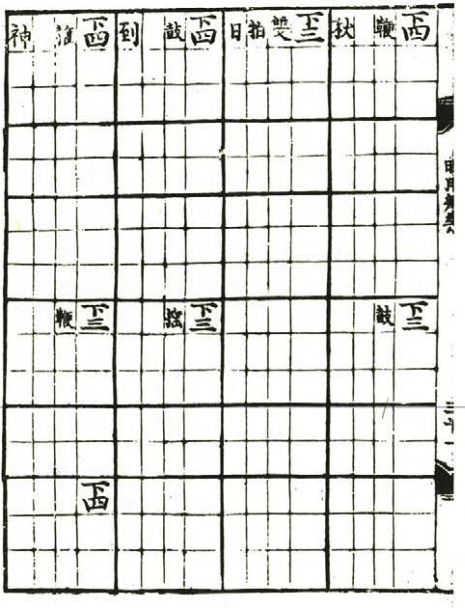
笙歌寥亮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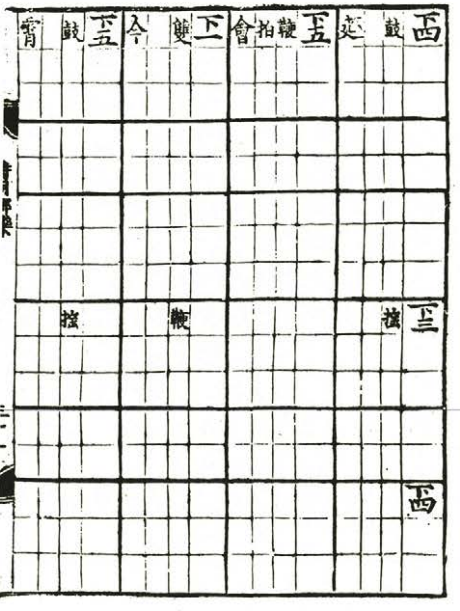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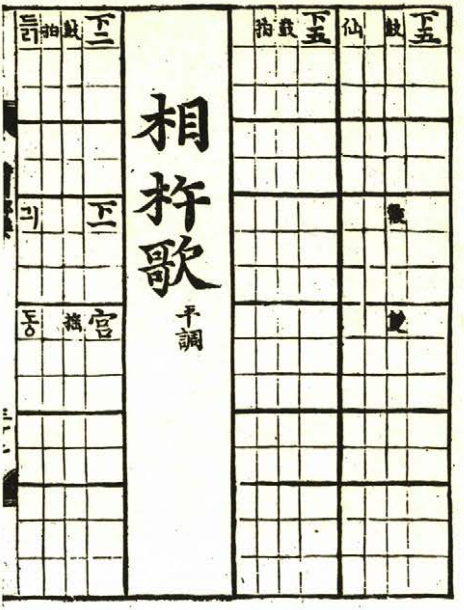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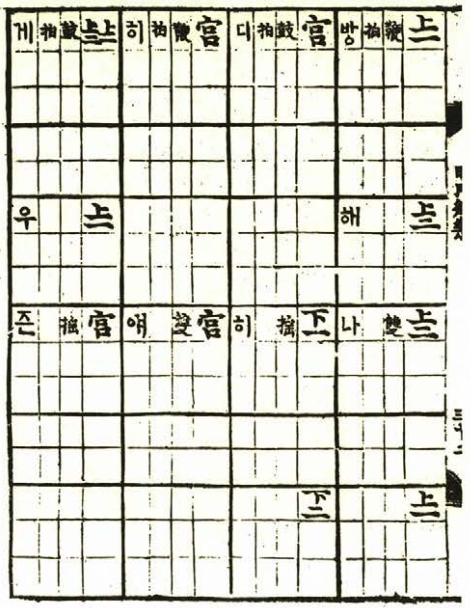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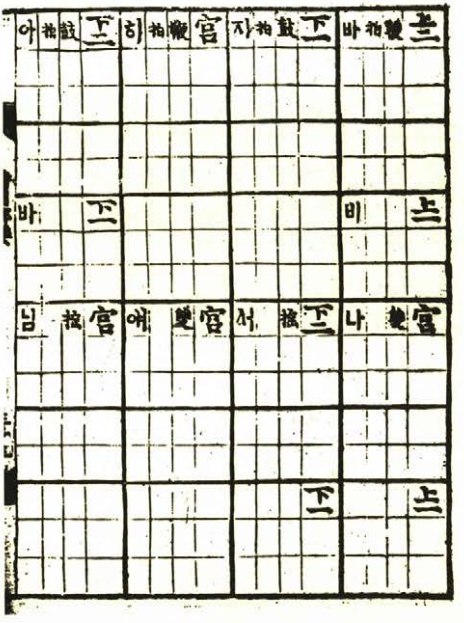

下二 鼓 萬
下二 鼓 拍 壽
下二 鼓 玉
下一 鞭 殿
鞭
下一 雙 萬
搖
宮 鼓
宮
下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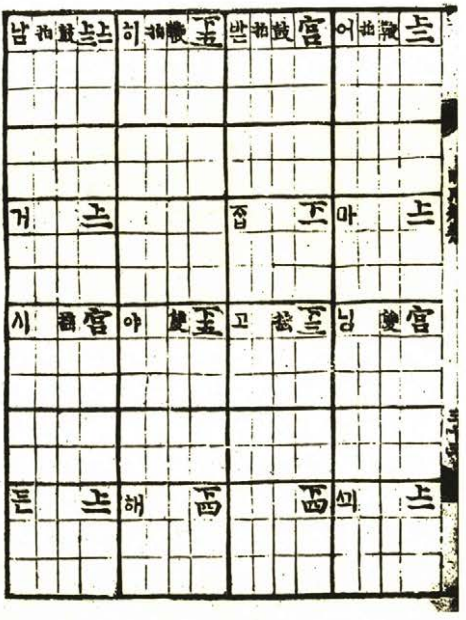

下四 鞭 秋
下三 雙 拍 日
下四 鼓 到
下四 搖 神
下三 鼓
下三 搖
下三 鞭
下四


下四 鼓 延
下五 鞭 拍 會
下一 雙 今
下五 鼓 霄
下三 搖
鞭
搖
下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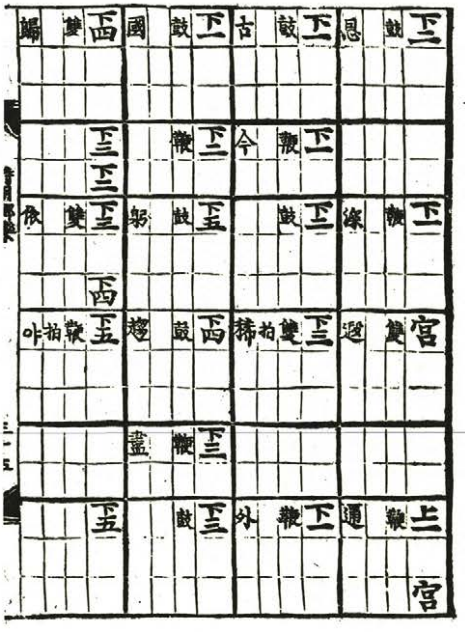

相杵歌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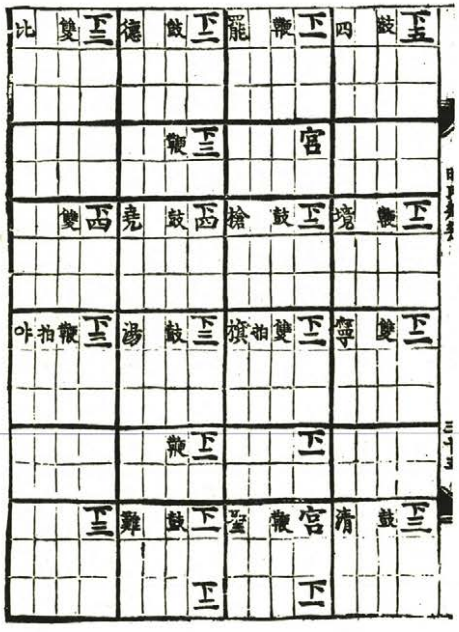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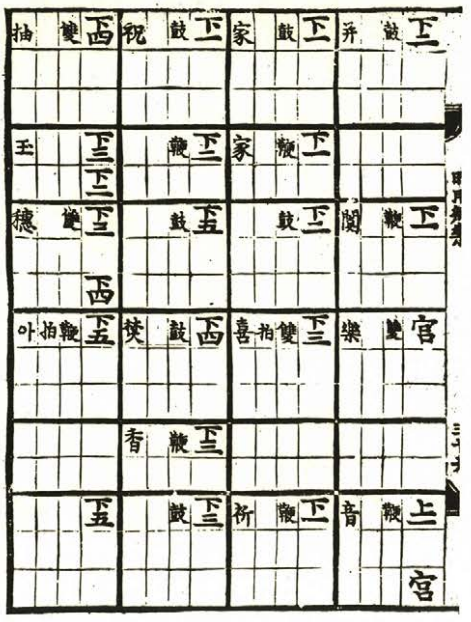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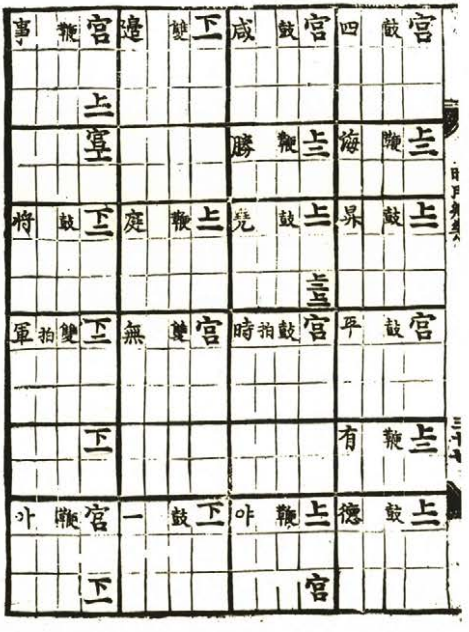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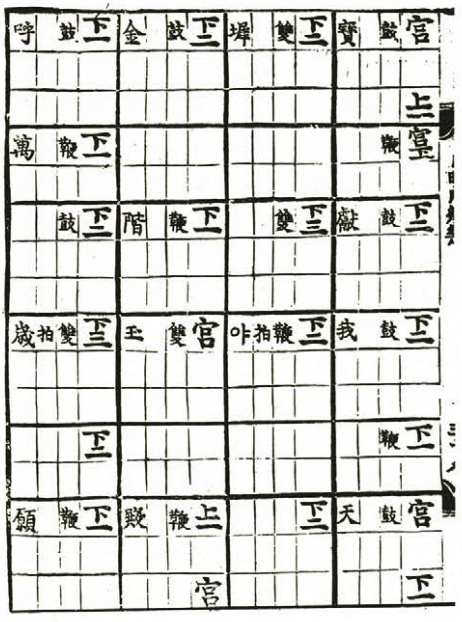
風入松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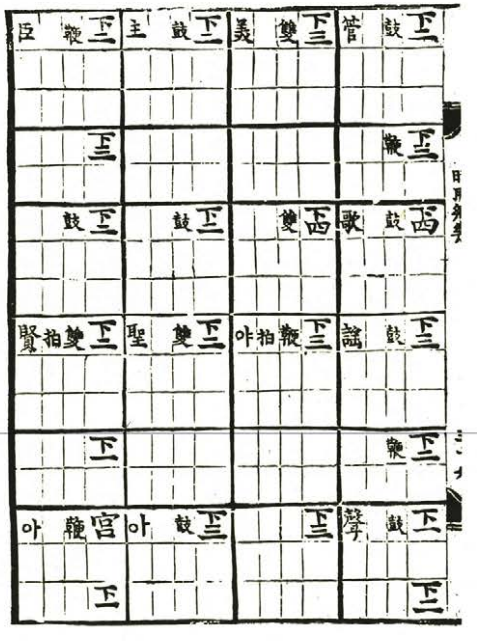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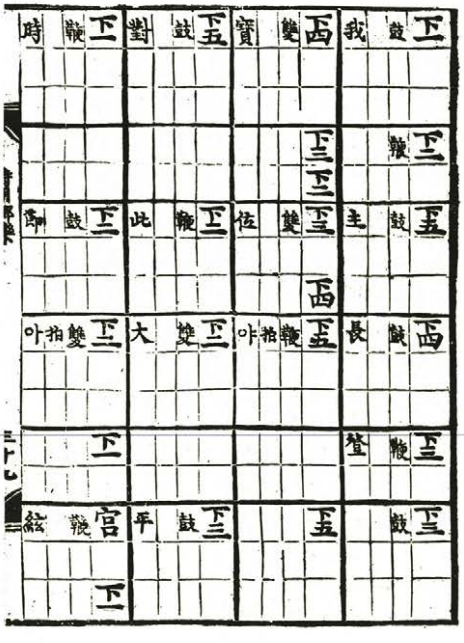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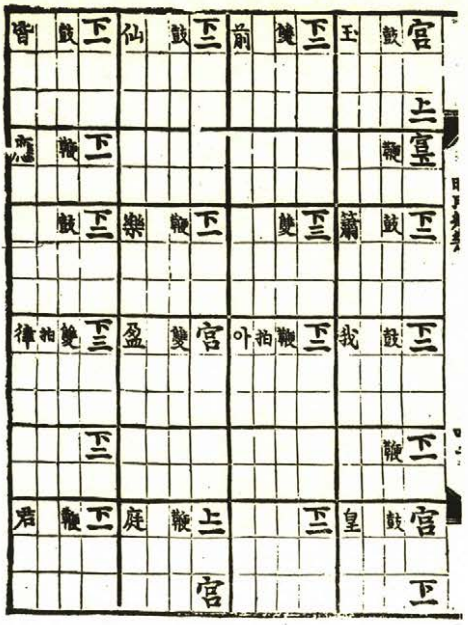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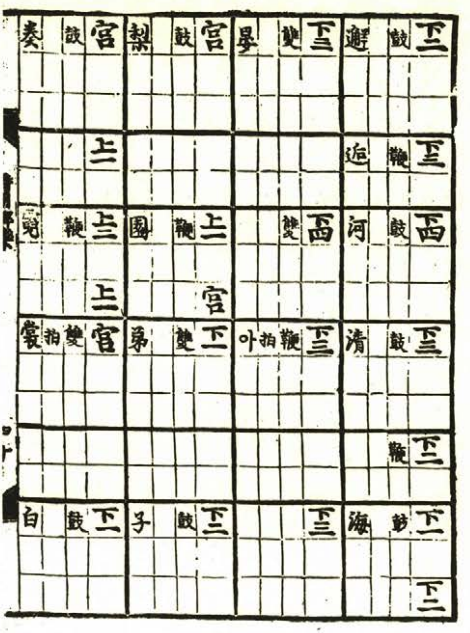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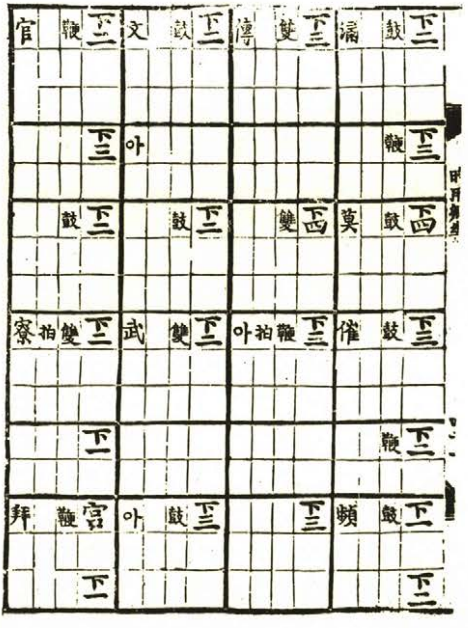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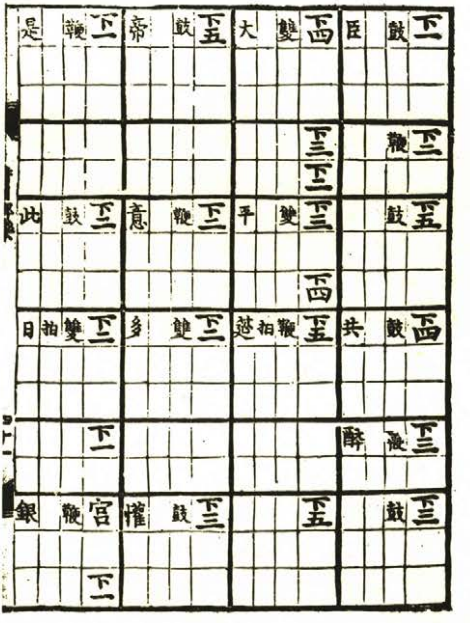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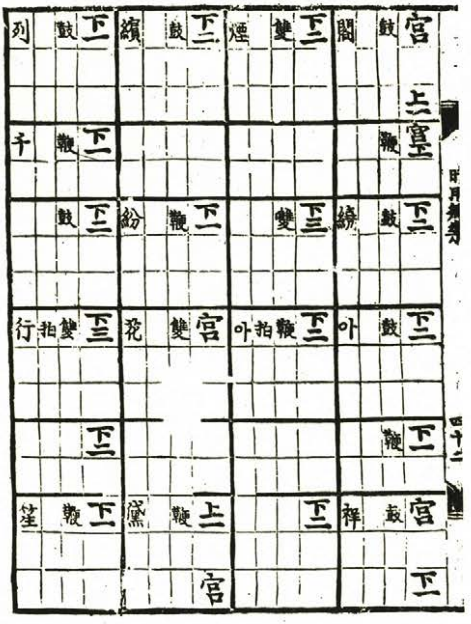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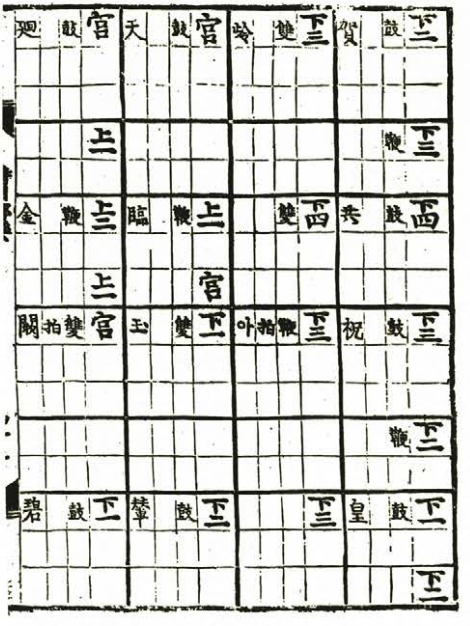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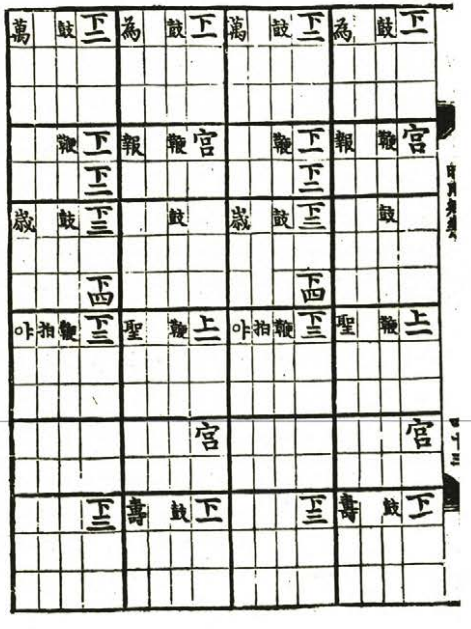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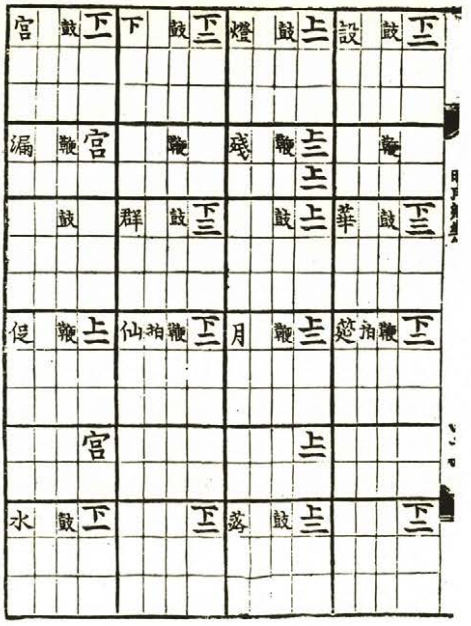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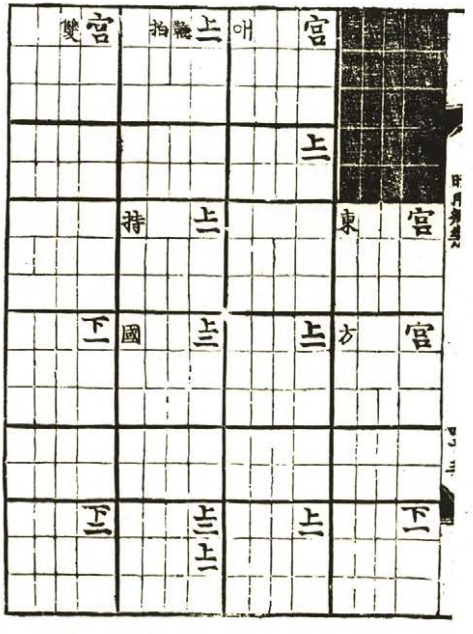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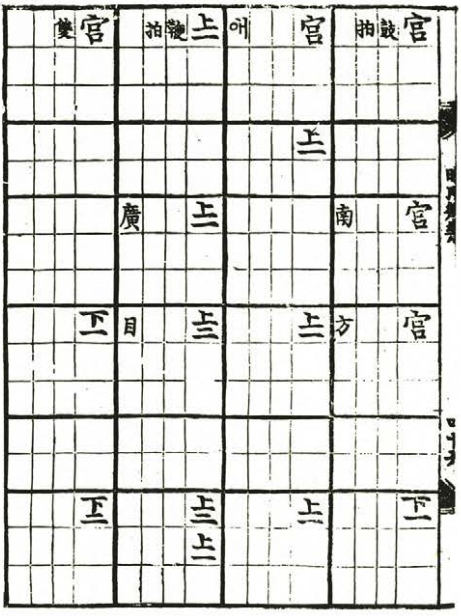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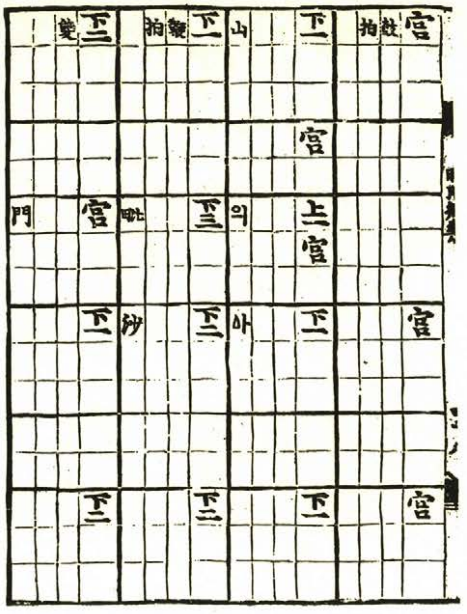
夜深詞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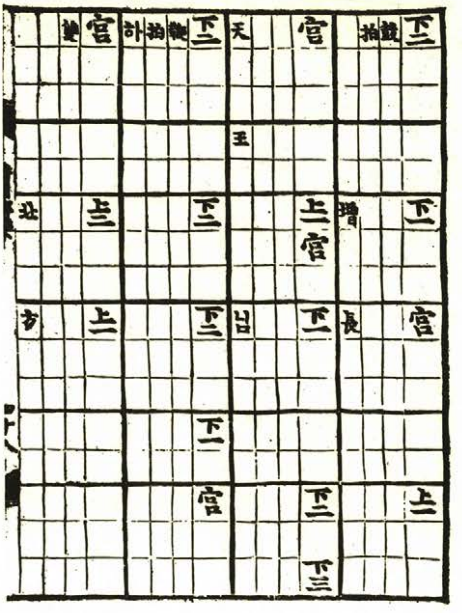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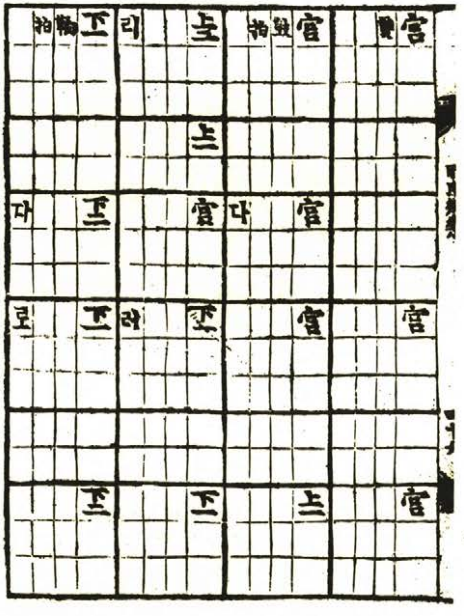
城皇飯
界面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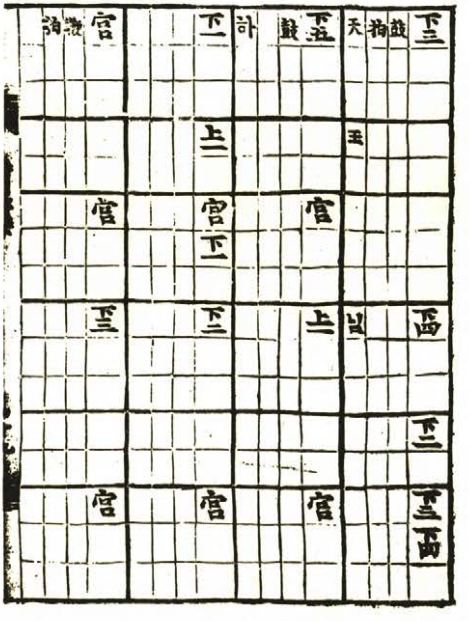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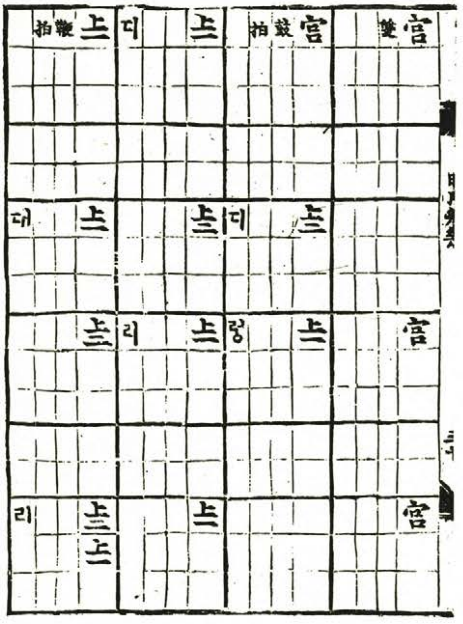

宮 鼓拍 下三
宮 上二
宮 天 宮
宮 王 宮
宮 下一
宮 日 宮 下 拍 鞭 宮 變
宮 上二
宮 南 宮
宮 方 宮
宮 下一
宮 上二 上二
宮 上二
宮 上二 上二
宮 下一
宮 上二 上二
宮 上二
宮 上二 上二
宮 上二 上二
宮 上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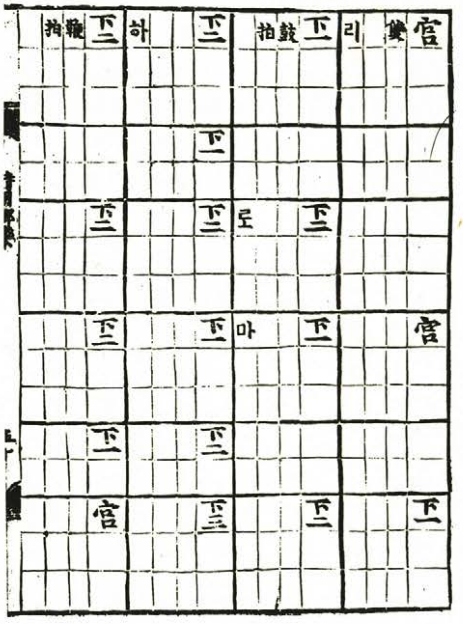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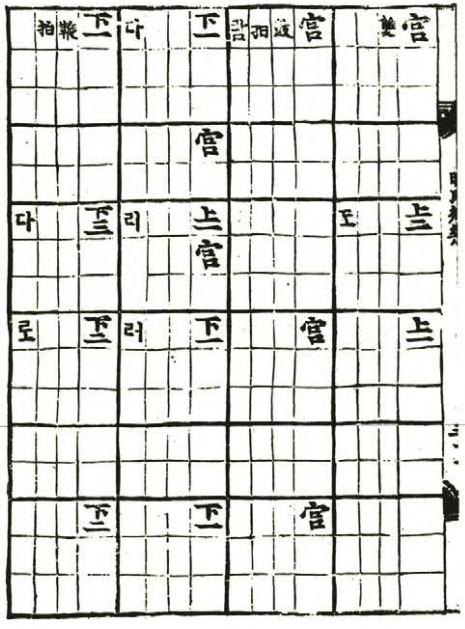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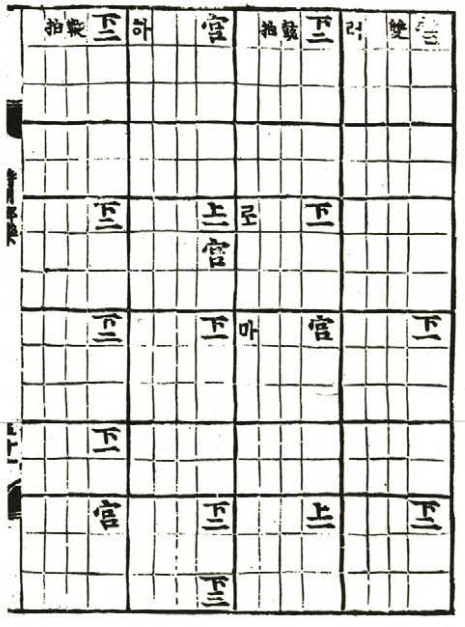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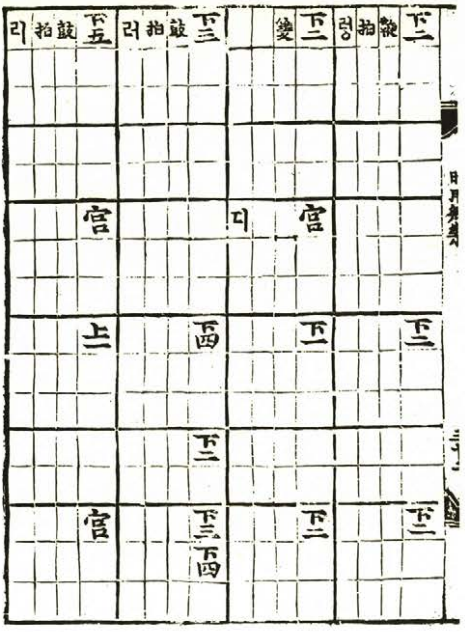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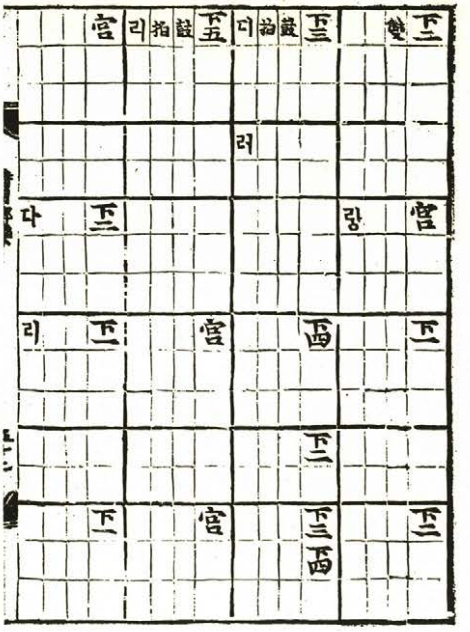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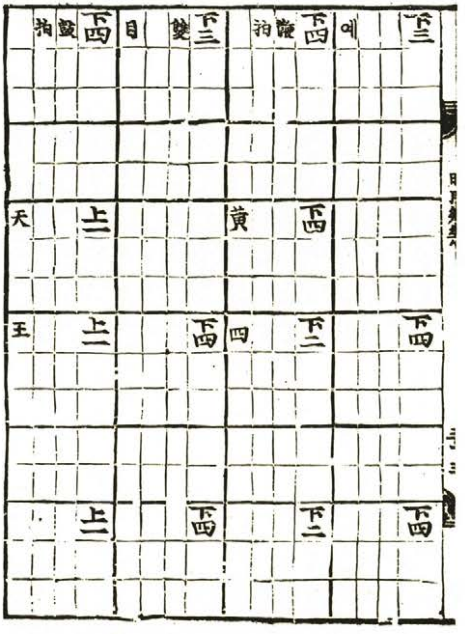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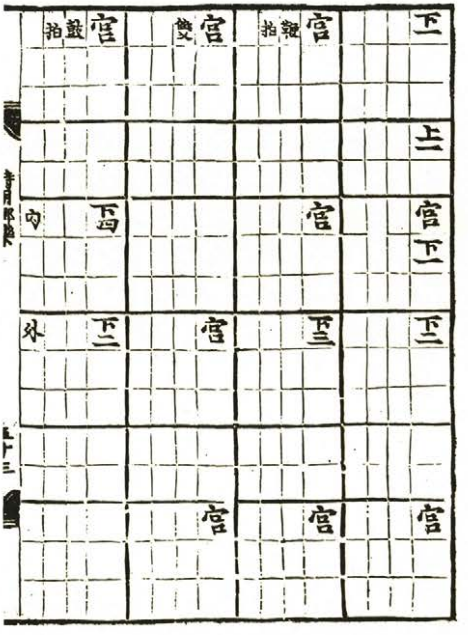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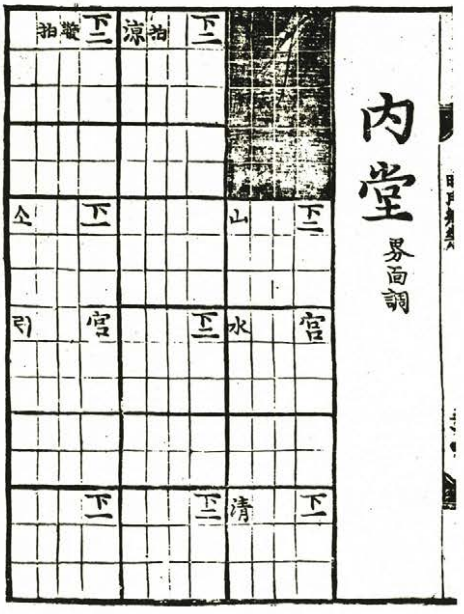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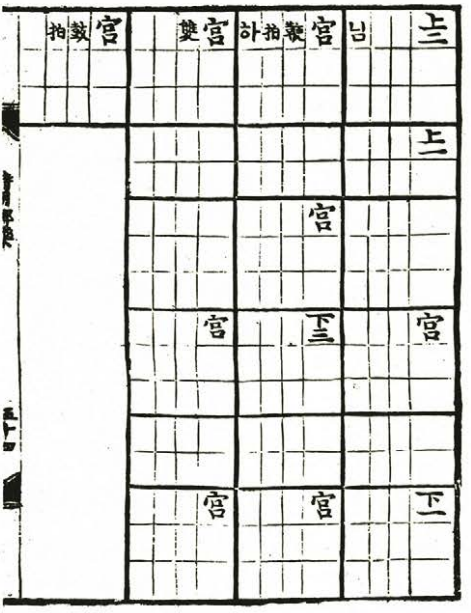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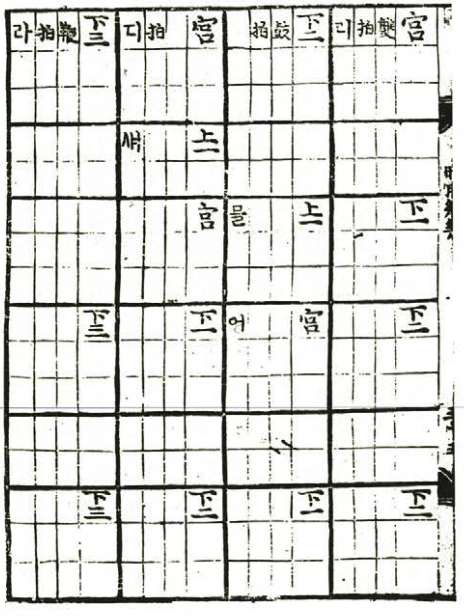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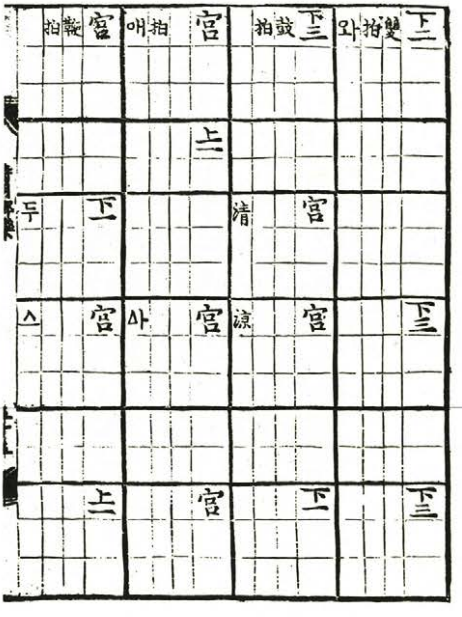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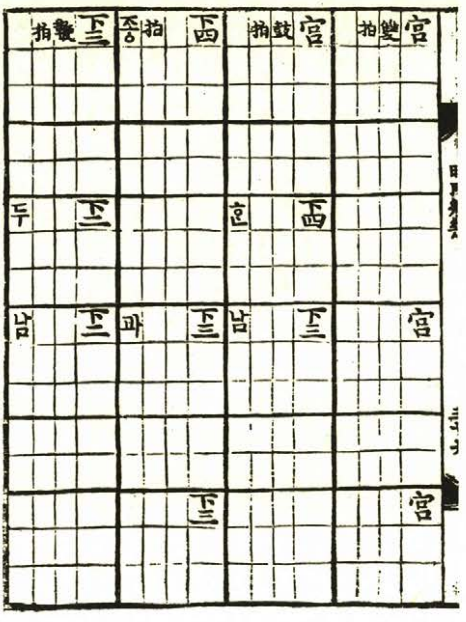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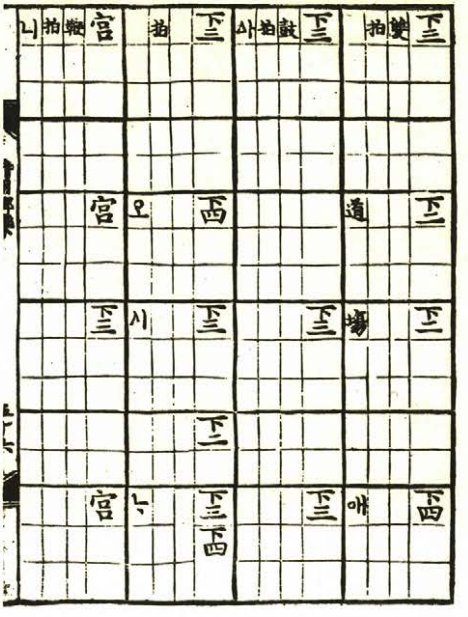

內堂
界面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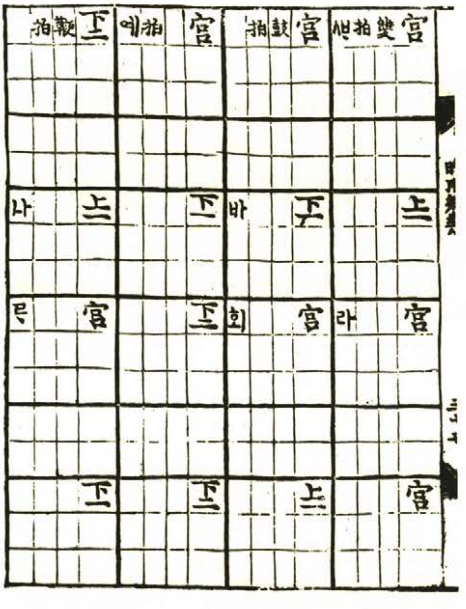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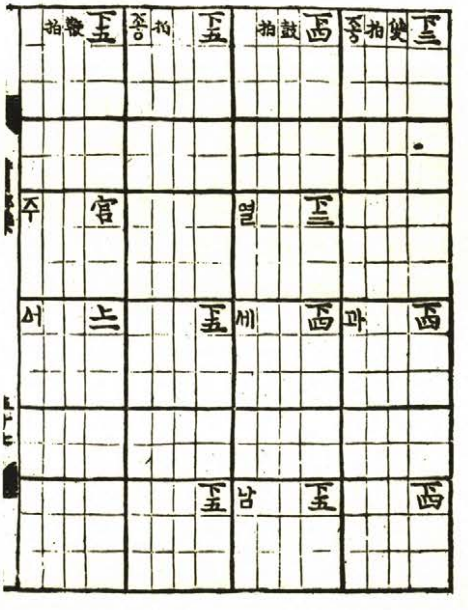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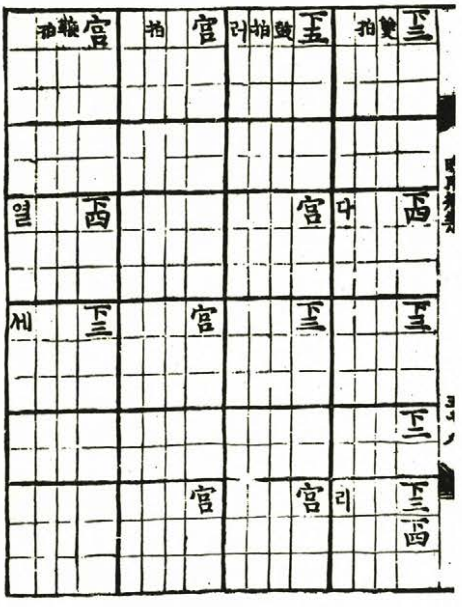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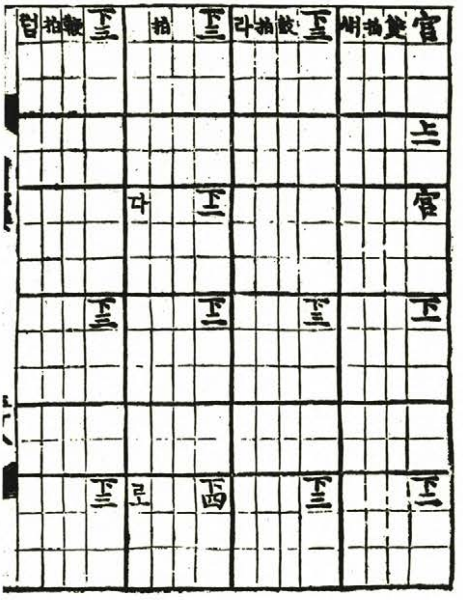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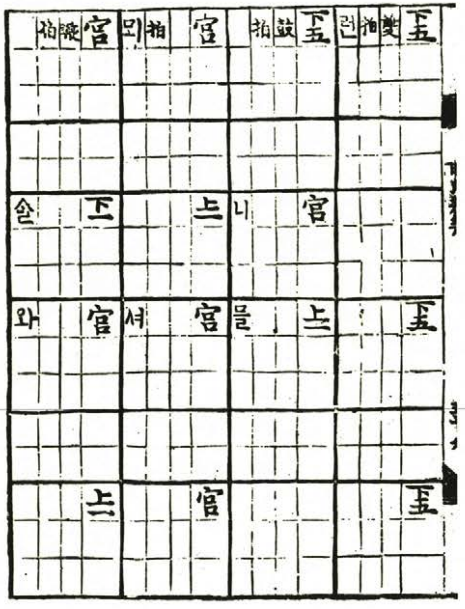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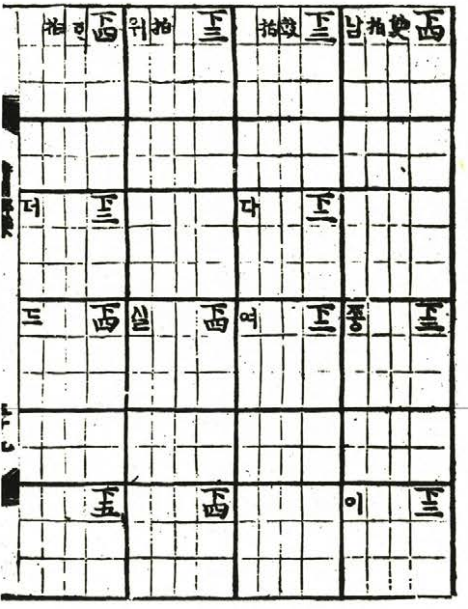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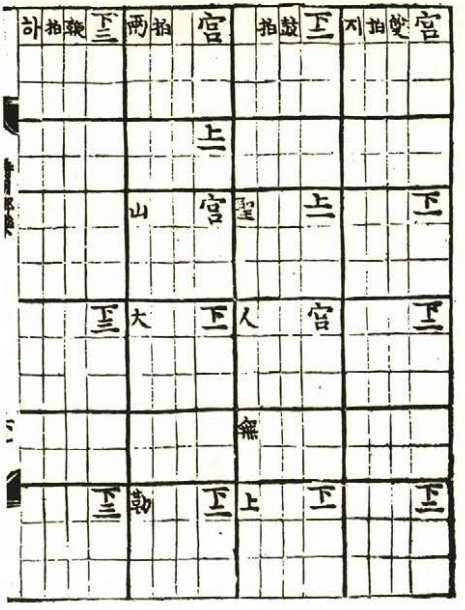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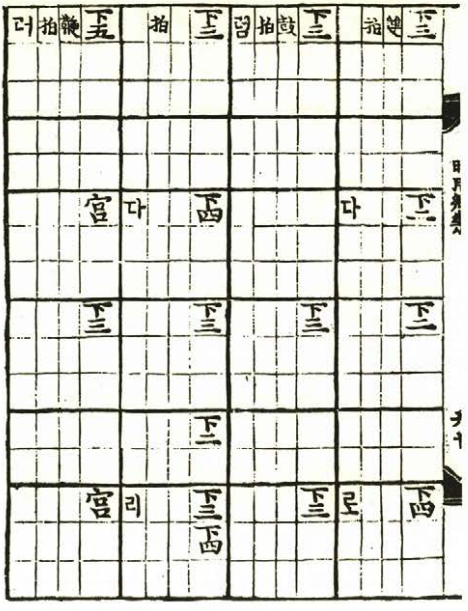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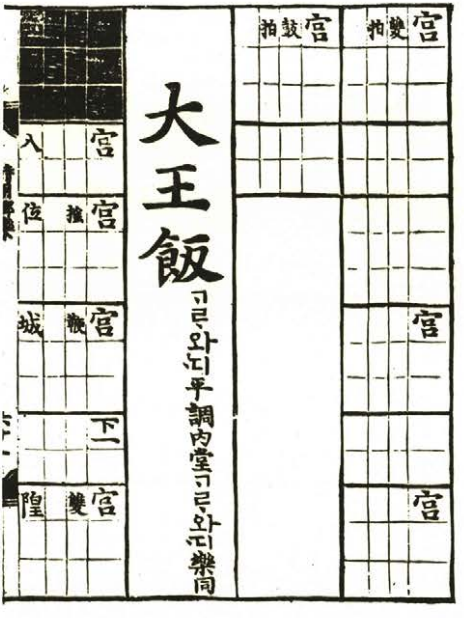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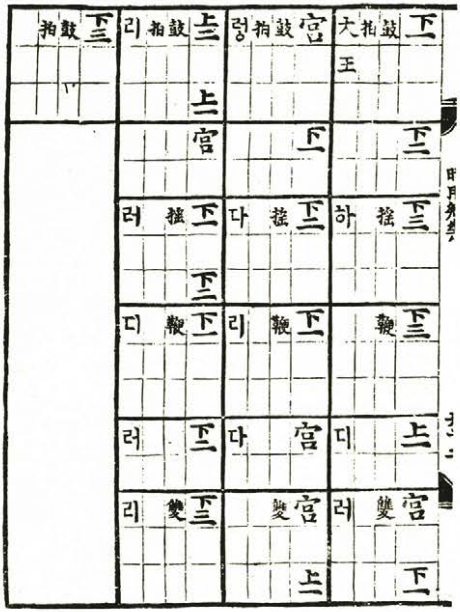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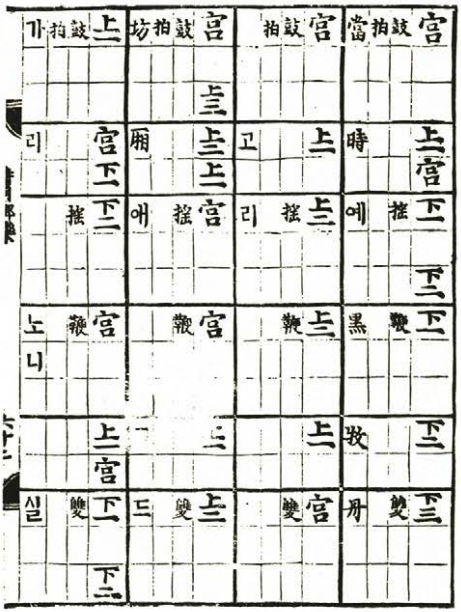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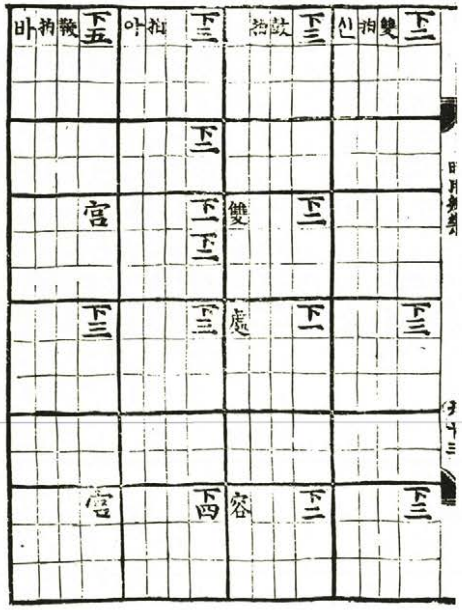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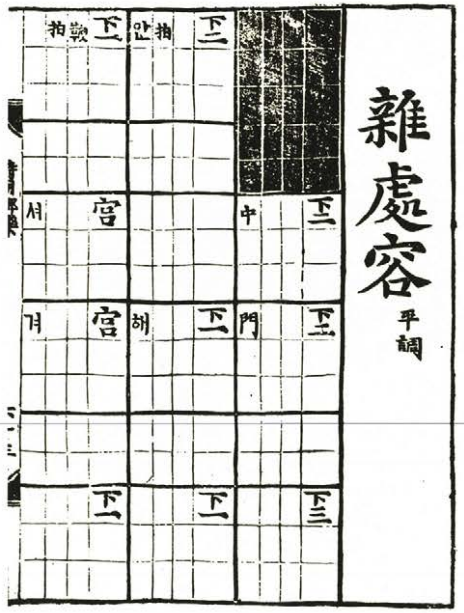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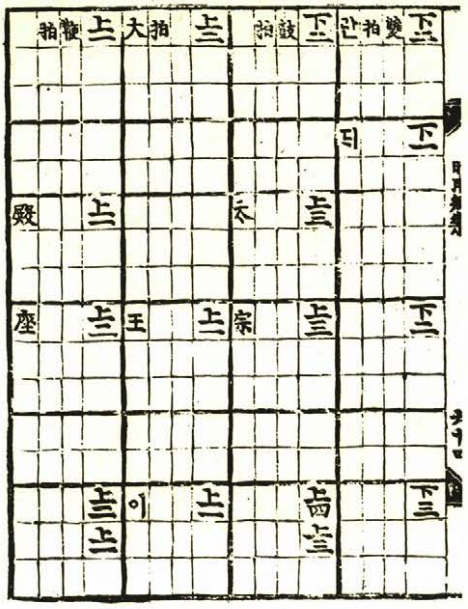

大王飯
그른와니무調內堂그른와니樂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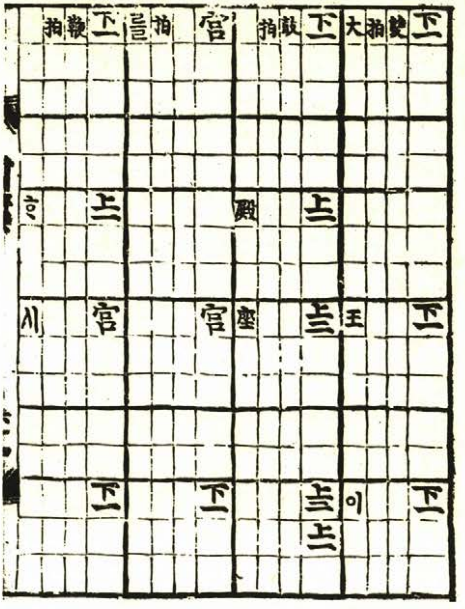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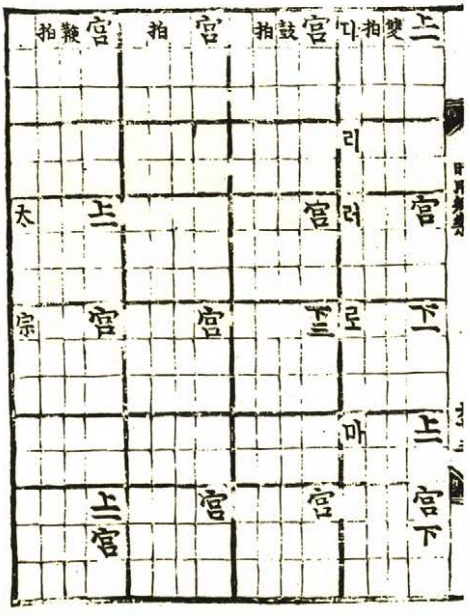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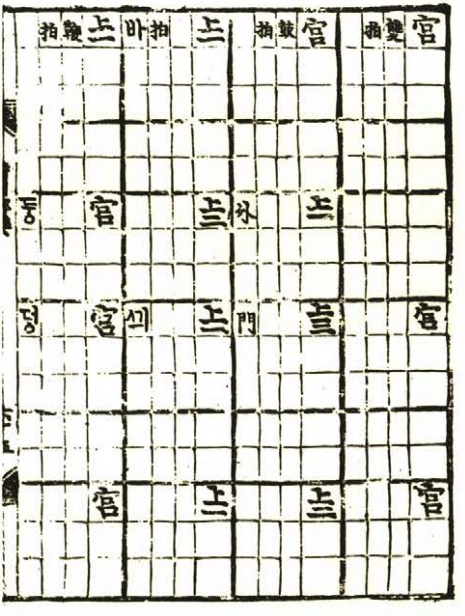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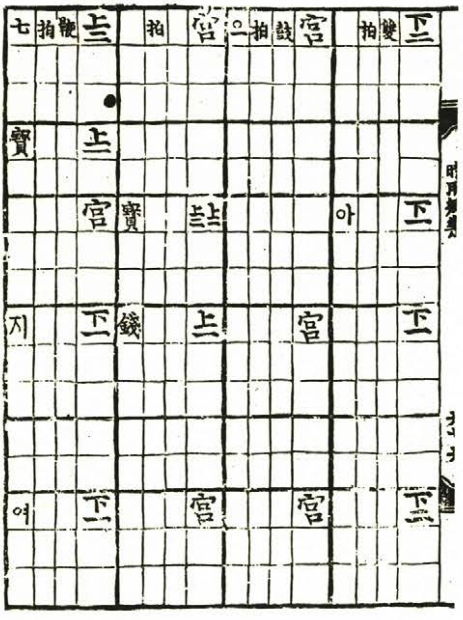

雜處容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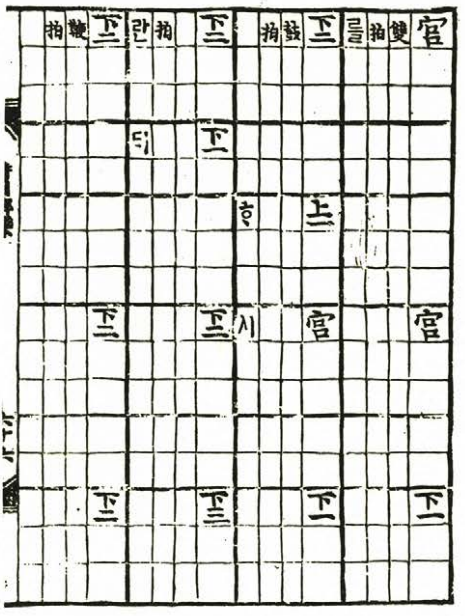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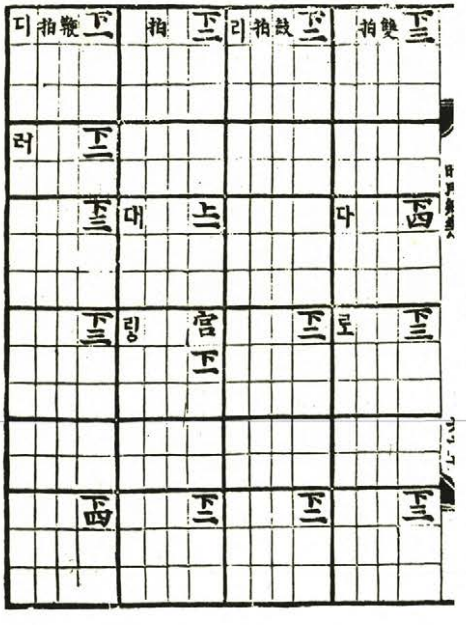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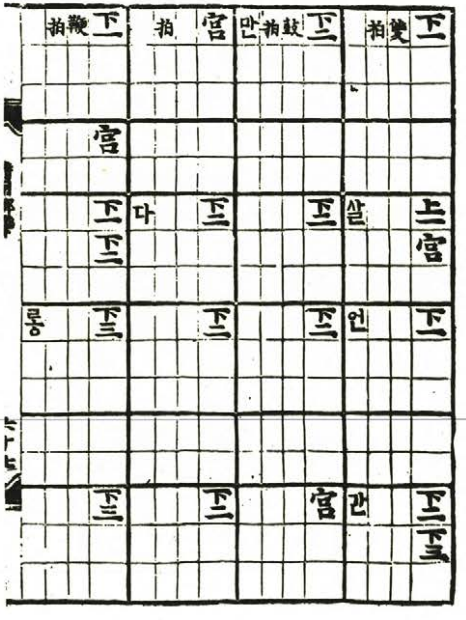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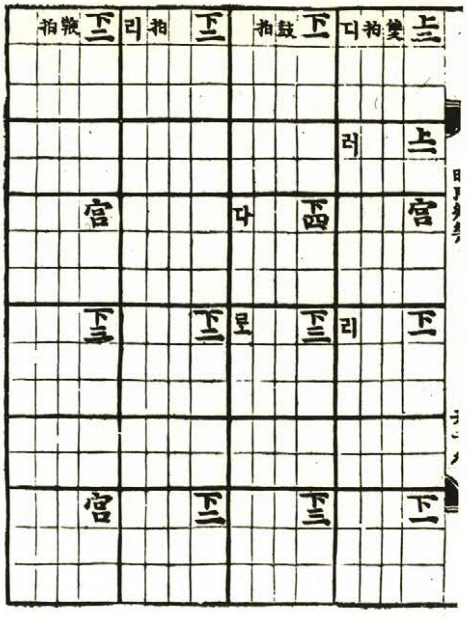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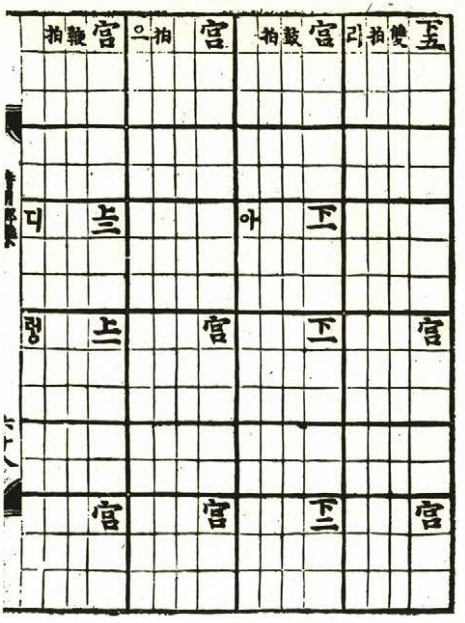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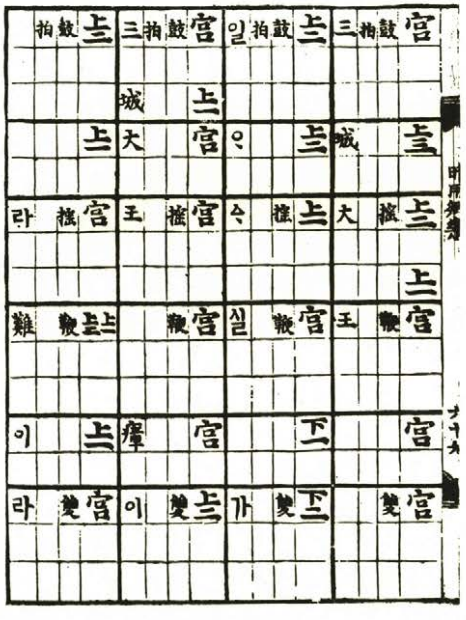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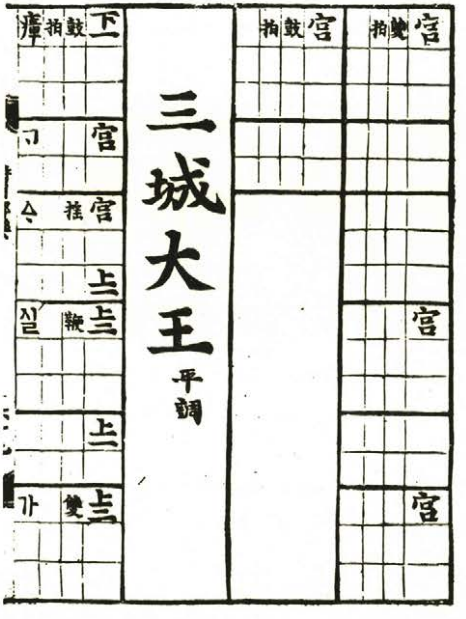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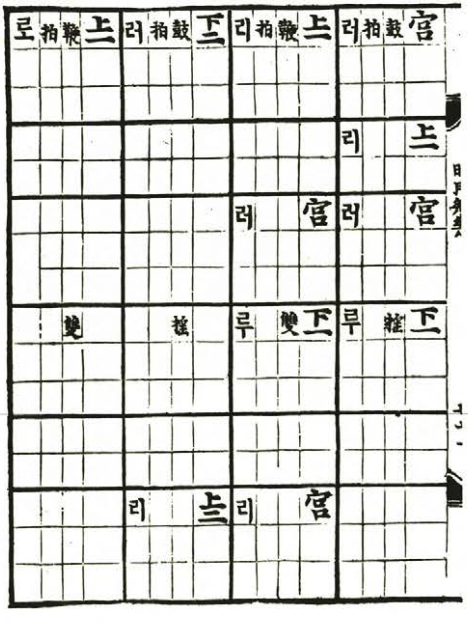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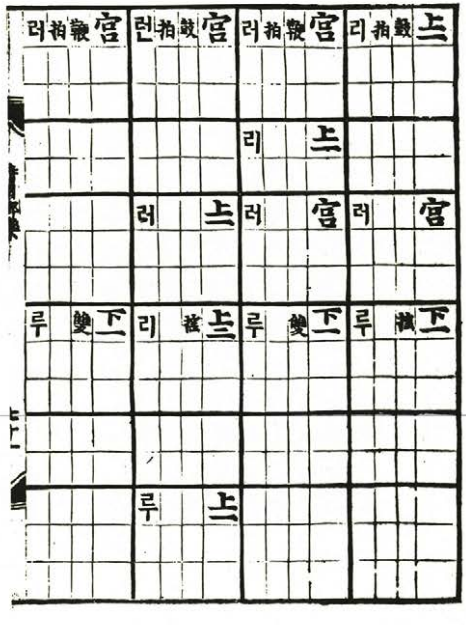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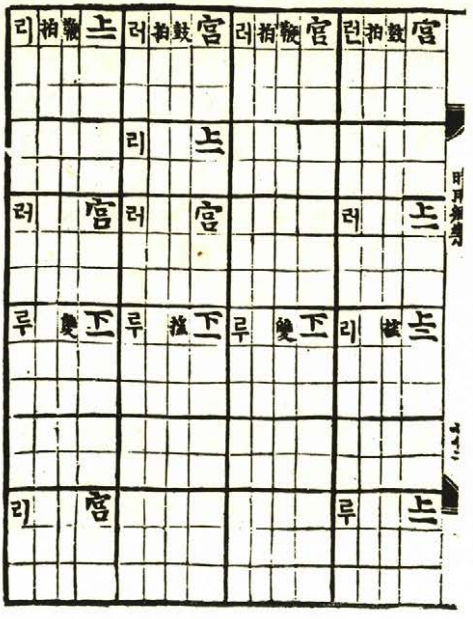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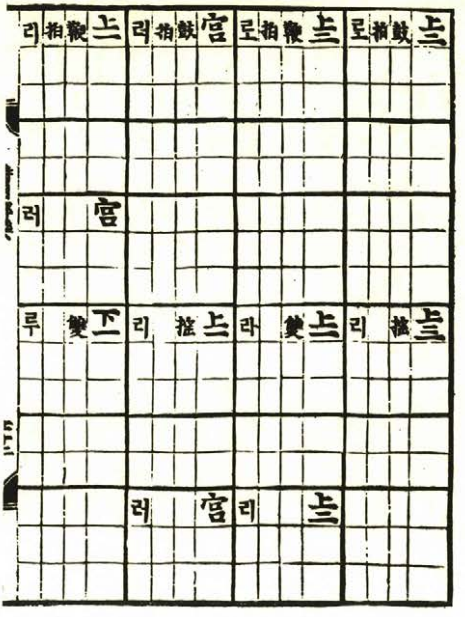

三城大王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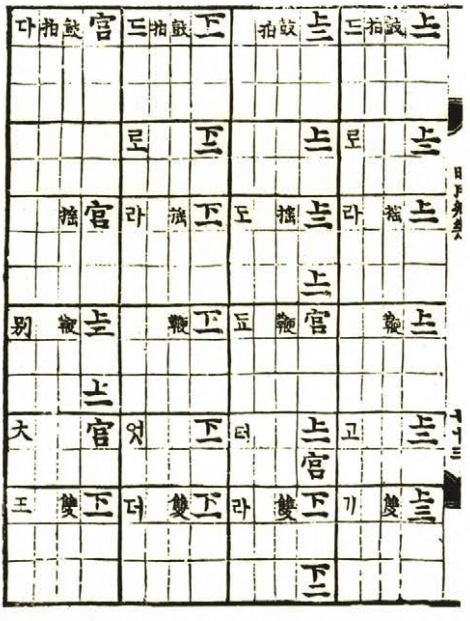
軍馬大王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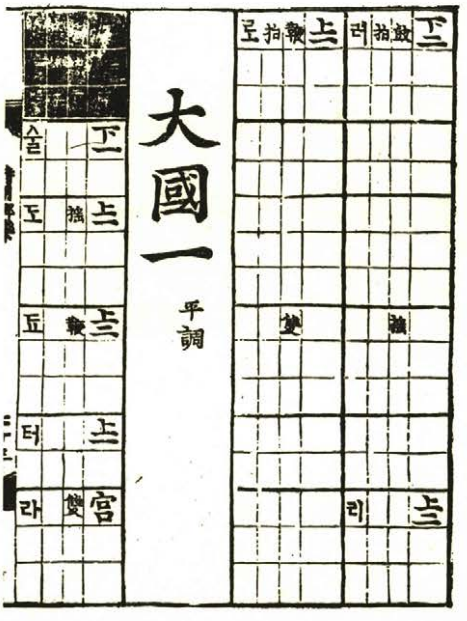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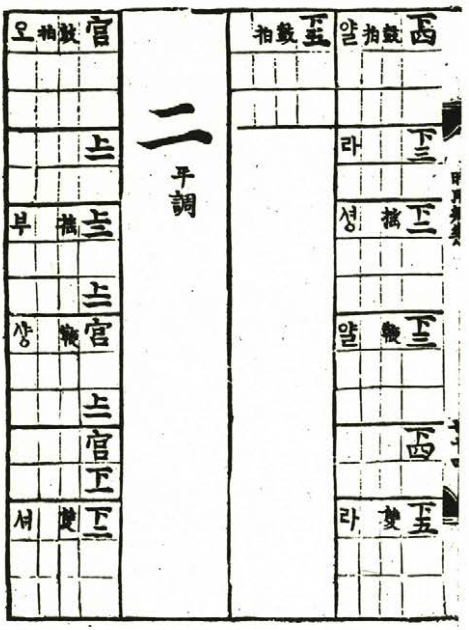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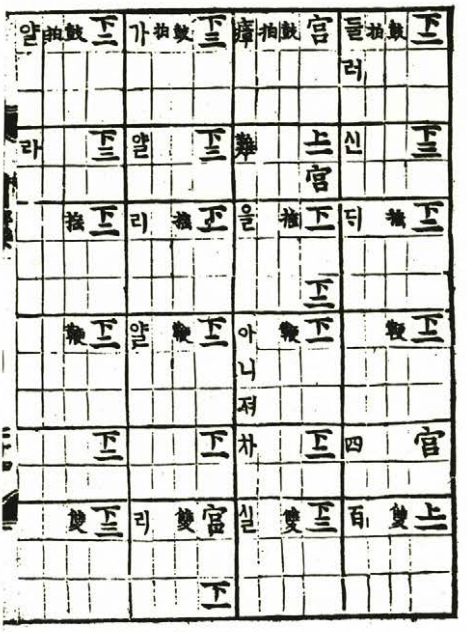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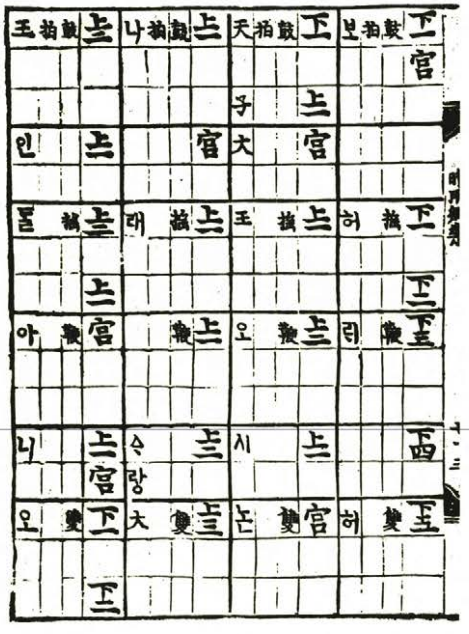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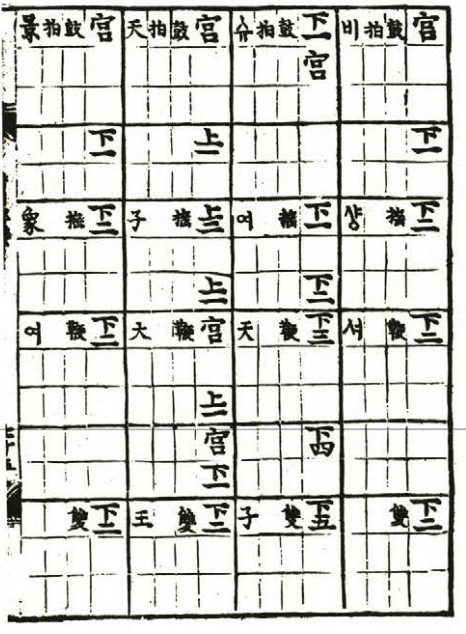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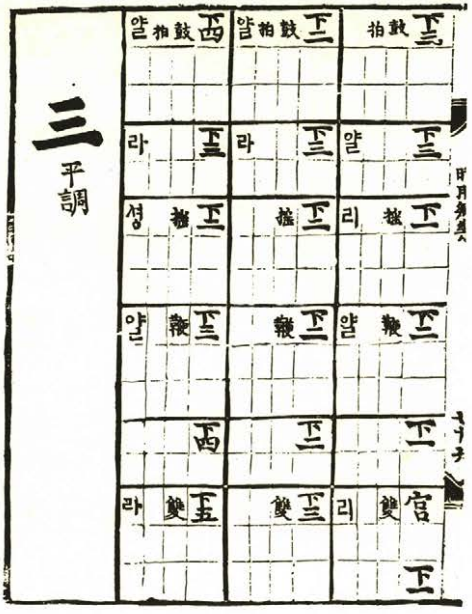

大國一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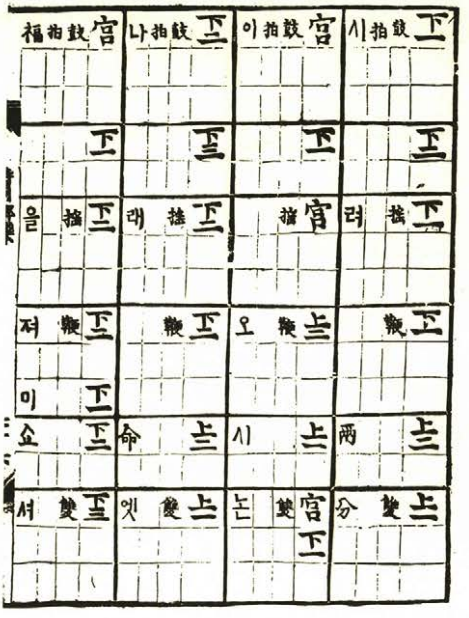

二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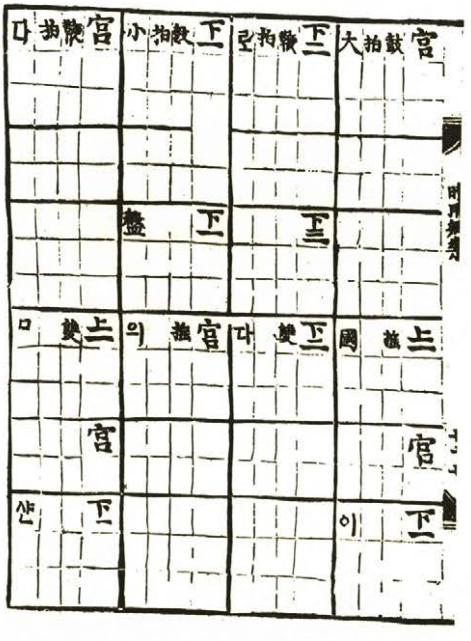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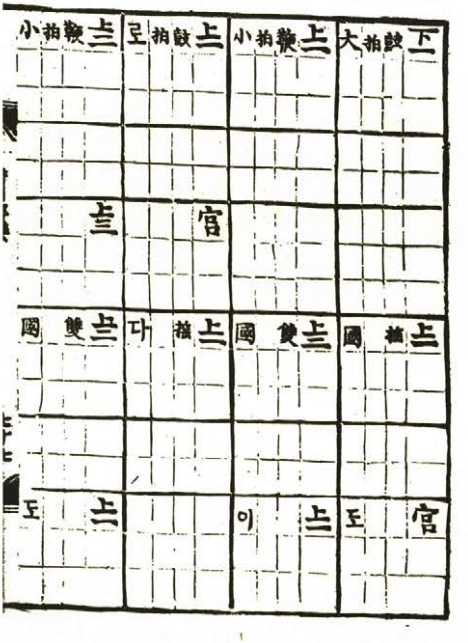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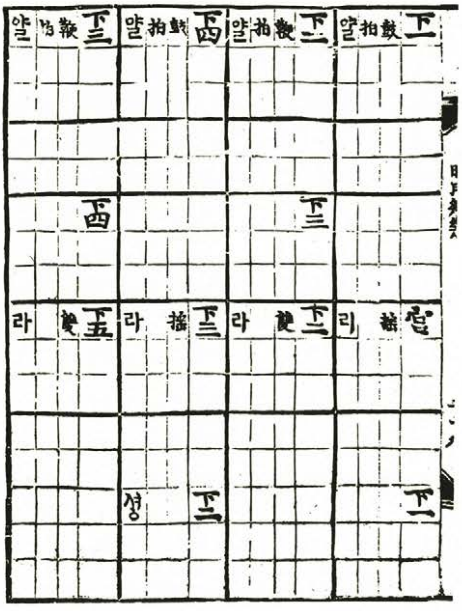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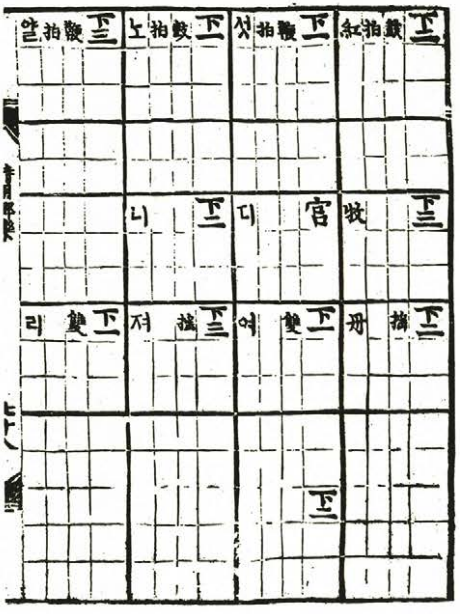

三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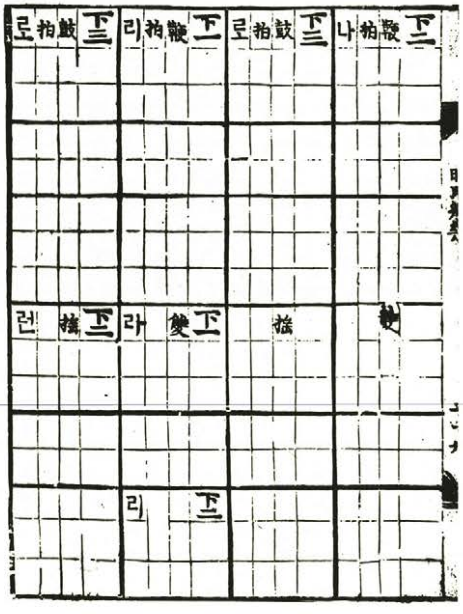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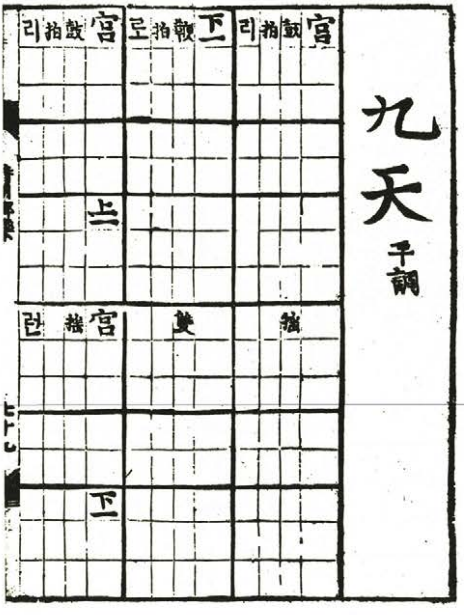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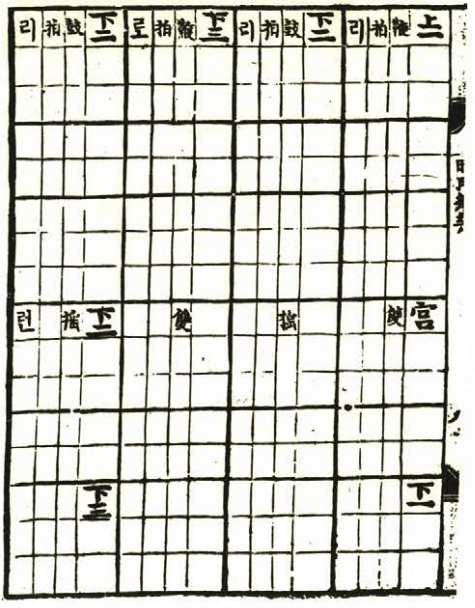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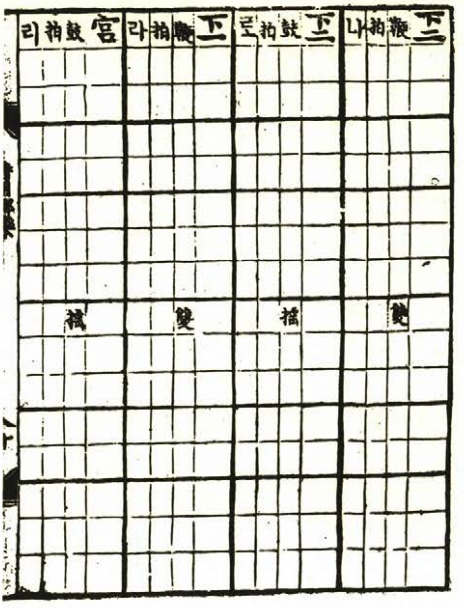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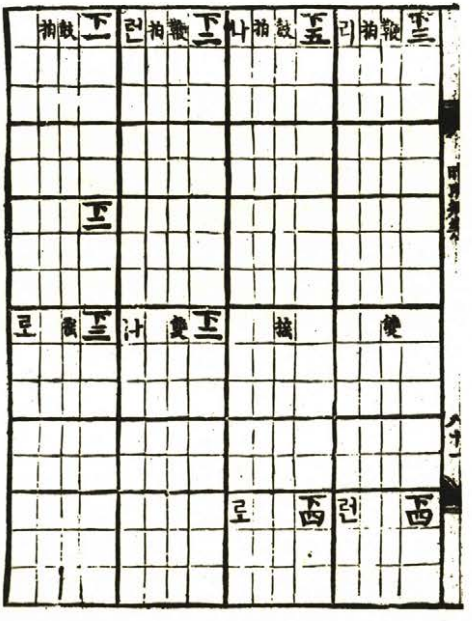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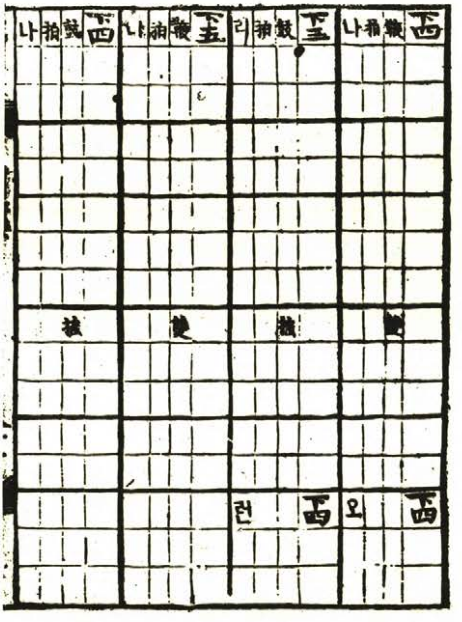



九天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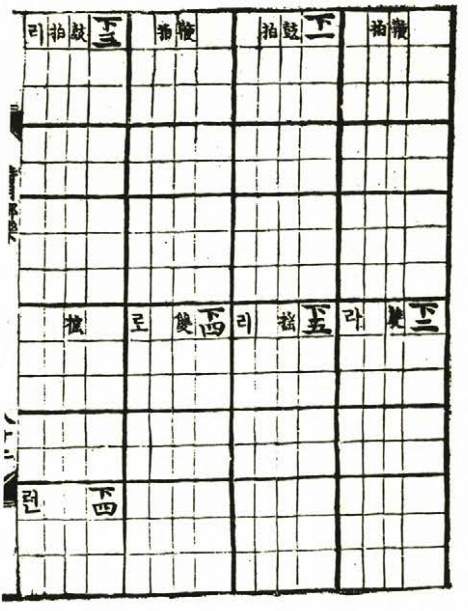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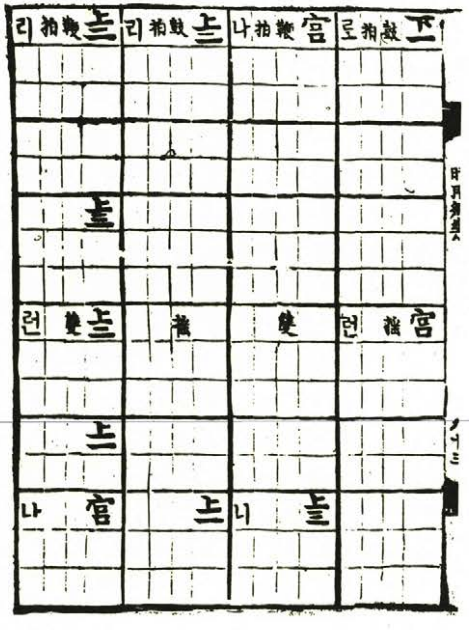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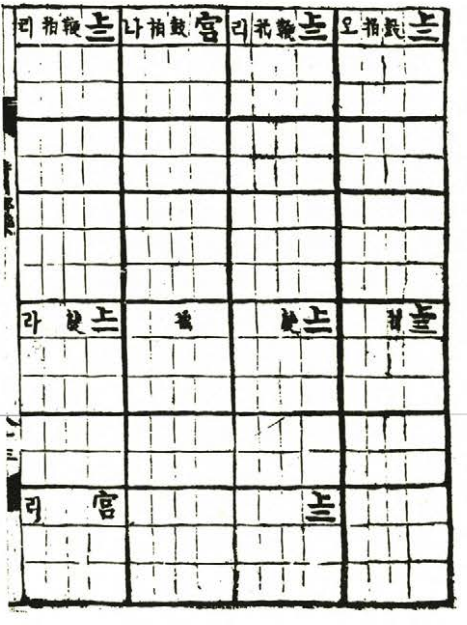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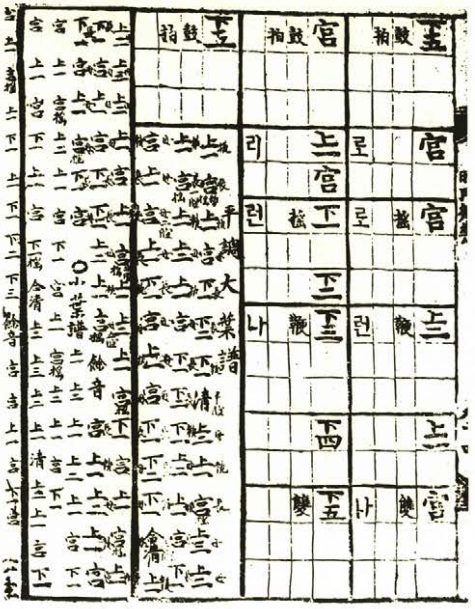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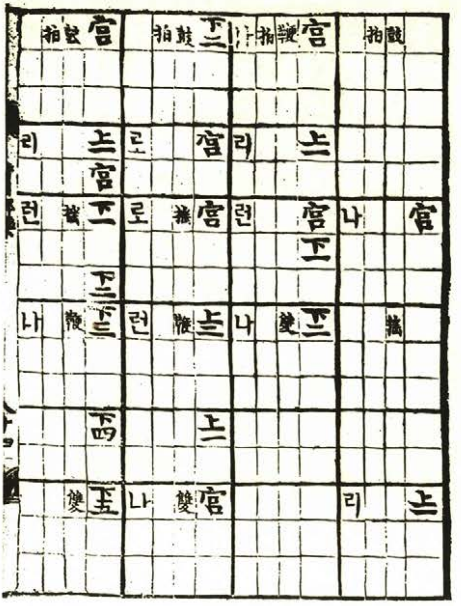
別大王
平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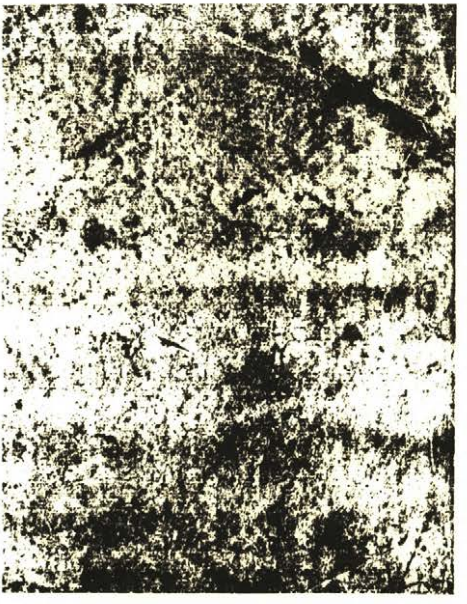












琴譜

D
730.913
신13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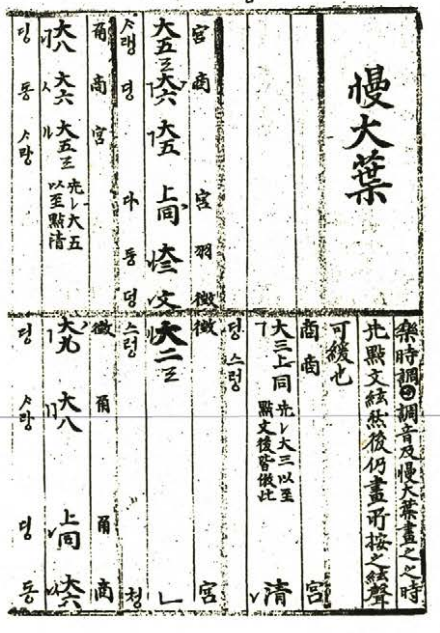
玄琴鄉部　絚桑

樂記云伏羲作琴神農剖桐為琴
桑者喪也禁止於邪以正人心也 一作棄
琴者樂之統也故君子所當御也
平調先定清絃聲之高低次以母指輕按大絃第六棵與清絃音同次
以名指輕按游絃第二棵與清絃音同次以文絃岐棵遲退與大絃第三棵音同
○初調大絃清絃同平調只武絃岐棵遲立於棵外清岐棵之前與大絃第三棵音同
文絃岐棵退立鳳尾之近與武絃音同宮之按絃每棵當輕按只出其聲令之按絃每
棵當刀按第三棵按之出第三棵之聲他棵皆然故大絃游絃各退一聲而調其
古今之異者如是哉○右調絃之法○左手按絃以母指付大絃第五棵長指
付大絃第三棵名指付游絃第三棵小指付文絃然後以自文絃至武絃盡畫
智之清也欲打文絃則舉小指聲發後運掩為妙凡按絃橫則不可損向大棵
從絃直按令平　大大絃也方游絃也二三四五棵之次第也ㄱ母指也人食指也
レ長指也ク名指也、右點舉絃也レ左點打絃也ㅣ自文絃至武按之絃順畫
也ㄴ自文絃至武絃盡畫也、無點畫者只按無撞自出其聲也ㅅ輕按也
三撞絃也○鉤引其絃則其聲先平後高既出即還例按
數大葉與民樂安虛子靈山會山等曲用於舞蹈之節非學琴之先
務姑闕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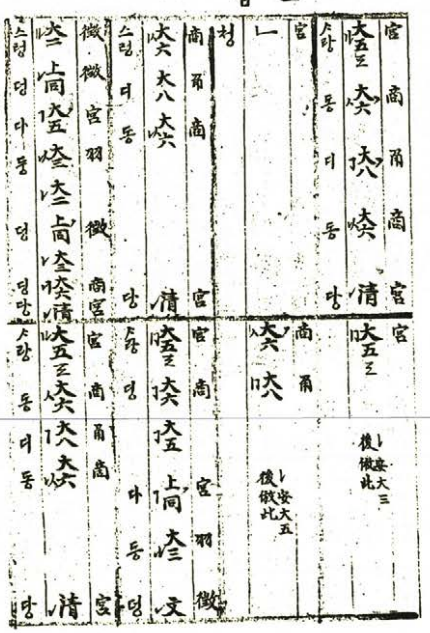
一音

慢大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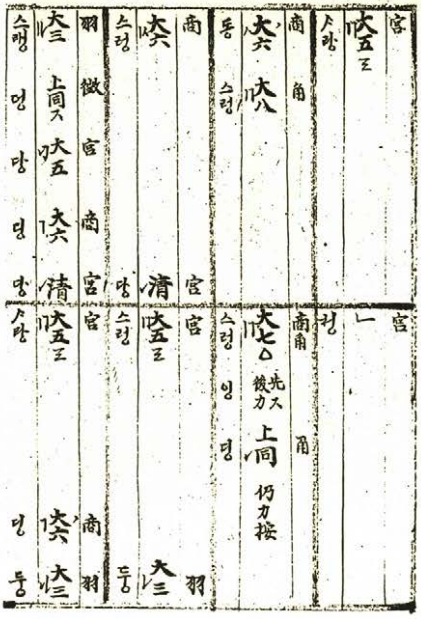
樂時調之調音及慢大葉畫之之時
北點文絃然後仍畫母按之絃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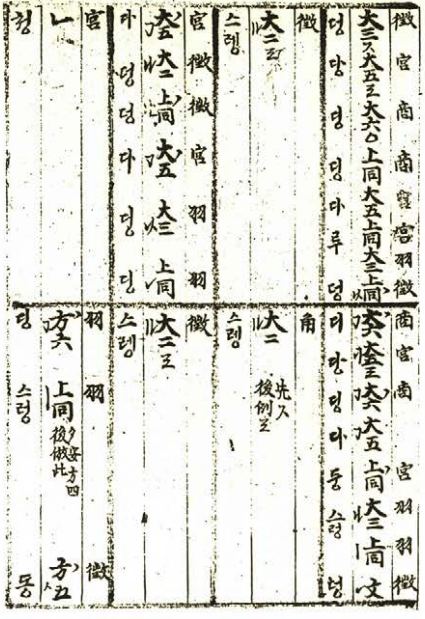
二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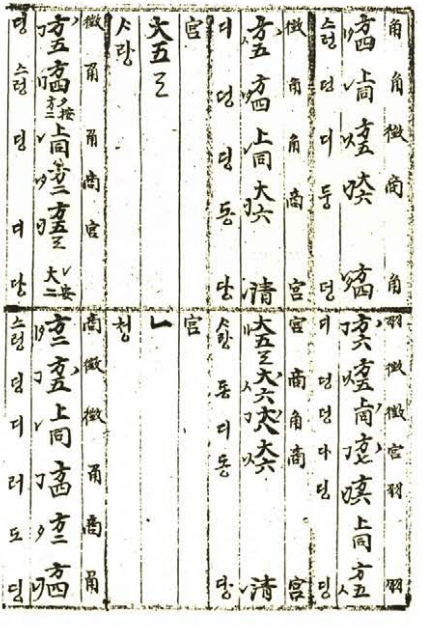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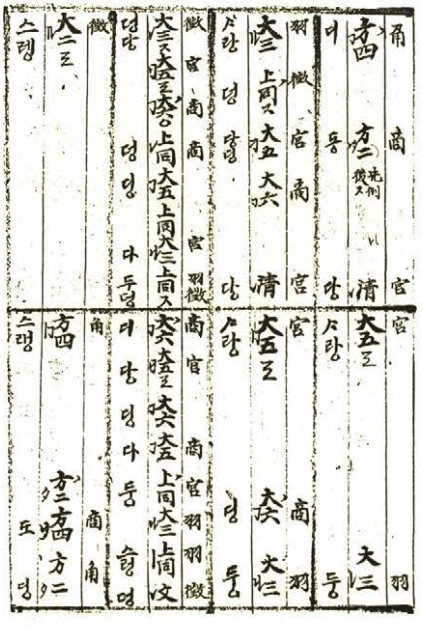
三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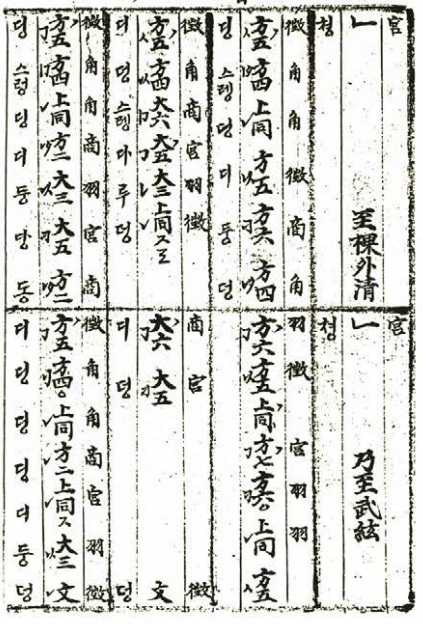


四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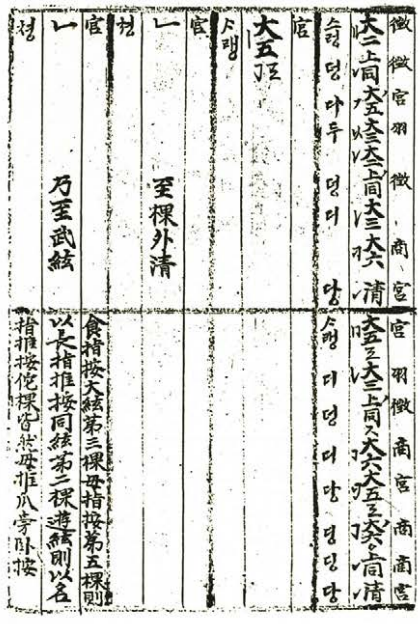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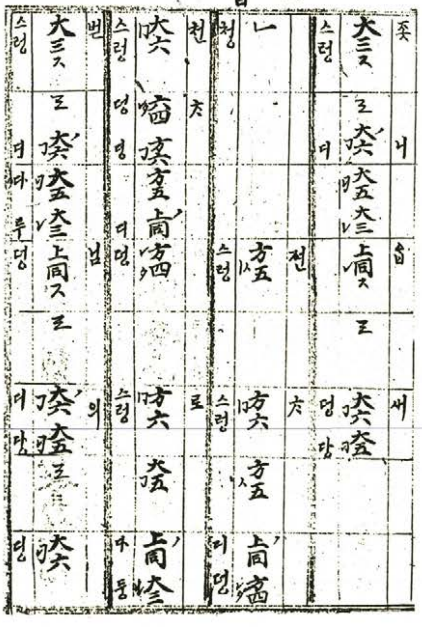
餘音

宮 一 至棵外清 一 宮
徵 徵角角徵商角 羽徵宮羽羽
清 方五嗑上同方五方六方四 方六嗑五上同方五嗑上同方五
徵 徵角角商宮羽徵 商宮 徵
嗑嗑上同嗑大三大五嗑二 大六大五 文
徵 角角商宮羽徵 角角商宮羽徵
嗑嗑上同嗑大三大五嗑二 方五嗑上同方二上同大三文
청 乃至武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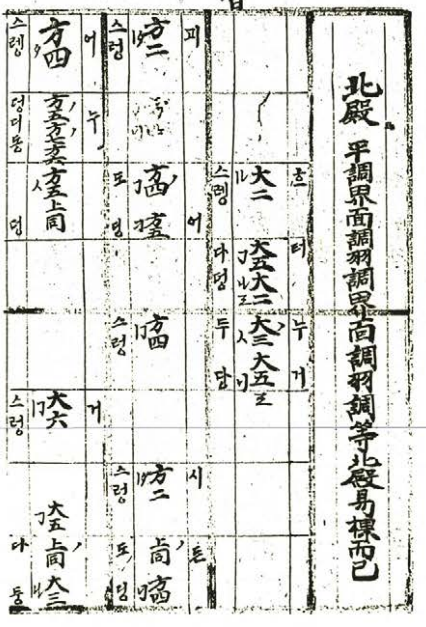
徵 徵宮羽徵商宮 宮羽徵商宮商商宮
大三上同大五大三上同大三大六清 大五大三上同大六大五大三大六清
宮 宮
大五 至棵外清
청 乃至武絃
食指按大絃第三棵母指按第五棵則以長指推按同絃第二棵遘絃則以名指推按倪棵皆然推八孝卧按

二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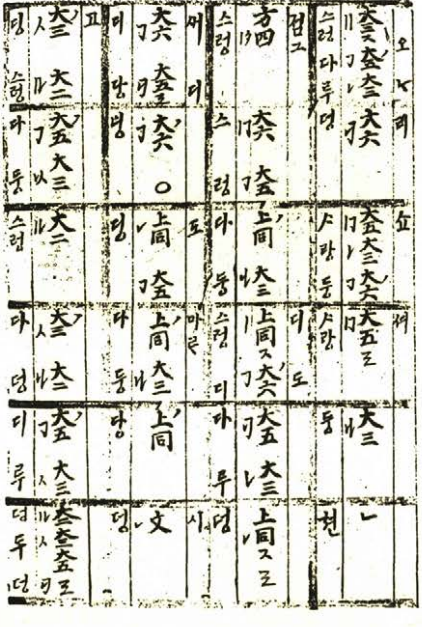
조 니 合 세
대 임 로 의
스렁 덩덩 더멍 스렁 덩덩 더멍 스렁 덩덩 더멍 스렁 덩덩 더멍
천 지 천 지
方五 方六 方五 上同
方六 方五 上同
大三 大五 大三 上同 大六 大五 大三 大六
大三 大五 大三 上同 大六 大五 大三 大六
스렁 덩덩 더멍 스렁 덩덩 더멍 스렁 덩덩 더멍 스렁 덩덩 더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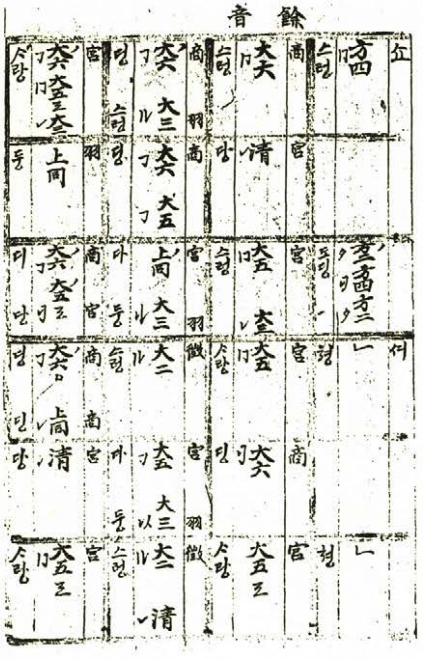
一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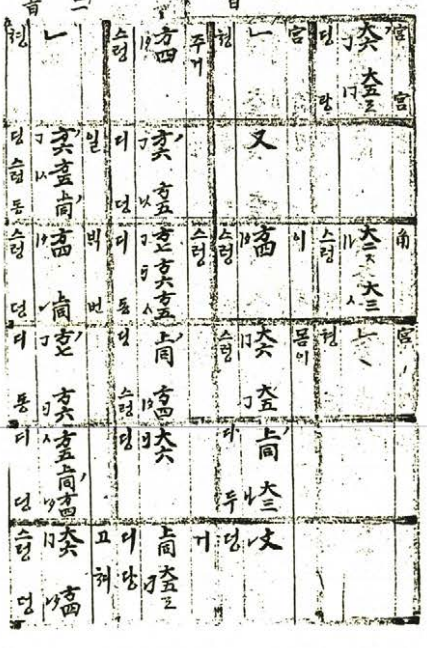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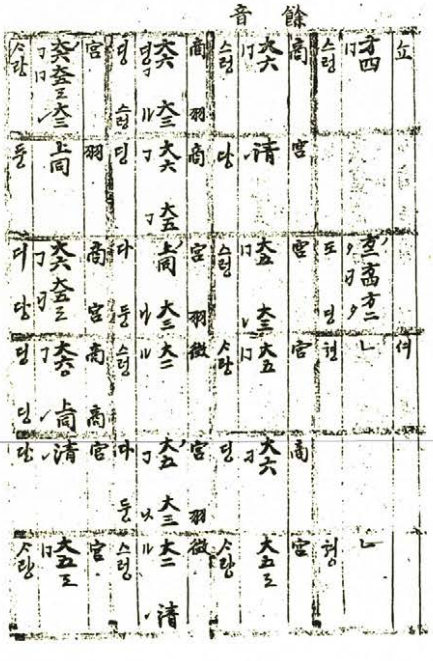
北殿 平調界面調羽調界面調羽調等北殿易棵而已
초 니 누 귀
피 에 시 든
스렁 덩더몽 스렁 덩더몽 스렁 덩더몽 스렁 덩더몽
方二 嗑 方二 嗑
方四 方五 上同 方六 方五 上同
大三 大五大二 大三大五三 大六 大五大三
大六 大五 上同大三
스렁 더멍 두 당 스렁 더멍 두 당 스렁 더멍 두 당 스렁 더멍 두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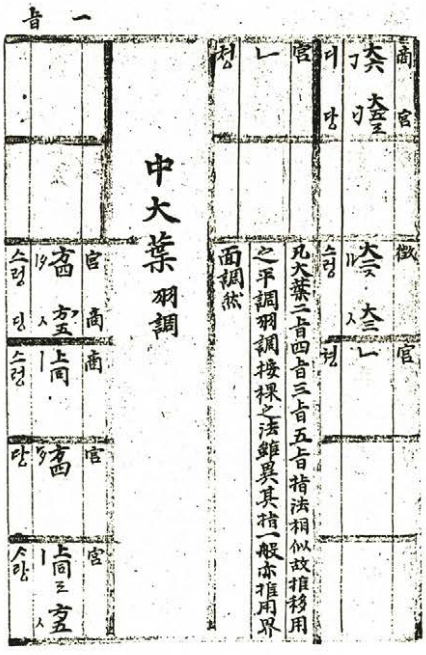
中大葉
俗稱心方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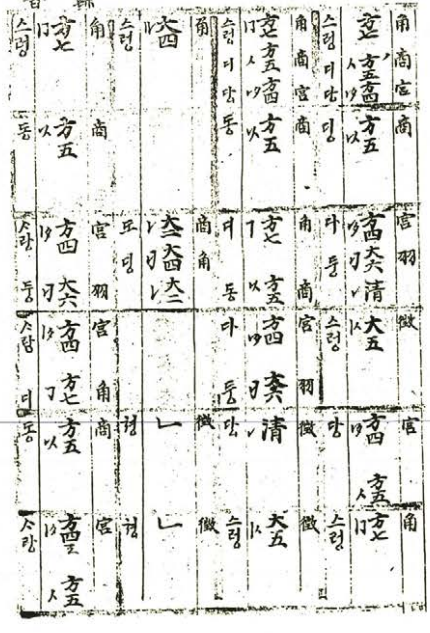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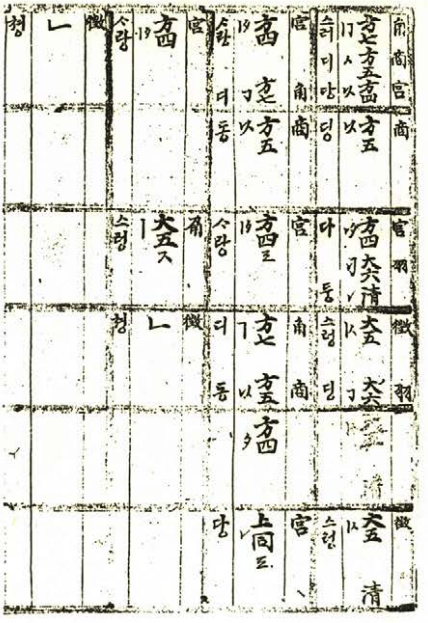



一音
中大葉羽調
凡大葉二音四音三音五音指法相似故推移用之平調羽調換棵之法雖異其指一般亦推用界面調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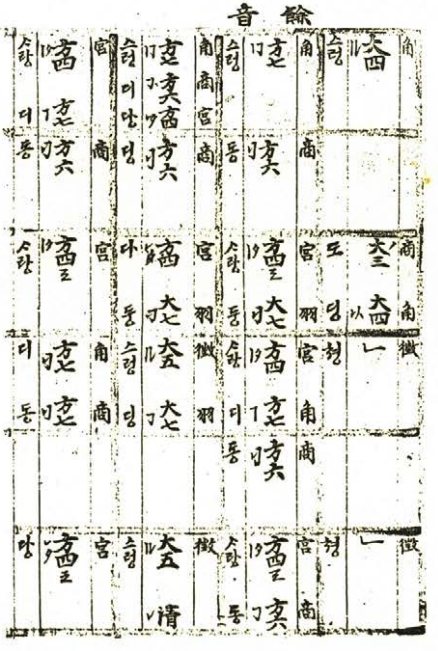
二音
三音

四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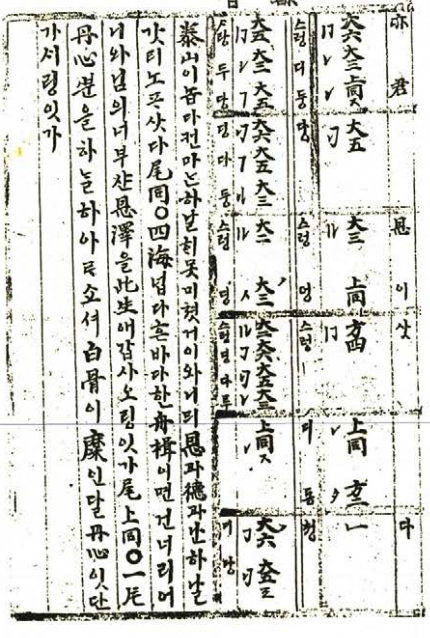

五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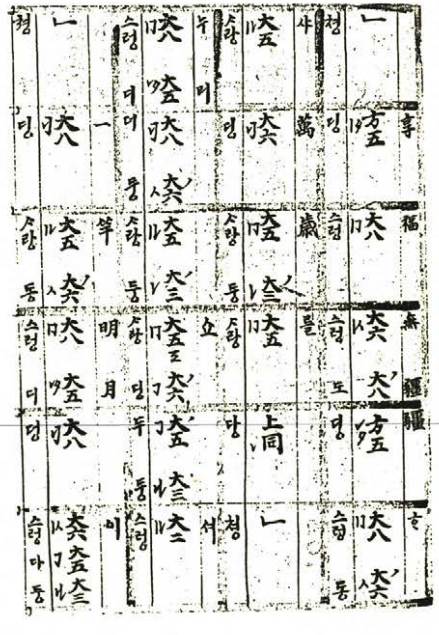


中大葉 羽調界面 調


音輪

感君恩 平調四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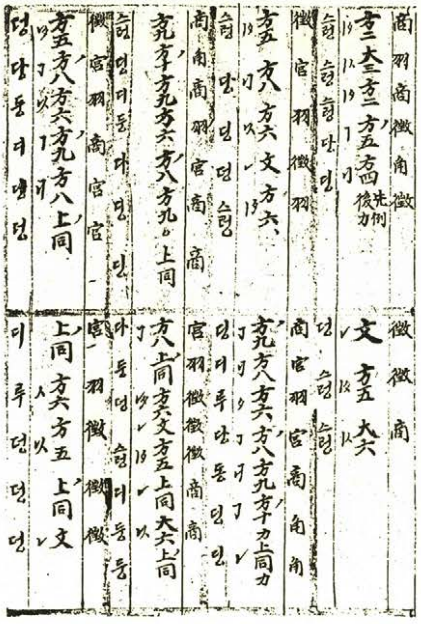


調音

俗稱 다ㅅ림

徵 羽 羽 徵 徵 羽 商 宮 羽 宮 商 商

大二三 大三 上同 大二三 上同 文 大三 大六 大五 大三 大五 大六 上同



宮 羽 徵 羽 徵 徵 宮 徵 徵

大五 大三 文 大三 大二三 上同 大五 大二 上同

宮 羽 羽 徵 宮

大五 大三 上同 大二三

欲短則止其右

欲長則盡其左

商 羽 商 徵 角 徵 徵 徵 商

方三 大三 方三 方五 方四 先例後力 文 方五 大六

徵 宮 羽 徵 羽 商 宮 羽 宮 商 角 角

方五 方八 方六 文 方六 方九 方八 方六 方八 方九 方十 上同 力

商 角 商 羽 宮 商 商 宮 羽 徵 徵 徵 商 商

方九 方十 方九 方六 方八 方九 上同 方八 上同 方六 文 方五 上同 大六 上同

徵 宮 羽 商 宮 宮 宮 羽 徵 徵 徵

方五 方八 方六 方九 方八 上同 上同 方六 方五 上同 文

調羽

徵 徵 徵 羽 徵 角 商 商 角 羽 徵 徵 宮 羽 羽

方五 上同 上同 方六 方五 方四 大六 上同 方四 方六 方五 上同 方七 方六 上同

徵 角 角 商 宮 宮 羽 徵 商 宮 商 商 宮

方五 上同 方四 上同 大六 清 大五三 大三 上同 大六 大五三 大六 上同 清

宮 商 宮 羽 徵 徵 羽 宮

大五 上同三 大六 大五 大三 上同 大二 大三

角 商 宮 宮 羽 徵 宮

大八 大六 清 大五三 大三 上同 大五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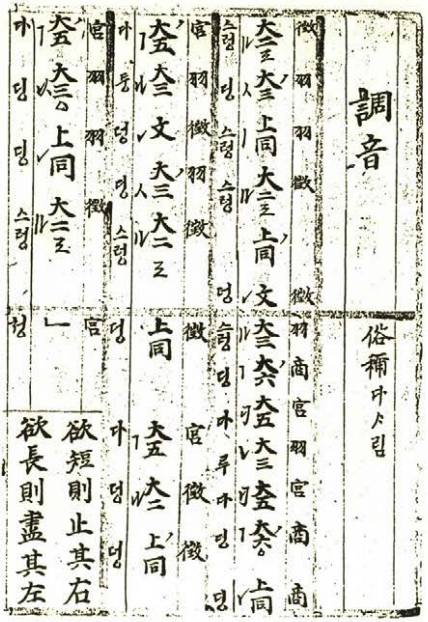
商 商 宮 宮 商 宮 羽 徵 徵 羽 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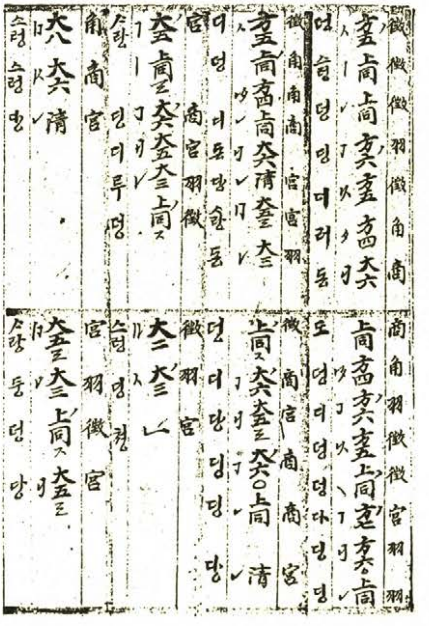
大六 上同 清 大五三 大六 大五 大三 上同 大二 大三 清

徵 羽 徵 徵 羽 商 宮 商 角 角 商 宮 商

大五 大六 大五 清 大六 夕安 方四 方五 方四 方五 方七 上同 方五 方四 方五

宮 宮 羽 徵 徵 羽 徵 角 商 徵 徵 角 商 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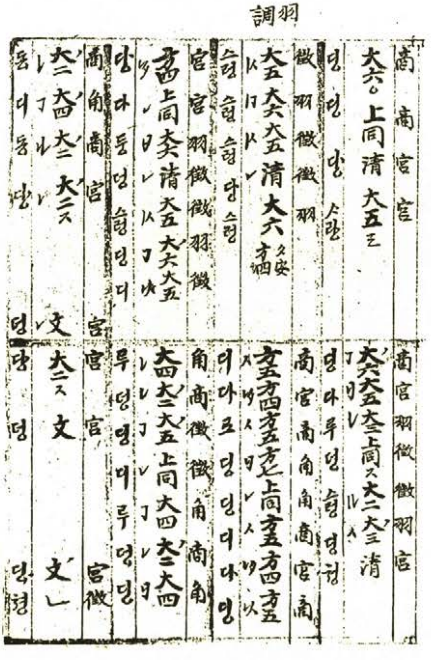




方四 上同 大六 清 大五 大六 大五 大四 大三 大五 上同 大四 大三 大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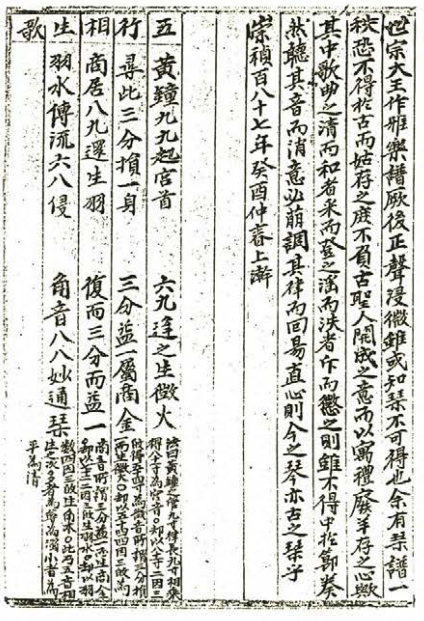
商 角 商 宮 宮 宮 宮 宮 徵

大二 大四 大二 大二 文 大二 文 文



書琴譜卷後

琴之作尚矣包犧斲桐而五絃之制定焉黃帝斷竹而十二之律成焉宮商角徵羽以叙君臣長事之倫剔上下操縵以開陰陽生育之妙五氣之順布四時之流行夫宣外是哉然而八音各有攸屬之琴也於時為春於器為疏於五行為木故聖之為是琴也孤八於南而不歸於北故帝舜歌南風之詩宣凡戎北鄙之聲是也由是而宣其氣致之酒醴養其性情之中和此固學琴宗祖而其功用亦大矣秦漢之間去周未遠其法其聲雖有存者其道不行逮乎東漢西晉歷觀周齊隋唐五季論者愈多而法愈不足有宋建隆元豐之際益求致意而終不能一焉於是建陽蔡西山析衷古人之成法推原本而根機要黃鍾之圍徑蹈於漢斛之積分聲律之正爰攷諸孔氏之禮疏可謂不將不逆矣然而只為一家之言尚未將施於天下惜乎哉我



世宗大王作雅樂譜厥後正聲浸微雖或知琴不可得也余有琴譜一秩恐不得於古而姑存之庶不負古聖人隔哉之意而以竊禮廢羊存之心歟其中歌詞之清而和者采而登之濫而決者斥而懲之則雖不得中於節奏然聽其音而消意必前調其律而回易直心則今之琴亦古之琴乎

崇禎百八十七年癸酉仲春上澣

歌

五 黃鐘九九起宮音　六九生之生徵火

行 尋此三分損一身　三分益一屬商金

相 商居八九還生羽　復而三分而益一

生 羽水傳流六八侵　角音八八妙通琴

禮記曰五聲之本生於黃鐘之律其長九寸每寸九分九九八十一是為宮聲之數三分損一以下生徵則去手七得五十四也徵三分益一以上生商則加八得七十二也商三分損一以下生羽則去手四得四十八也羽三分益一以上生角則加十六得六十四也角聲之數三分之不盡一算其數不行故聲止於五此其相生之次也宮屬土絃用八十一絲其聲至濁商屬金絃用七十二絃其聲次濁角屬木絃用六十四絲其聲半清半濁徵屬火絃用五十四絲其聲次清羽屬水絃用四十八絲其聲至清此其大小之次也五聲固本於黃鐘為宮然遷相為宮則其餘十一律皆可謂宮也絲不練則聲清練之則濁故五絃各有定式

○商絃則南屬金也我東方之殺呈攸擸之不用云

○宮絃八十一絲　純用練絲　商絃七十二絲　三分一練絲　商絃一百五絲 每三五　以朝鮮土細絲可練則可

○角絃六十四絲　半生半練　角絃九十絲 每三十　故依此造絃

○徵絃五十四絲　三分一生絲　徵絃七十二絲 每三十四　碧巖鄭周煥字子玉

羽絃四十八絲　純用生絲　羽絃六十八絲 每三十二

文絃七十五絲　純用練絲　文絃一百八十八絲 每六十二

武絃七十五絲　純用練絲　武絃一百八十八絲 每六十二

律呂隔八相生圖

律呂相生訣

律呂相生減七除
黃鍾凡寸是根全
隔八生陰三位一
陰律生陽益一奇
黃林大蔟皆全寸
餘者通之更不疑
俱用凡分乘見積
四時氣候配攸宜

黃鍾大蔟姑洗蕤賓皆無財為陽大呂夾鍾仲呂林鍾南呂應鍾為陰陽呂生陰三分損一陰律生陽三分益一奧至後剛及此言三歸為損四言三歸為益律呂之中惟黃鍾林鍾大蔟之律管今驗者皆有畸零不盡之數以法通之

黃鍾屬陽空圍九寸長九以九因之得積八百一十分 其候冬至 陽呂生陰之法

却以九寸二因三歸得六隔八下生林鍾

林鍾屬陰空圍六寸長六以九分因之得積五百四十分 其候大暑 陰呂生陽之法

却以六寸四因三歸得八隔八下生大蔟

大蔟屬陽空圍八寸長八以九因之得積七百二十分 其候雨水 却以八寸三因三歸得五寸三分之二隔八下生南呂 以上三律皆得全寸自此以下九律不盡之寸俱用通法

南呂屬陰長五寸三分寸之一却以分母三通五寸加分子一共得十六以九分因之以三除之得積四百八十分 其候秋分 却以通寸十六四因得六十四寸另以三除之得二十一寸三分寸之一隔八下生姑洗

姑洗屬陽長七寸九分寸之一却以通分納子得六十四寸以空圍九因之得七百二十分 其候清明 却以空圍九因之得五千四百寸以分母九除之得積六百四十分 其候小雪 却以通寸六十四因得五百一十二寸另以三因分母得一百七十寸六分寸之五隔八下生蕤賓

蕤賓屬陰長六寸以九因之得積五百四十分 其候小暑 却以通寸五十四因得四百三十二寸另以三因分母得一百四十四寸隔八下生夷則

夷則屬陽長八寸以九因之得積七百二十分 其候立秋 却以通寸七十二因得五百七十六寸另以三因分母得一百九十二寸隔八下生無射

無射屬陰長四寸以九因之得積三百六十分 其候霜降 却以通寸三十六因得二百八十八寸另以三因分母得九十六寸隔八下生應鍾

應鍾屬陰長四寸二十七分寸之二十却以通分納子共得一百二十七寸以空圍九因之得一千一百二十五分 其候小雪 除之不盡者法實留九約之得積四百二十分寸之三 其候小雪 却以通寸一百二十七因得四百三十八寸另以三因七得一千一百二十六寸隔八下生蕤賓

蕤賓屬陽長六寸二十六分寸之二十六以分母二十六為法除之不盡者法實留九約之得積三百六十分寸之二十 其候大雪 除之不盡者法實留九約之得積五百九十分寸之十 其候大雪 却以通寸一百五十四因得三百九十六寸另以三因分母得一百三十二寸為法除之得二寸寸之一百二十六隔八上生大呂

大呂屬陰長二寸寸之一百二十六分寸之一百二十三為法除之得四寸寸之二十七分按夏至後一陰始生故自此以後陰律生陽三分損一陽呂生陰二分益一夾呂屬陰長二寸寸之一百二十三分寸之一百二十六却以通分納子得二百五十二分以分母除之得二寸寸之一百二十三隔八上生夾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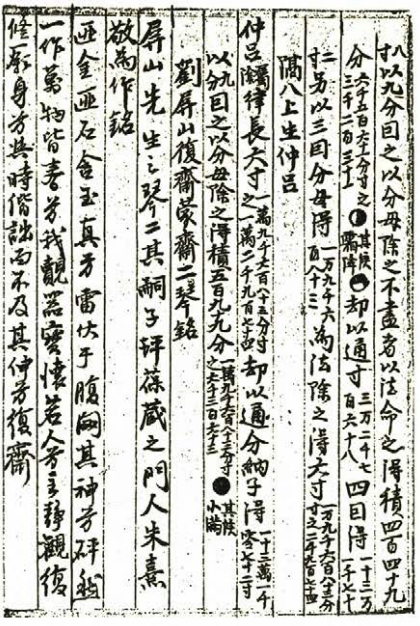
夾鍾屬陽長二寸寸之一百二十三分寸之一百二十三為法除之得四寸寸之二十七分寸之二十七隔八下生無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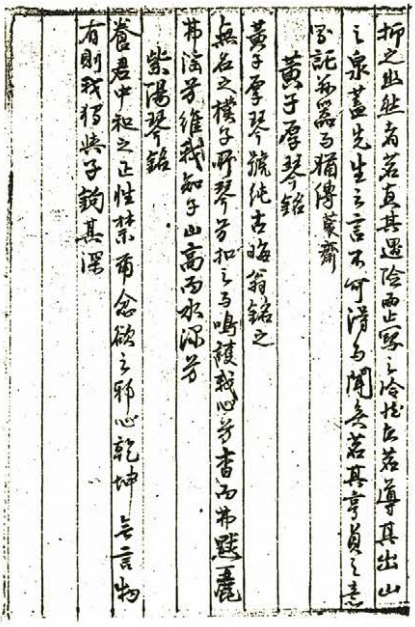
無射屬陽長四寸寸之二十七分寸之二十七以分母二十七為法除之得四寸寸之二十七分寸之二十七隔八下生

八寸以九分因之以分母除之不盡者以法命之得積四百四十九分六千五百六十分寸之三千二百三十一 ◐其候霜降 ◑却以通寸三万二千七百六十八 四因得一十三万一千七十二寸另以三因分母得一万九千六百八十三 為法除之得六寸一万九千六百八十三分寸之二千九百七十四

隔八上生仲呂

仲呂濁律長六寸一萬九千六百八十三分寸之一萬二千九百七十四 却以通分納子得一十三萬一千零七十二寸 以九分因之以分母除之得積五百九十九分一萬九千六百八十三分寸之六千三百七十三 ●其候小滿





劉屏山復齋蒙齋二琴銘

屏山先生之琴二其嗣子評葆藏之門人朱熹敬為作銘

匪金匪石含玉真方雷伏于腹胸其神方砰然一作萬物皆春方我觀器寶懷若人方主靜觀復修厥身方與時偕詘而不及其伸方復齋

抑之幽然者若直其遇陰而止寥之冷然者若導其出山之泉蓋先生之言不可得而聞矣若其亨貞之志分託於器而猶傳蒙齋

黃子厚琴銘

黃子厚琴號純古晦翁銘之

無名之樸子所琴方扣之而鳴護我心方書而弗題麗弗淫方維我知子山高而水深方

紫陽琴銘

養君中和之正性禁甫念欲之邪心乾坤無言物有則我得與子鈎其深

靈山會山并錄

慢靈山五章

我東掌樂院舞蹈之節多用此調

第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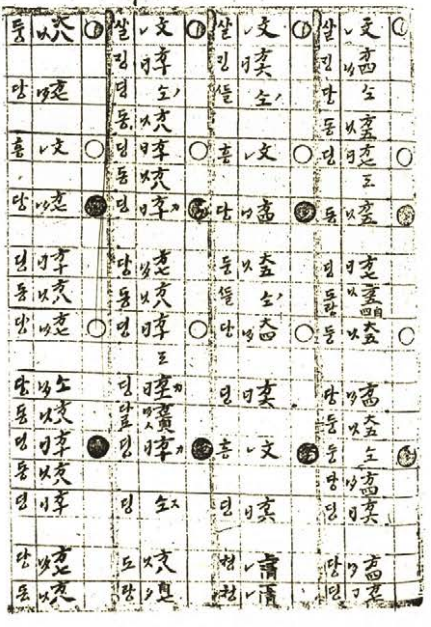
一章

二章

三章

四章

五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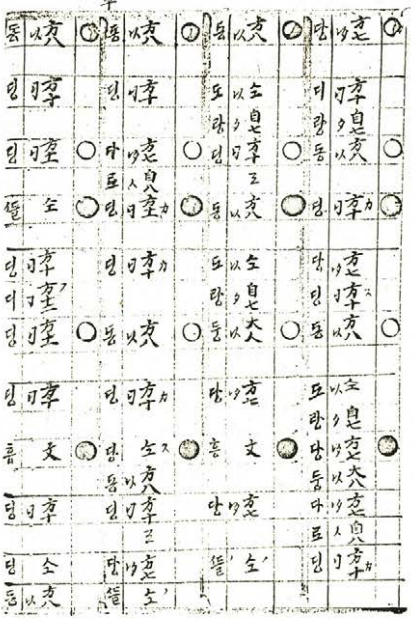


一章

二章

三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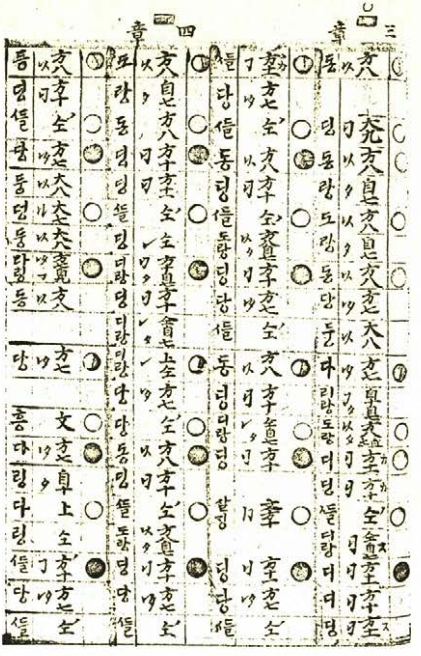
四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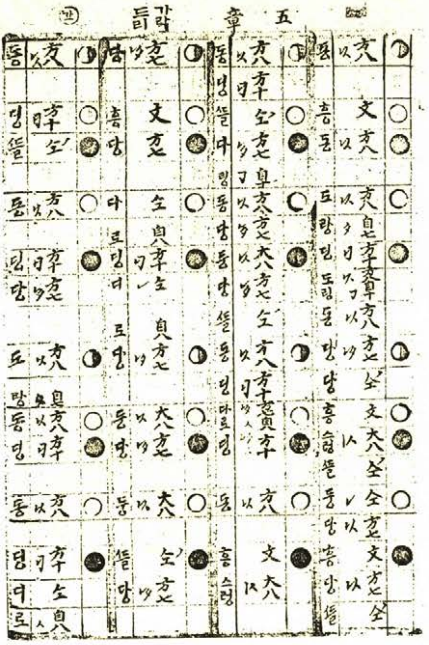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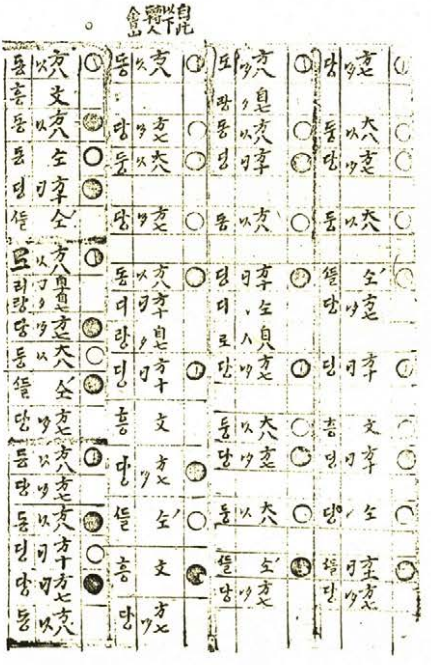
五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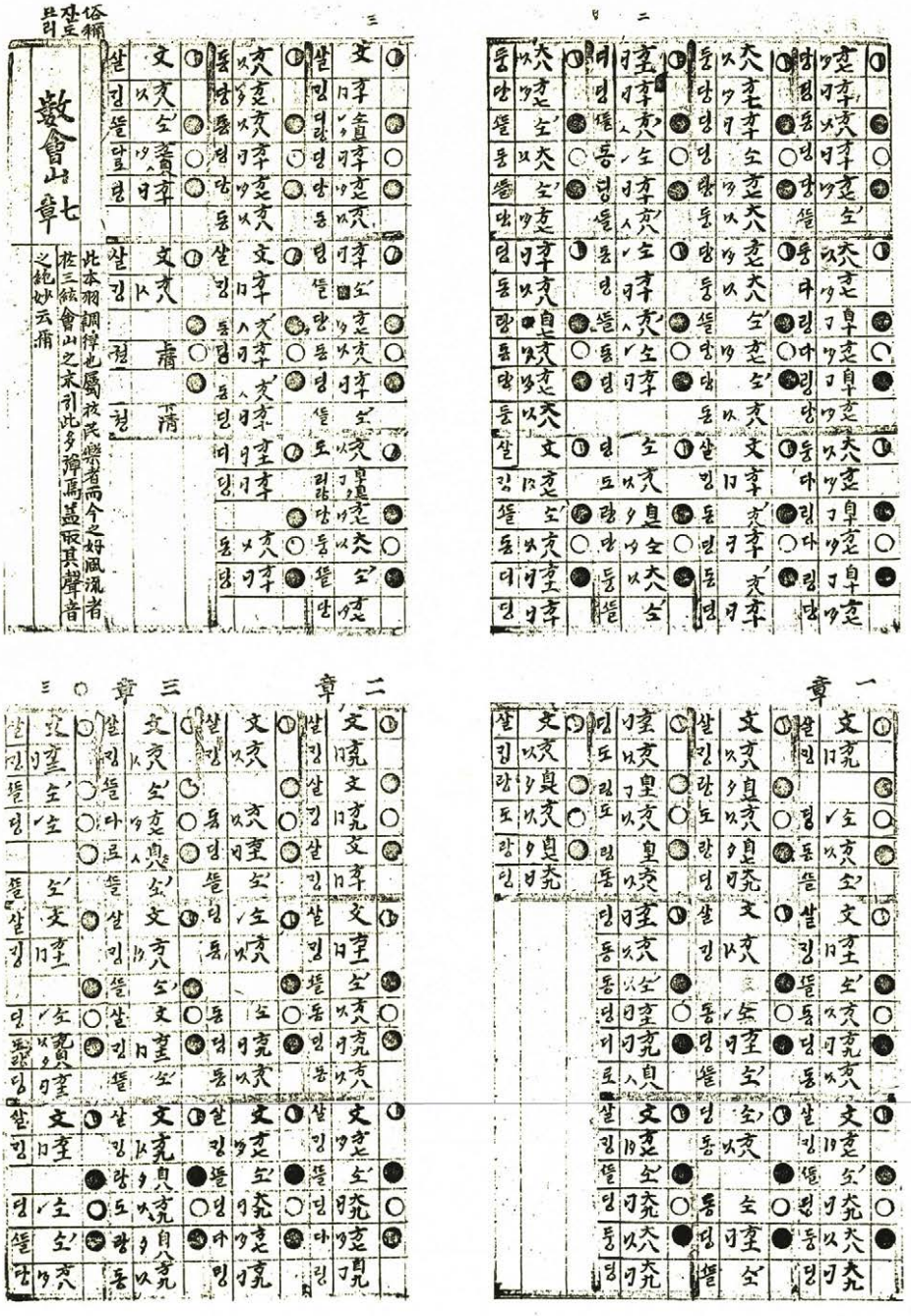
一章

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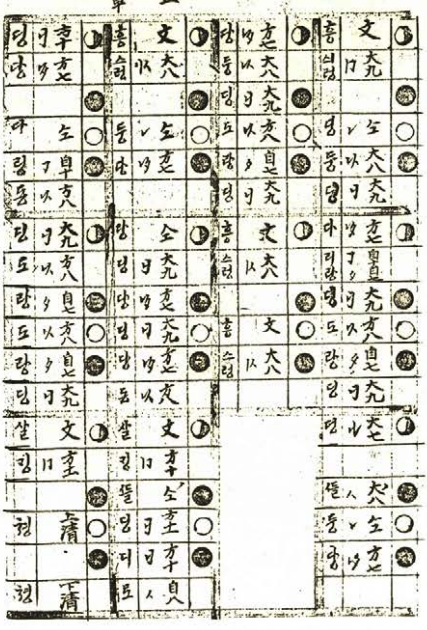





數會山七章
俗稱 자도 뜨리
此本羽調律也屬於民樂者而今之好風流者於三絃會山之末引此多彈焉蓋取其聲音之絕妙云爾
二章
三章
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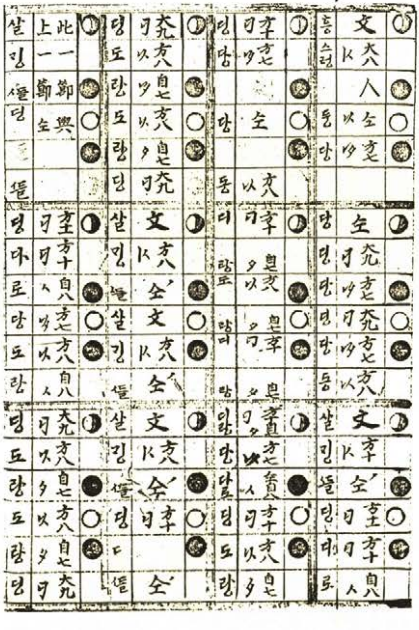
四章

五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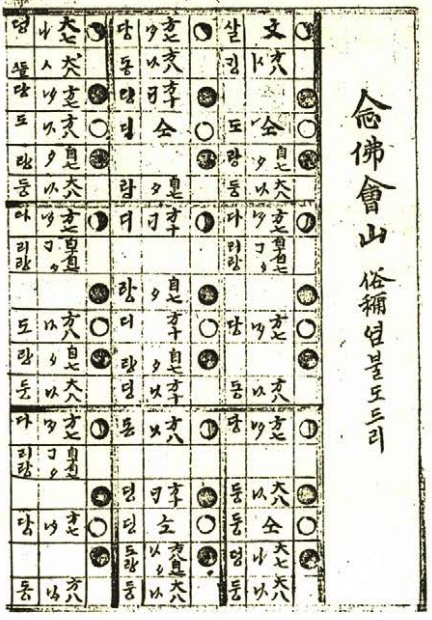
六章

七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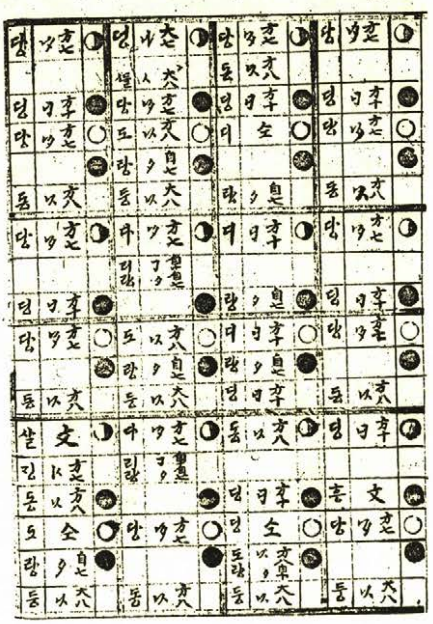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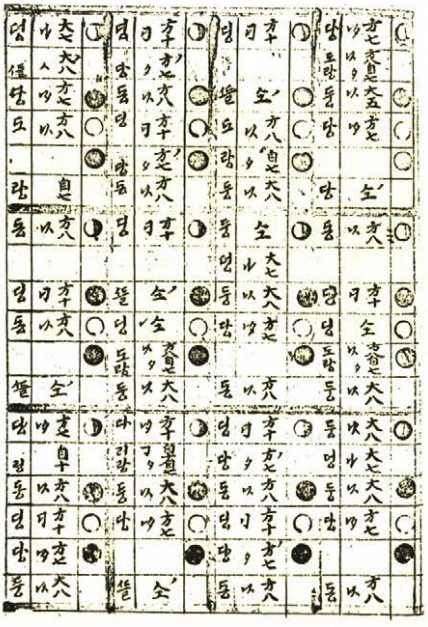
下殺會山
此章其聲平殺其味深長妙不可盡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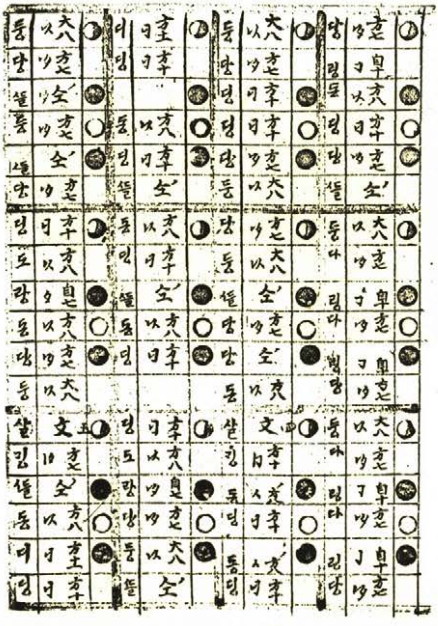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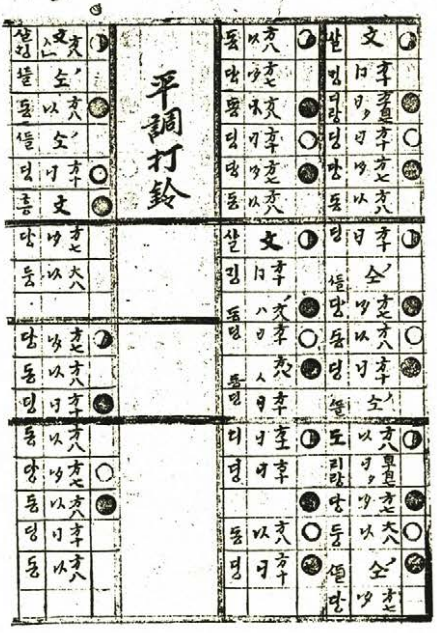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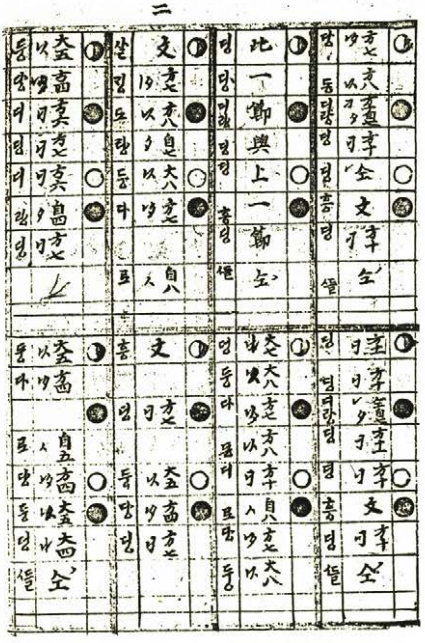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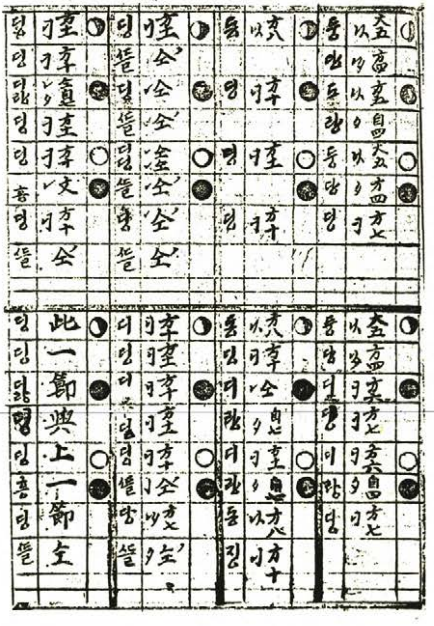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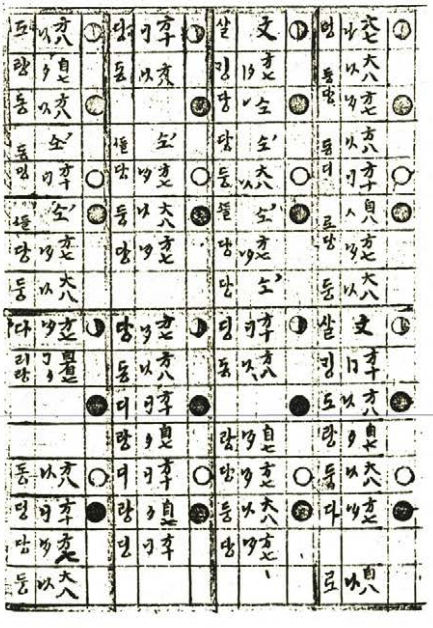
二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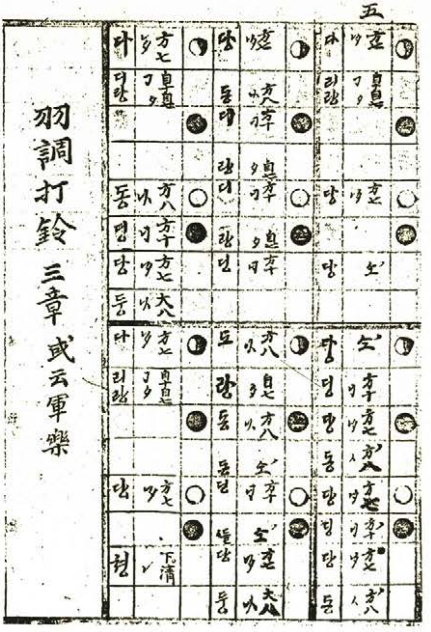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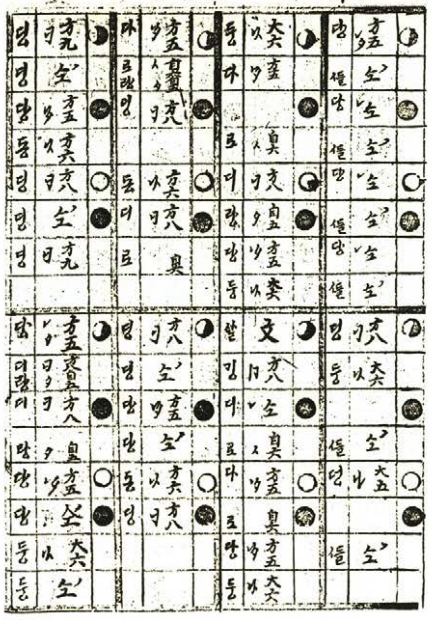


五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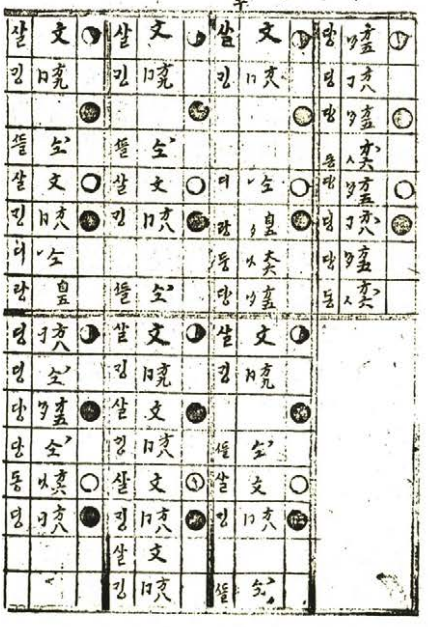
羽調打鈴 三章 或云軍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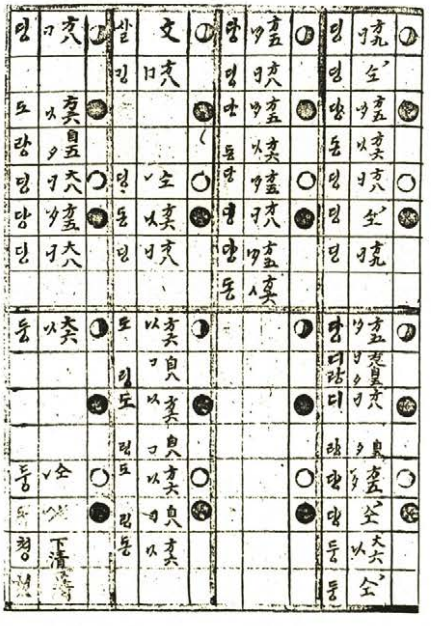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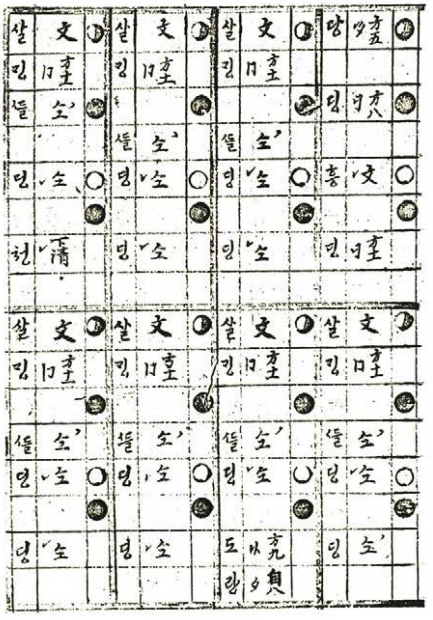
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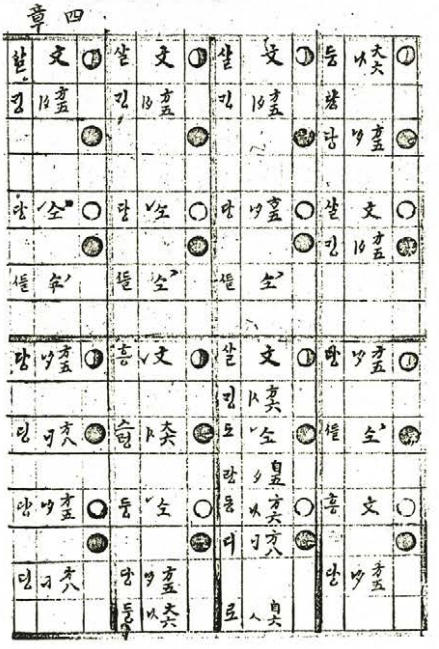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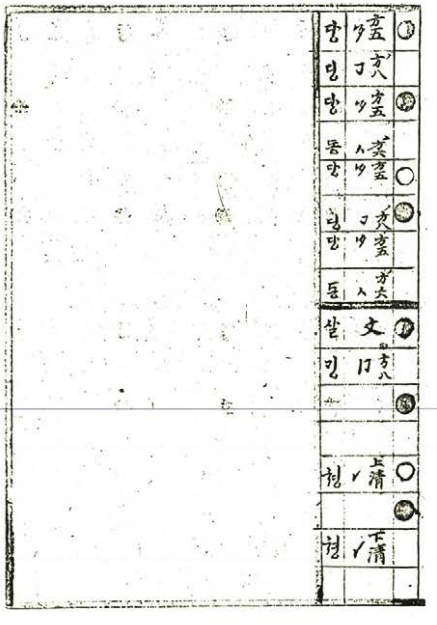
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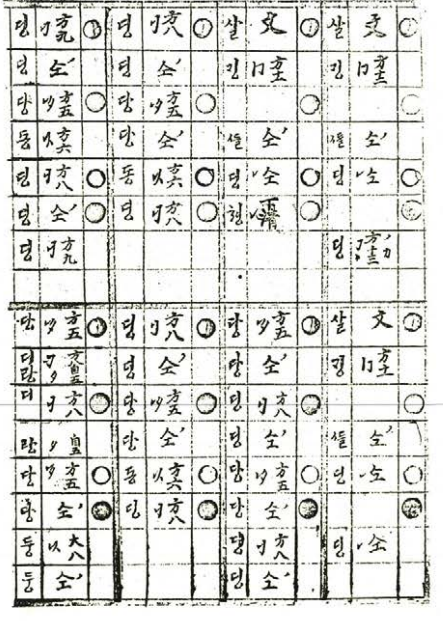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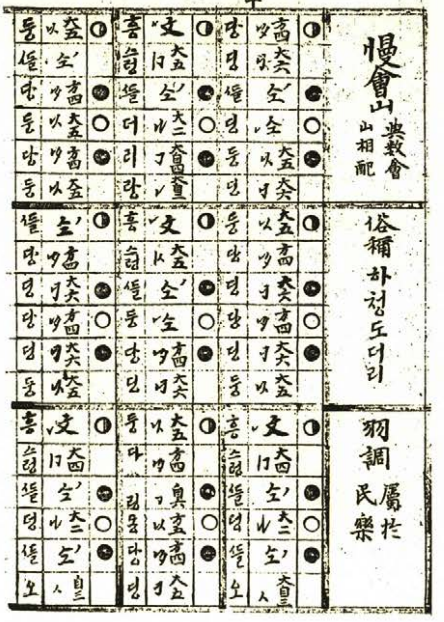


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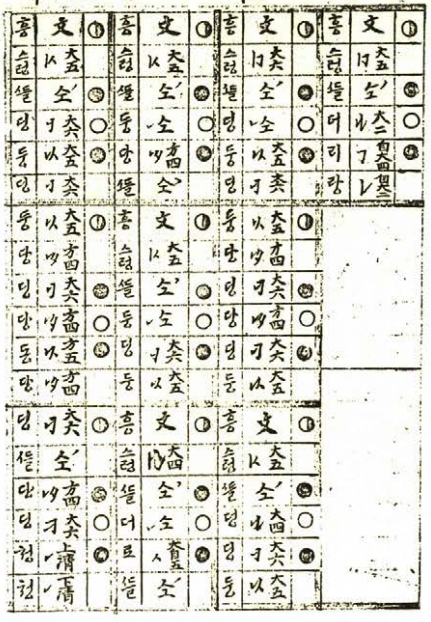
慢會山 典數會 山相配

俗稱 하청도더리

羽調 屬於 民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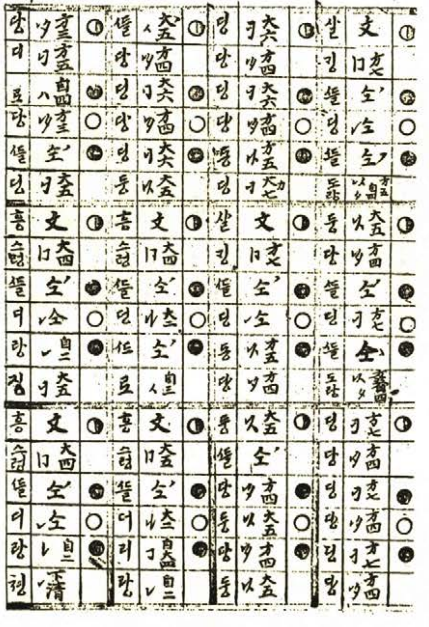


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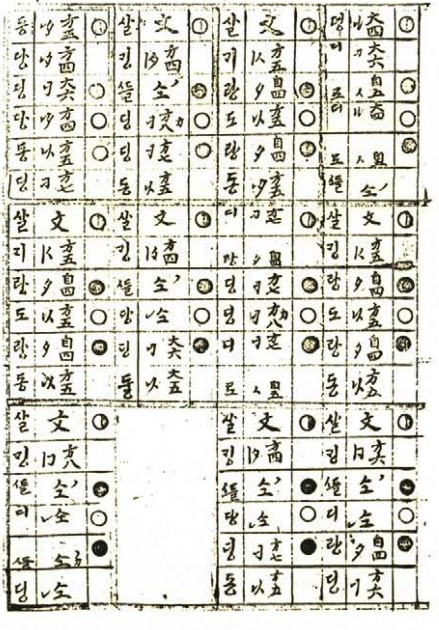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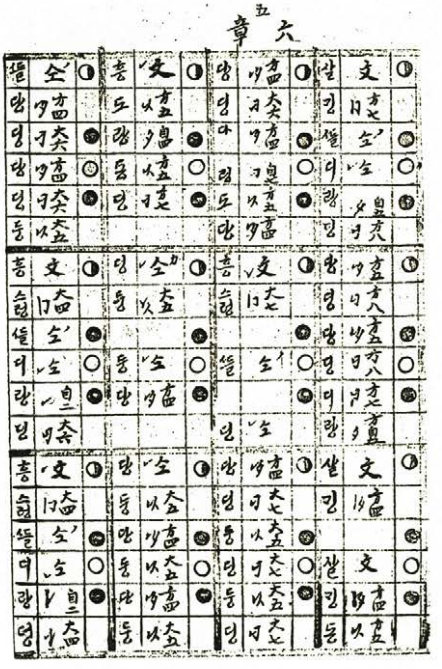
三章

四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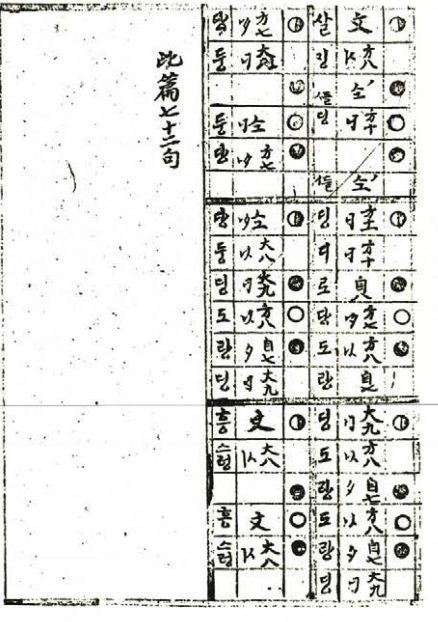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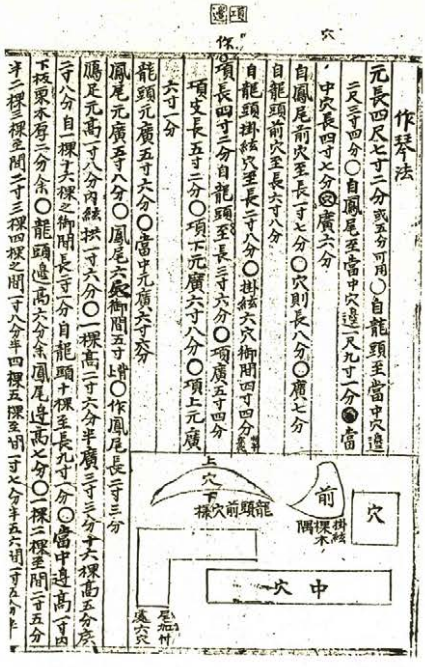
五章





※ 이 면은 白紙임





作琴法

元長四尺七寸二分或五分可用○自龍頭至當中穴邊二尺三寸四分○自鳳尾至當中穴邊一尺九寸一分◎當中穴長四寸七分◎廣六分

自鳳尾前穴至長一寸七分○穴則長八分○廣七分

自龍頭前穴至長六寸八分

自龍頭掛絃穴至長二寸八分○掛絃六穴御間四寸四分

項長四寸二分自龍頭至長三寸六分○項廣五寸四分

項支長五寸二分○項下元廣六寸八分○項上元廣六寸一分

龍頭元廣五寸六分○當中元廣六寸六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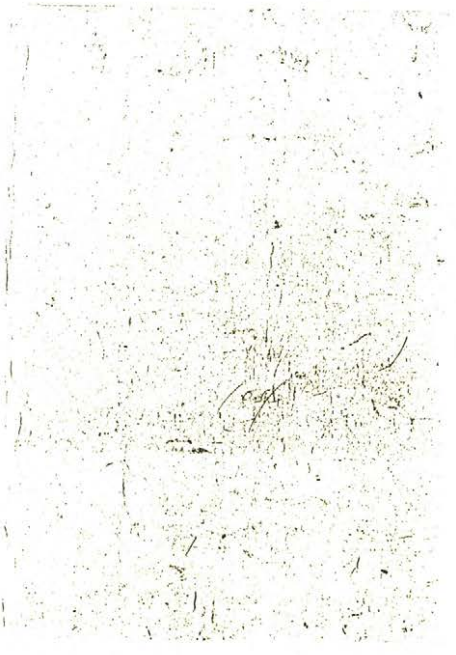
鳳尾元廣五寸八分○鳳尾六穴御間五寸上○作鳳尾長二寸三分

鴈足元高一寸八分內絃拱一寸六分○一棵高二寸六分半廣三寸三分十六棵高五分庶二寸八分自一棵十六棵之御間長二寸一分自龍頭十棵至長九寸一分○當中邊高一寸四下板栗木厚二分余○龍頭邊高六分余鳳尾邊高七分○一棵二棵至間二寸五分半二棵三棵至間二寸三棵四棵之間一寸八分半四棵五棵至間一寸七分半五六間一寸五分半

作良琴法

六七間一寸四分七八間一寸三分半八九間一寸一分半九十間一寸一分半十一間一寸一分十二間一寸余十三間一寸十三十四間九分十四十五間八分十五十六間七分元御間長一分余○當中穴深一寸七分○龍頭前穴深一寸二分○鳳尾前穴深一寸一分○龍頭中高一寸半分○邊高五分半○鳳尾加竹中高深一寸九分

元下廣二尺一寸六分○元上廣一尺四寸八分○元長七寸八分○高一寸一分○上兩邊棵間一尺一寸五分○下兩邊棵間一尺八寸○清棵下間三寸五分○上間三寸一分○付棵下間七寸○左上間四寸五分○腹穴長折半右七寸三分○掛絃小釘御間六寸六分左全大釘御間六寸六分右也



笛竹新造法　但木又用

笛竹自上節吹穴中至一寸六分

自上節至封牕穴中七寸五分

自封牕穴中至初九孔穴中四寸一分

自初九孔穴中至二穴中一寸三分

自二次穴中至三穴中一寸四分

自三穴中至四穴中一寸五分

自四穴中至五穴中一寸五分

自五穴中至六穴中一寸五分

自六穴中至下空穴中四寸七分

吹穴上節分餘竹一寸、下穴下餘竹一寸七分

実琴桶

実琴桶長三寸八分

前庶三寸一分

後穴庶三寸

柱所穴前三指後二指

柱所長一尺三寸八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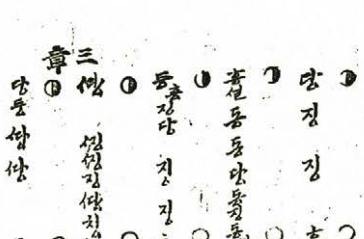
自下穴至上穴二寸

頭餘二寸九分

靈山會山竝錄

伽倻琴譜

D
780.913
가62



靈山會山并錄

慢靈山 共五章 掌樂院舞蹈之節用此調俗云風流

章

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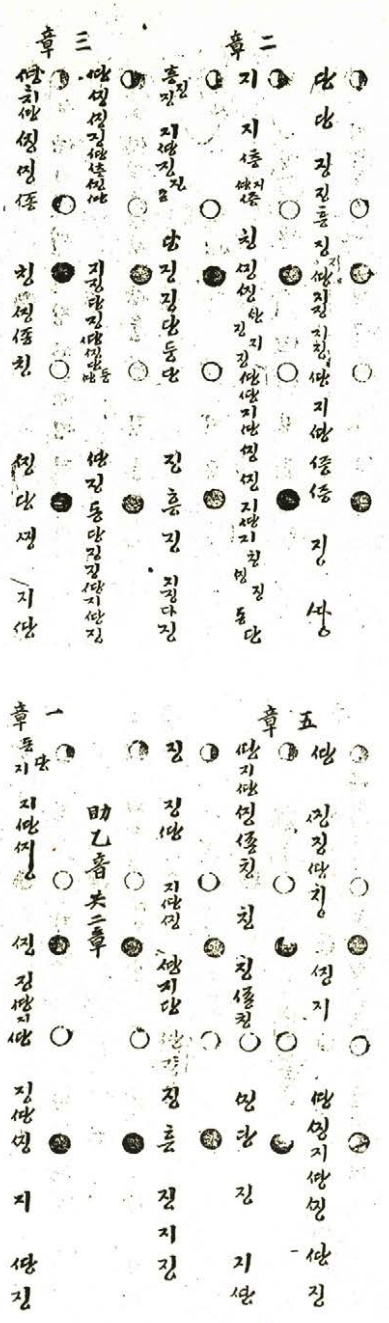
三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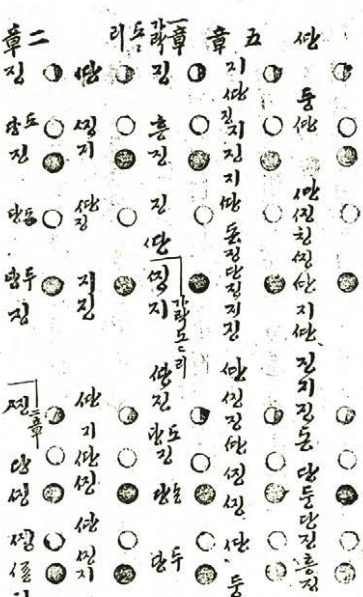
四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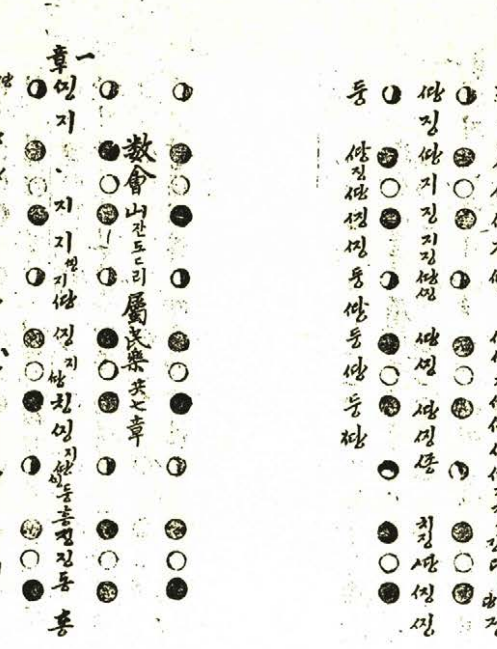
五章

中靈山 并助音共七章

一章







三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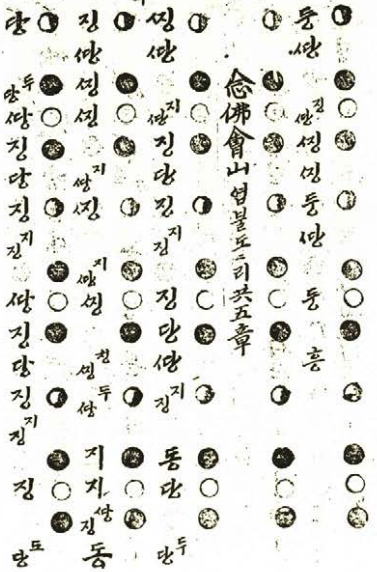
數會山간드리屬民衆共七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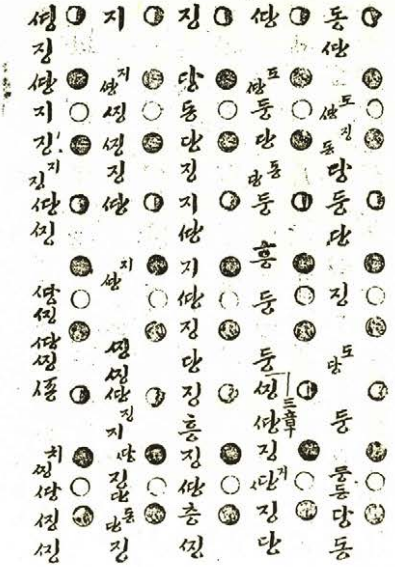
一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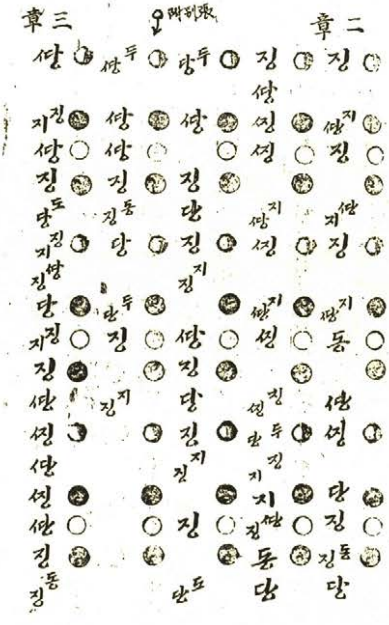
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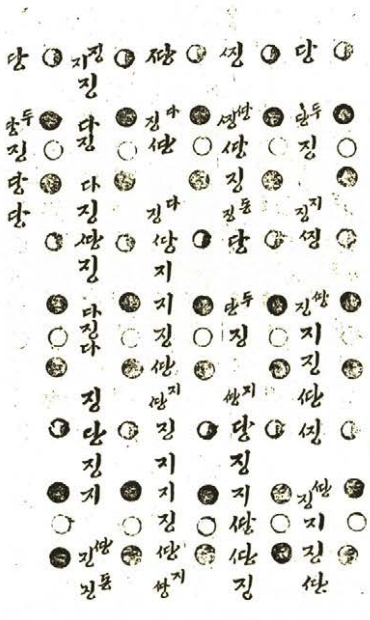
三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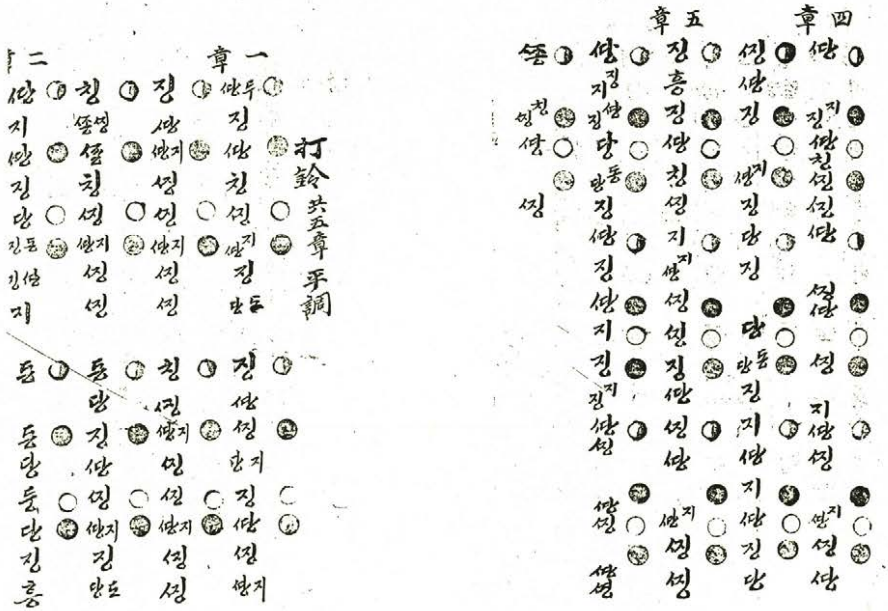
四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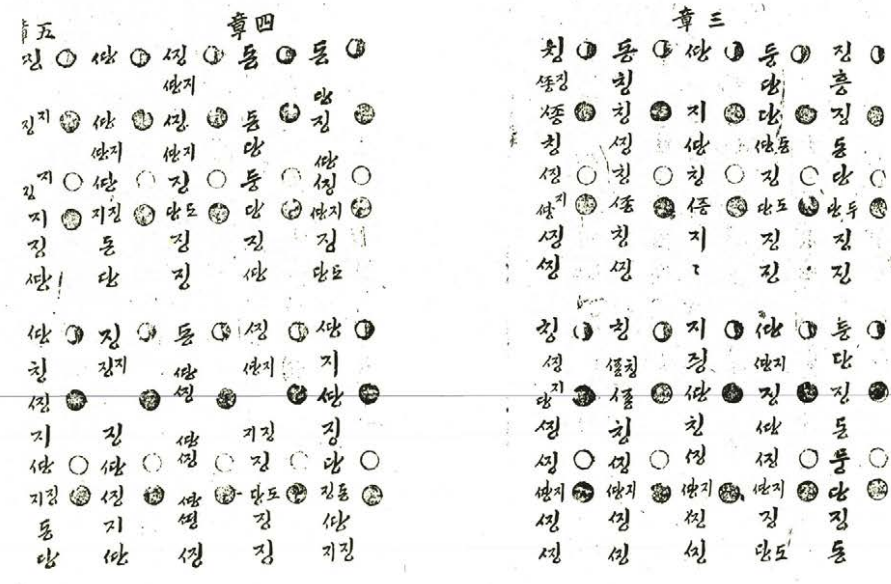









打鈴 第五章 平調
一章
二章
四章
五章


三章
四章
五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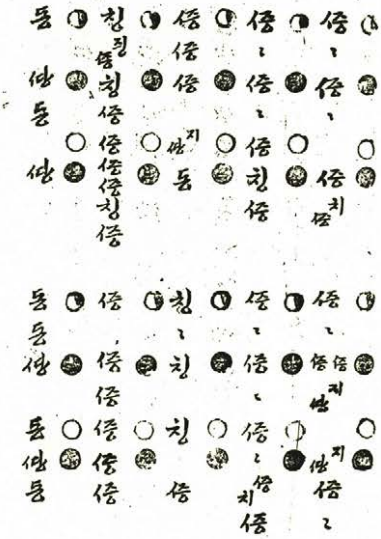
初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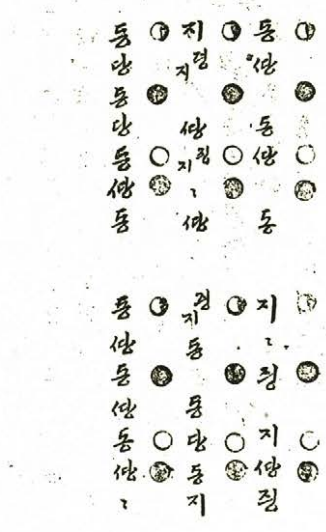
羽調打鈴 五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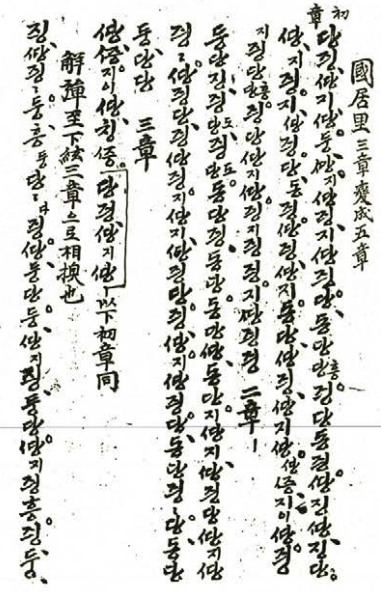
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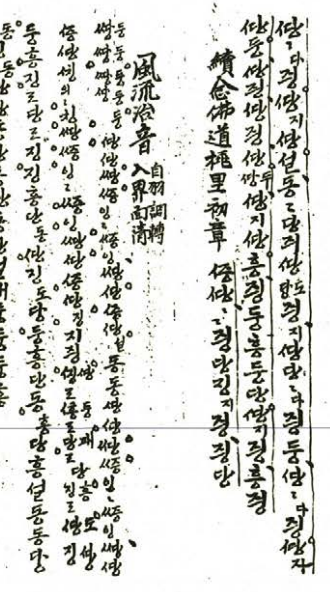
三章

四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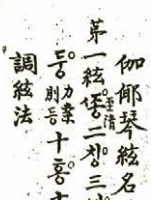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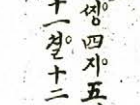




問 與打鈴二章答同



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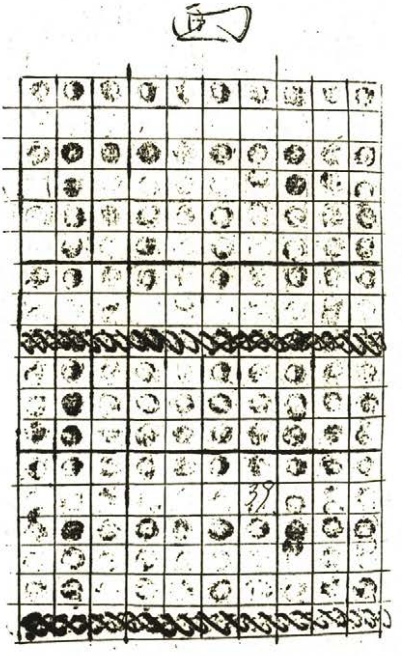


伽倻琴絃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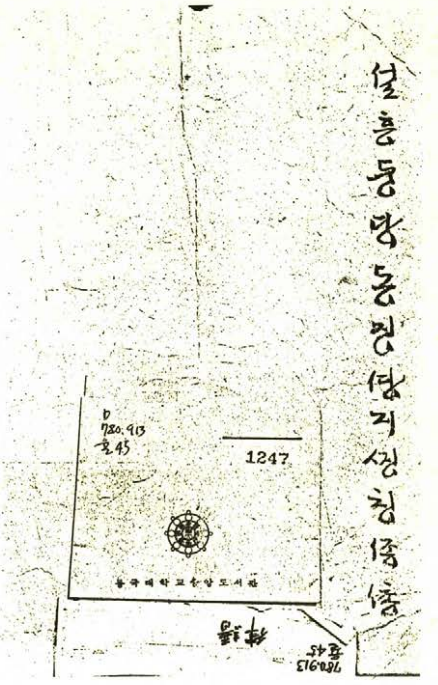
第一絃 仝清 二청 三영 四지 五앙 六장 七동 力素則仝 八랑 九등 力素 十흥 十一철 十二과 (諸說音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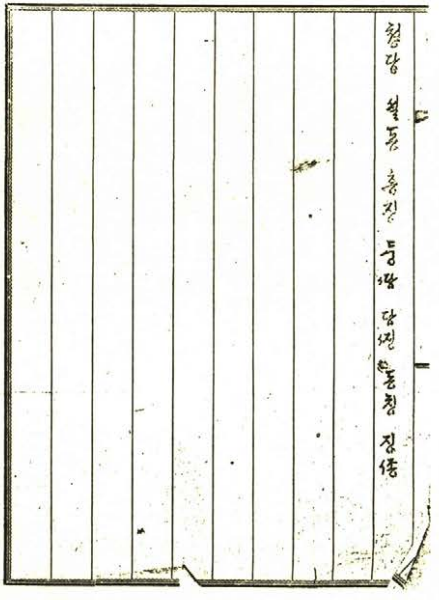
調絃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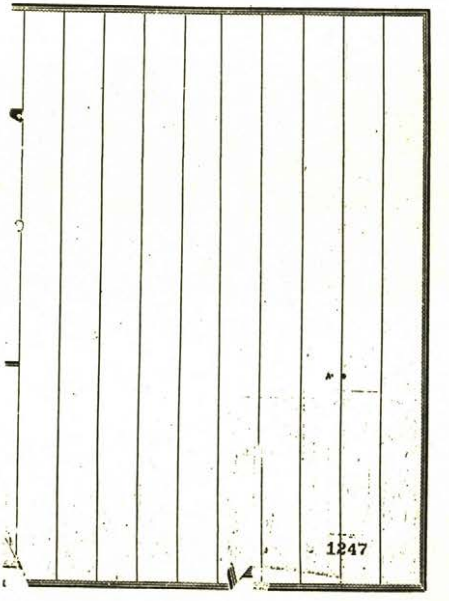
先以洞簫吹궁穴以궁絃音同餘皆倣此洞簫궁穴即前行第一穴 一上也 已而音清。相合철。동相合흥。징相合등。쟁相合랑。쟁相合등。징相合징。쟁相合惟지絃則彈쟁。징지징之曲定則可知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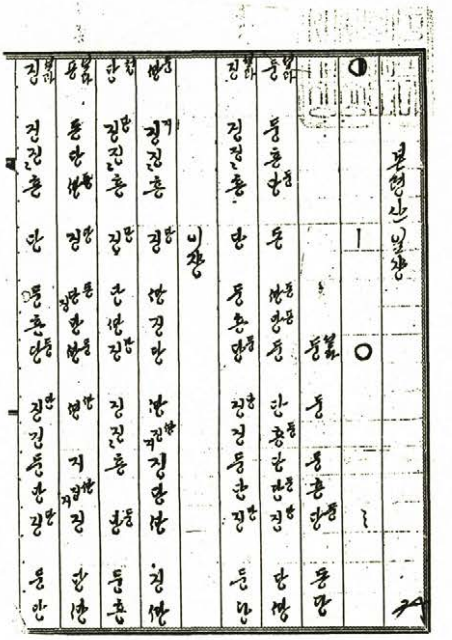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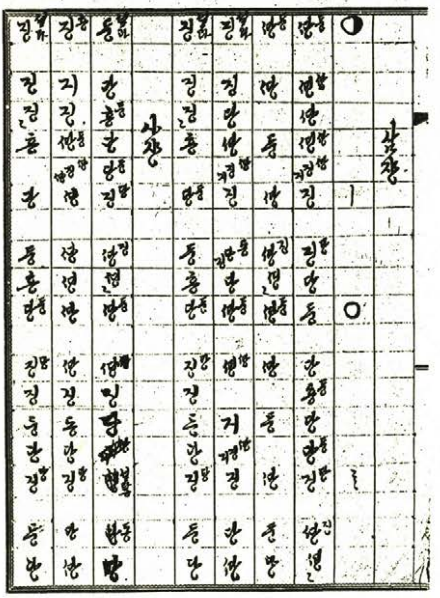
DH809
.E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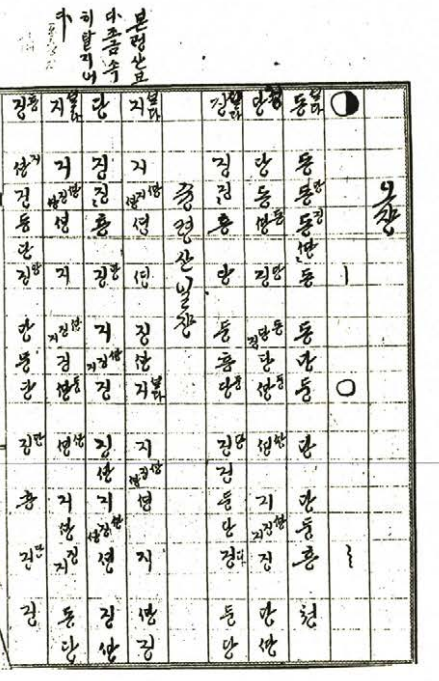

1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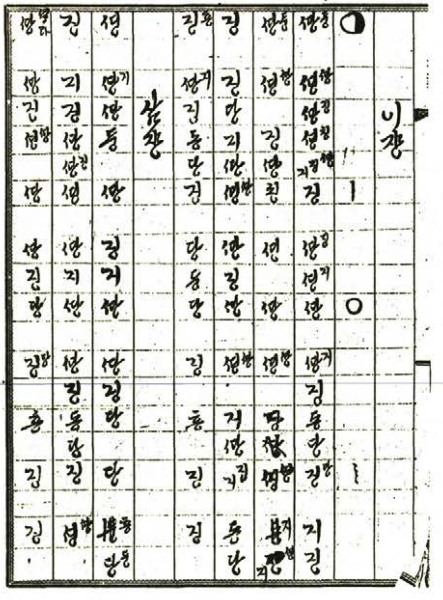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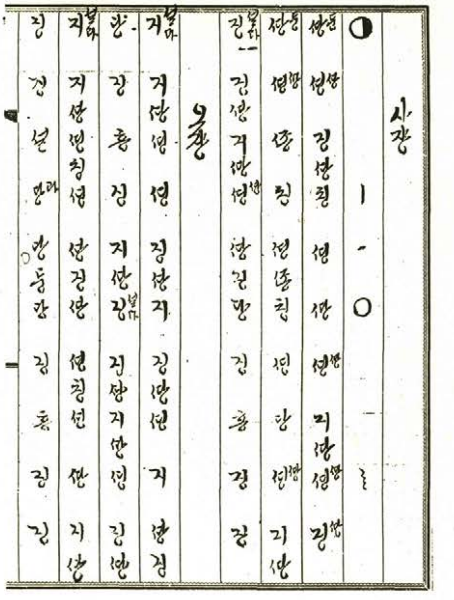

1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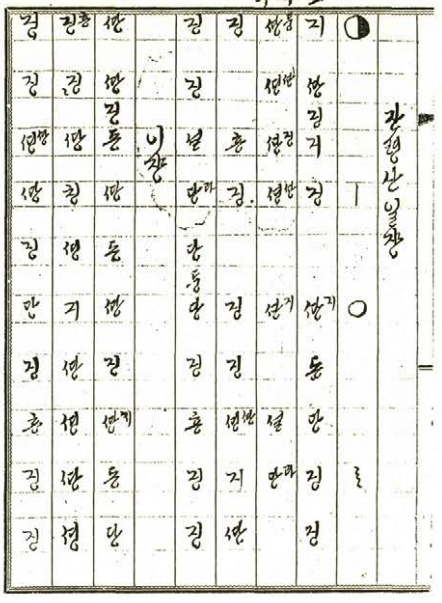


사광 ㅣ-ㅇ ㅣ

선생 김산천 선생 산 선생 리상선생 김선생
선생 선생 선생 천 선생 산천 리 산
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오광

거산선생 선생 김산지 김산선 거산
거산선생 선생 김산지 김산선 거산
강 흥 김 지산김선생 지산지산선생 김산
지산선생 산김산 선생선 산 지산
김 건 날 산과 강동강 김 흥 김 김



팔광 ㅣ-ㅇ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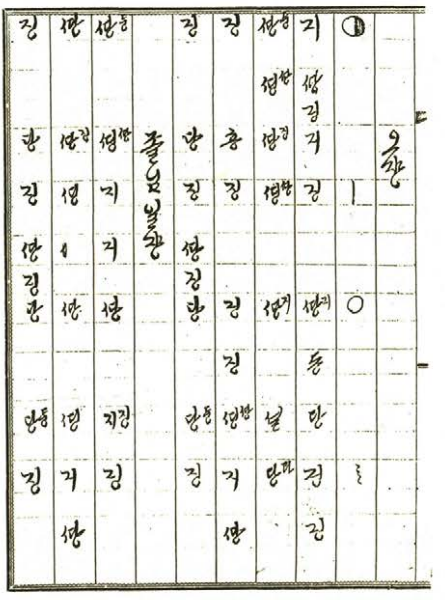
김산천 선생 산 선생 리상선생 김선생
선생 선생 선생 천 선생 산천 리 산
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사광

선생 김산천 선생 산 선생 리상선생 김선생
김산천 선생 산 선생 리상선생 김선생
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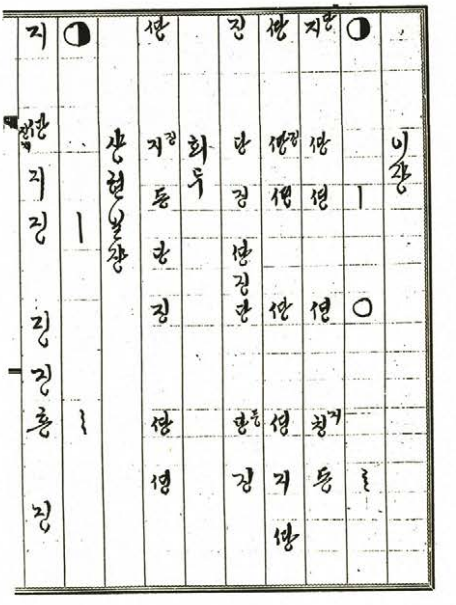
오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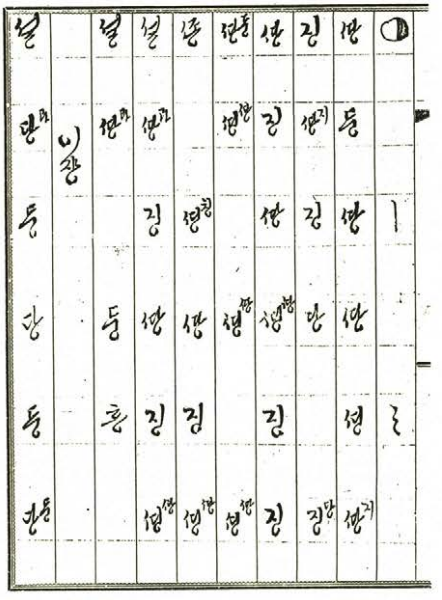
선생 김산지 김선생 산 김선생
선생 김선생 김선생 산 김선생
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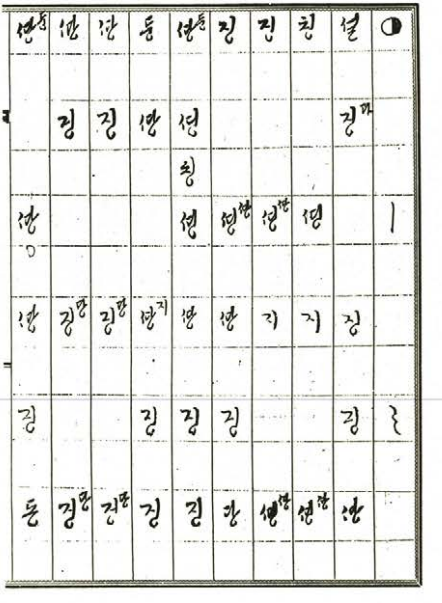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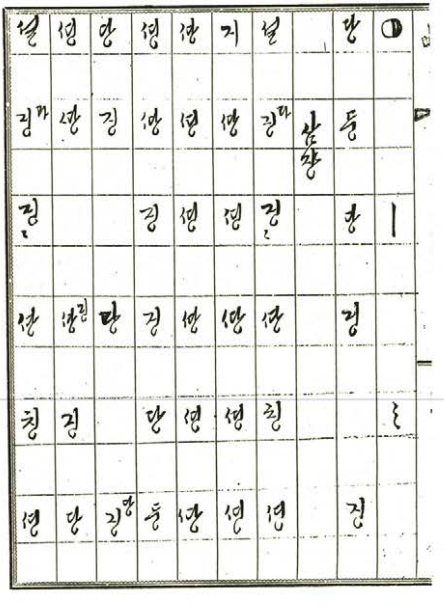
삼광 ㅣ-ㅇ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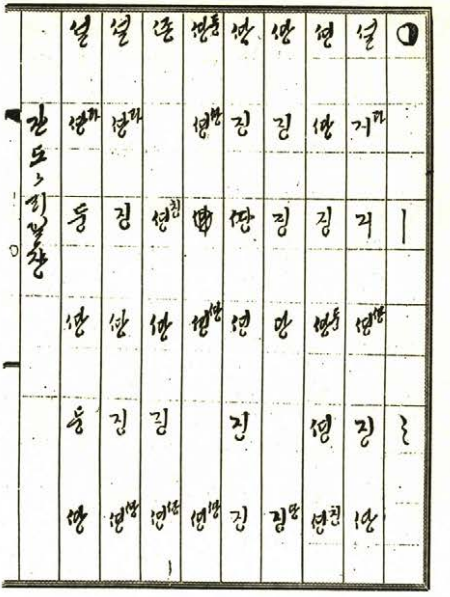
김산천 선생 산 선생 리상선생 김선생
김산천 선생 산 선생 리상선생 김선생
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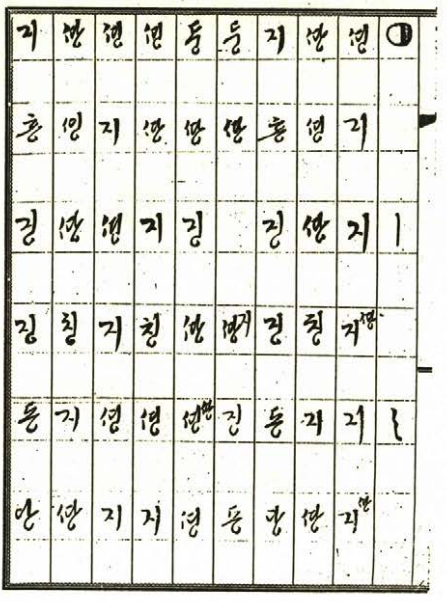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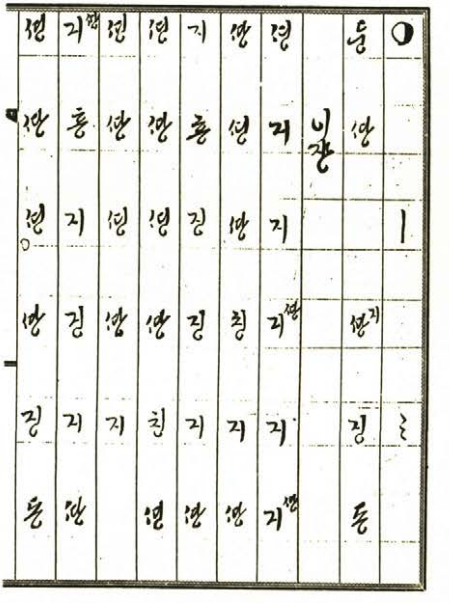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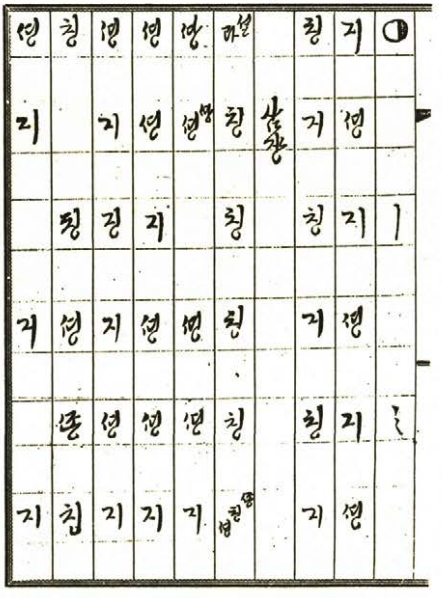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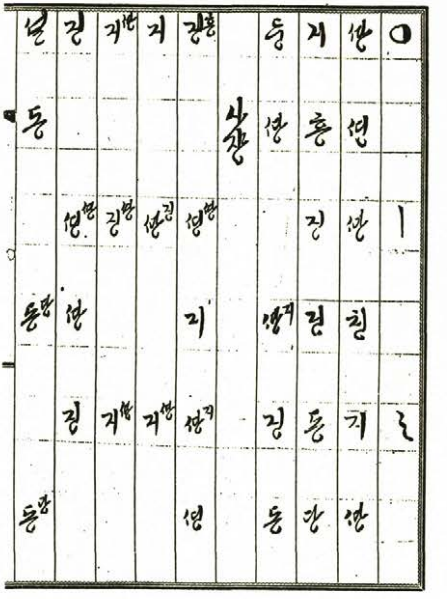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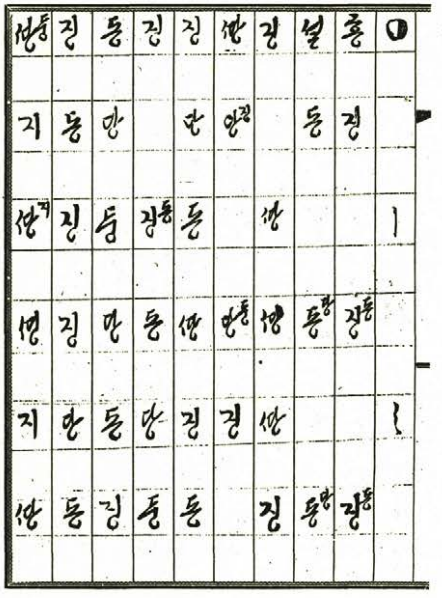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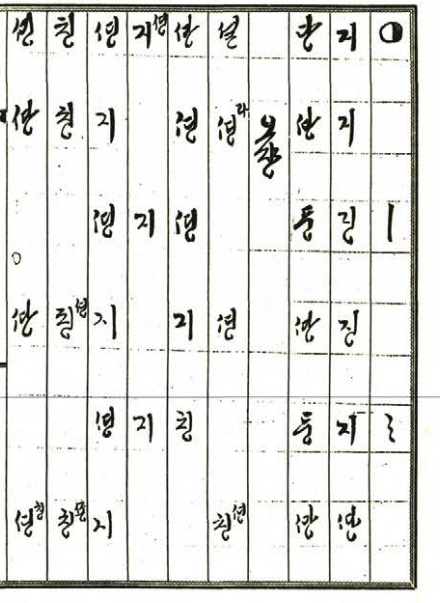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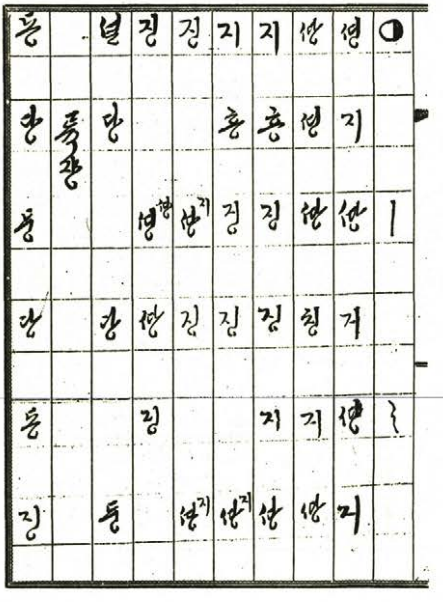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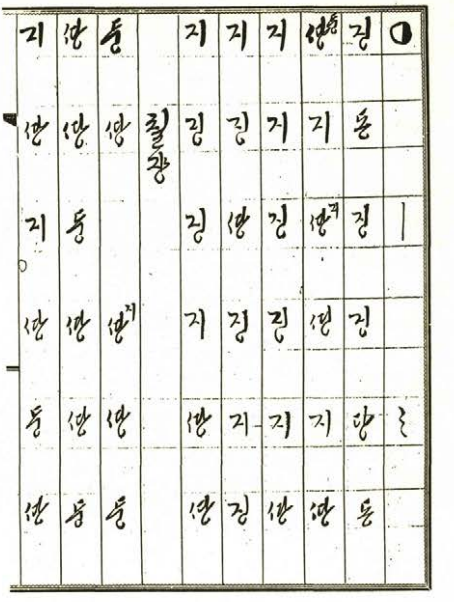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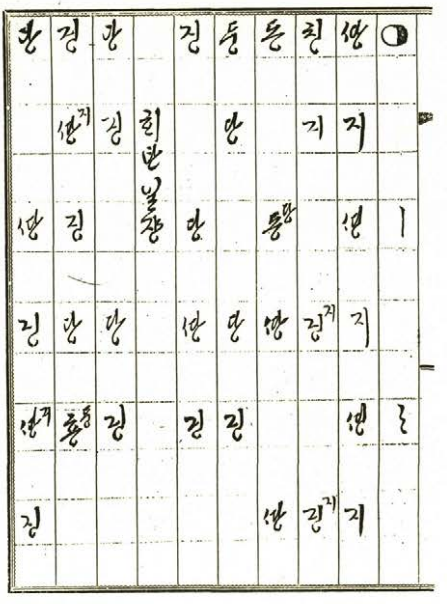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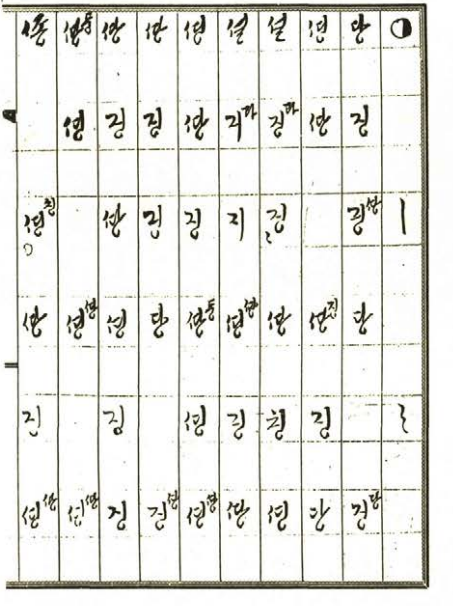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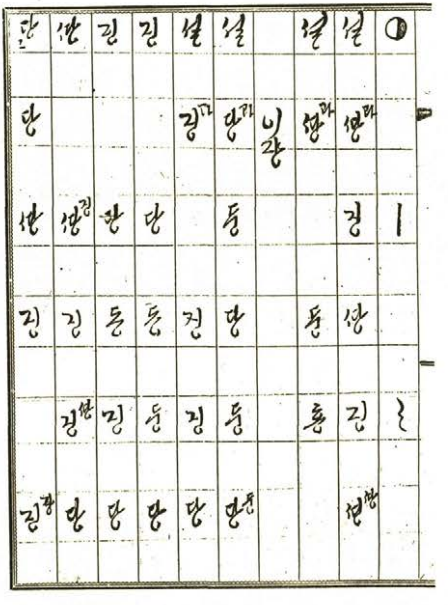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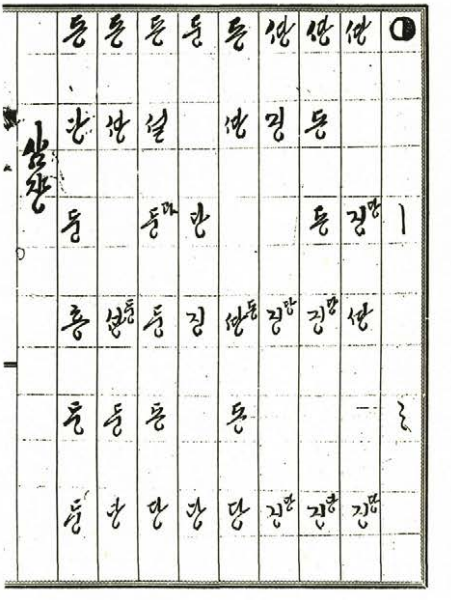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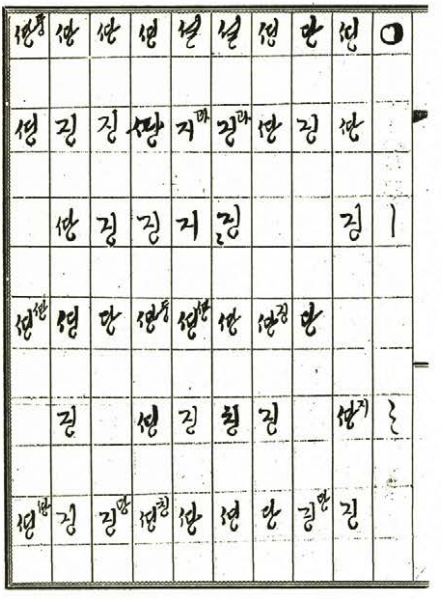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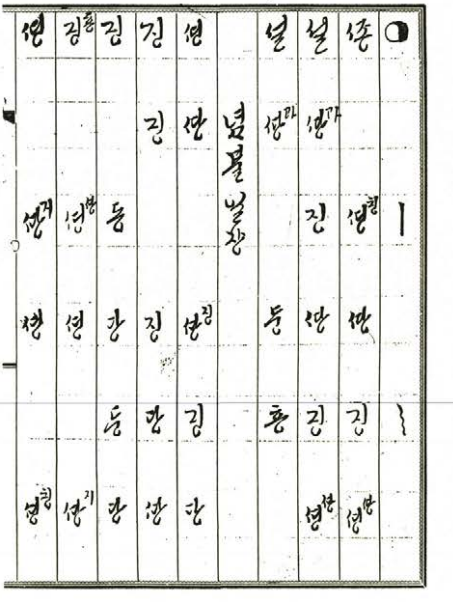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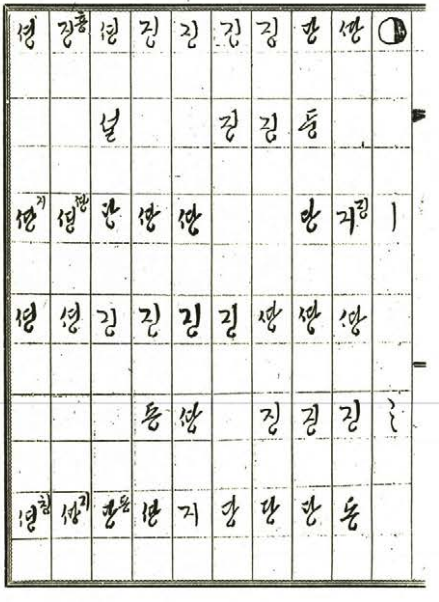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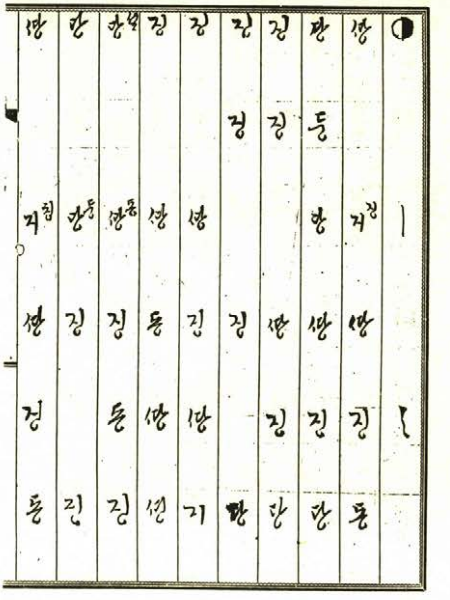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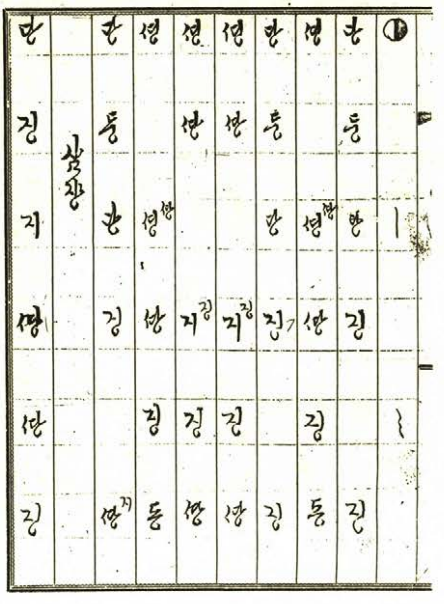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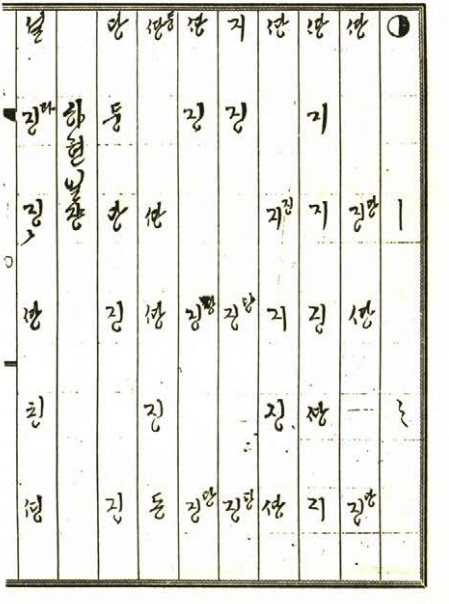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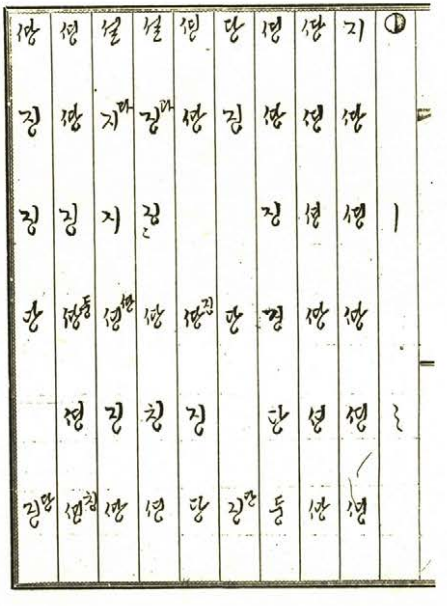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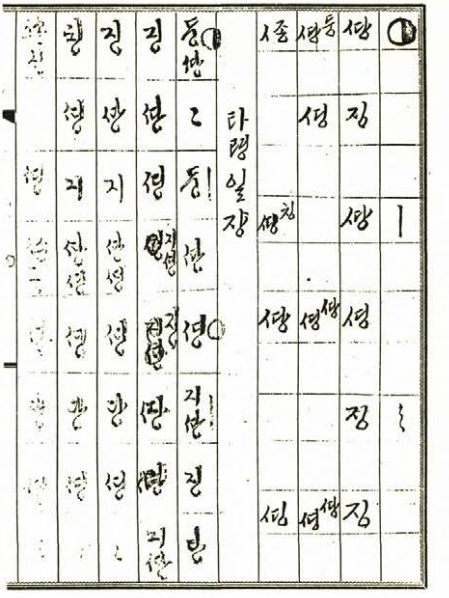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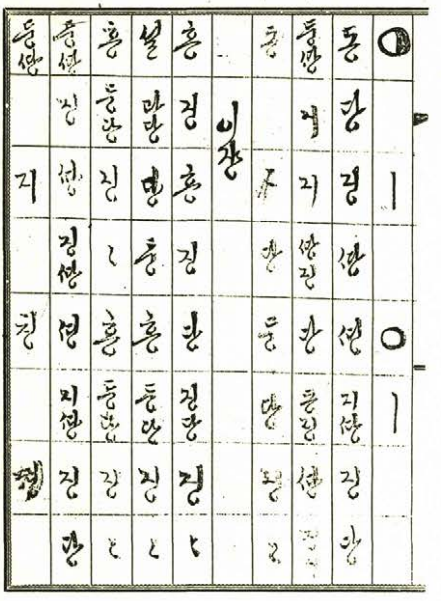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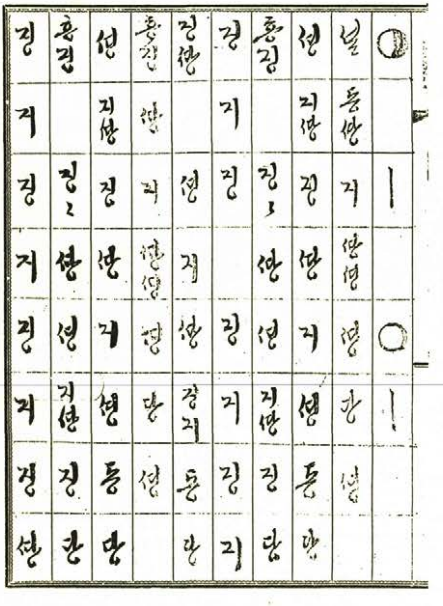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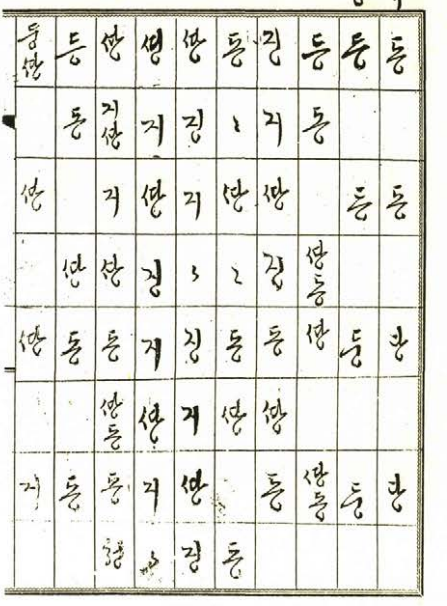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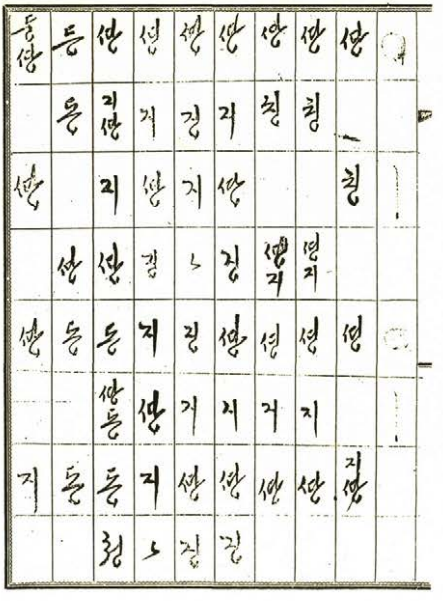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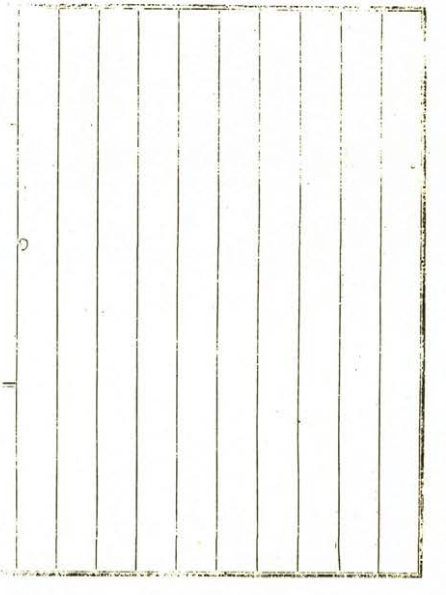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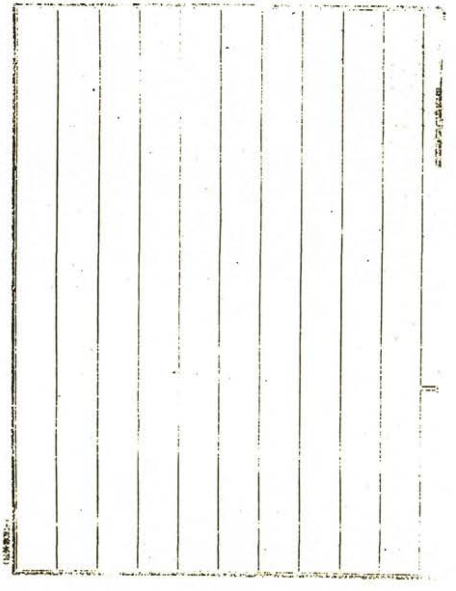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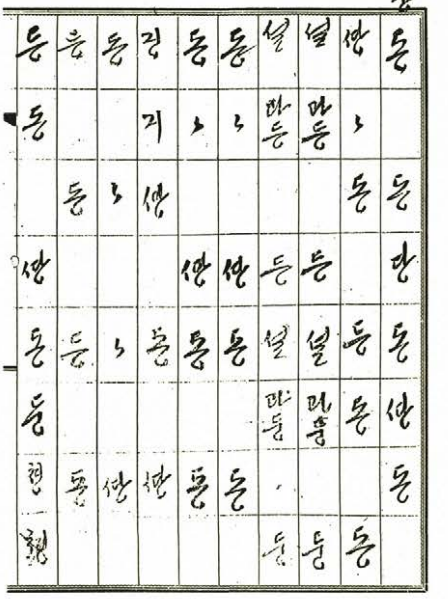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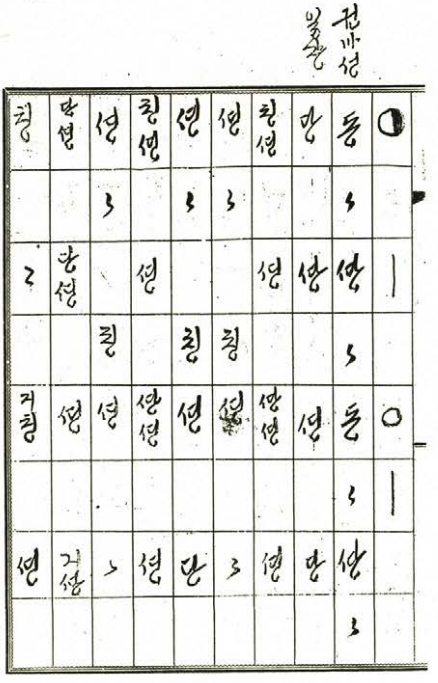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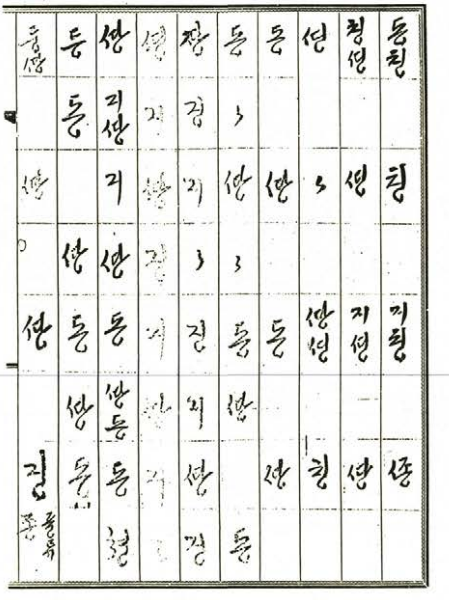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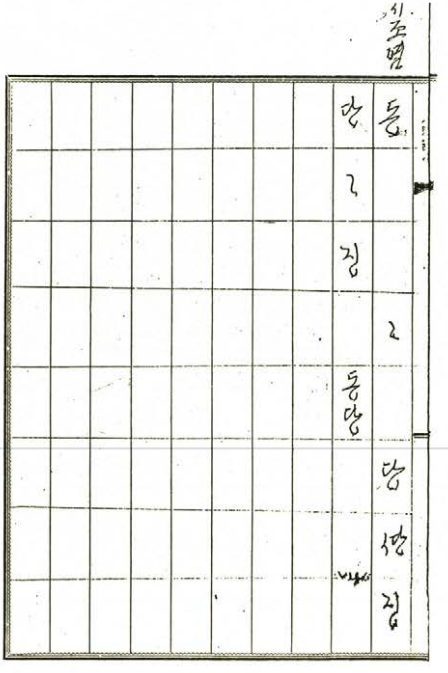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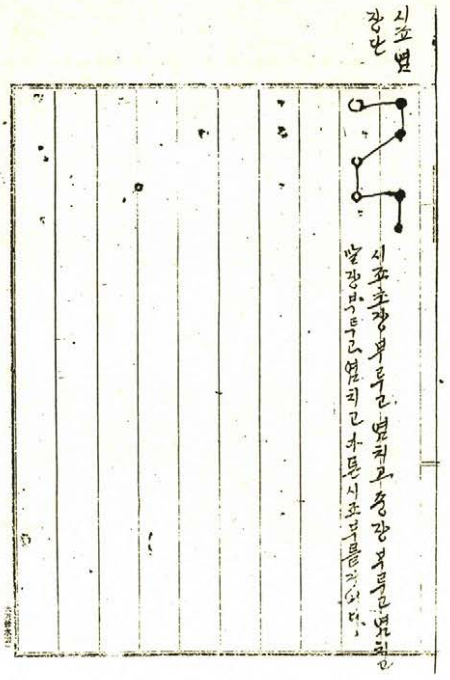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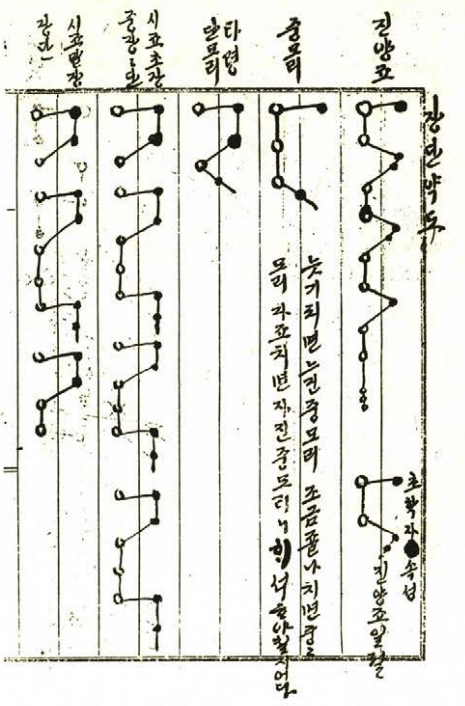












※ 장단약도 앞부분 10장이 白紙임

韓國音樂學資料叢書二十二

琴合字譜·時用鄕樂譜
東大琴譜·東大伽倻琴譜·東大律譜

一九八七年十一月二十五日 印刷
一九八七年十一月三十日 發行

發行處 國立國樂院
서울特別市 中區 奬忠同 二街 山一四~六七
電話 二七四~一一七八·一一七九

印刷處 世信文化社

정간위 26-6-66〈비매품〉